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



발간사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시간이 되면, 떡집과 정육점, 생선집과 야채집 그리고 과일집 등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간절하게 울려 퍼진다.

“맛있는 떡이 세 팩에 오천원!”

“삼겹살이 한 근에 만원!”

“고등어 세 마리 팔천원!”

“자두가 한 바구니 오천원!”

“영무 세 단에 오천원!”

“싸다 싸! 세일 왕창 세일!”

내용중에서...

올해는 오래전부터 인천 서구에 있었던 재래시장, 즉 전통시장들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 중에는 지금은 사라진 검단의 재래시장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모두 현재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는 전통시장의 역사와 지금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알리고자 향토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향토지에서 다루는 대상은 인천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거북시장을 비롯하여, 강남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가좌시장 및 축산물도매시장 등입니다. 더불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한 때 오늘날 검단출장소 앞에 있었던 검단 재래시장도 이번 향토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 출간한 「인천의 길과 시장」에서도 일부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북시장의 경우, 인터넷과 일부 논문 및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원과 현지 상인들이 알고 있는 기원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향토지에서는 시장에서 40년 이상 장사하신 상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가 낱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들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행사를 열고, 편의시설을 확보하며 사람들의 발길이 시장을 향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하는 향토지가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을 알리고 관심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목 차

I. 시장 형성 이전의 서구

- 1. 전통적 자급자족경제 시대_9
- 2. 서구의 근현대 행정구역_13
- 3. 운요호 사건과 제물포 개항_14
- 4. 일제강점기_15
- 5. 배다리시장의 형성, 흥망성쇠_16
- 6. 송림동시장의 등장_22
- 7. 인천교 개통_23
- 8. 흑백사진 속 청라도_25
- 9.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서구의 도시화_27
- 10. 화폐_30

II. 검단 유일의 시장 검단재래시장

- 1. 검단재래시장의 위치와 형태_38
 - 2. 조선시대 역원과 검단재래시장_42
 - 3. 검단 공장의 난립과 재래시장의 형성_47
 - 4. 검단 주민과 검단재래시장_56
 - 5. 검단 재래시장의 소멸과 변화_64
 - 6. 1999년 검단종합시장 화재 사건_70
-

Ⅲ. 서구 최초의 시장 거북시장

- 1. 거북시장에 대한 소개_74
- 2. 거북시장 이전의 석남동_77
- 3. 석남동 일대의 공업지대화와 인구 변동_89
- 4. 거북시장 형성과 변화_97
- 5. 거북시장의 가게_113
- 6. 주요사업_119

Ⅳ. 정과 덩과 추억을 담아가는, 인천 가좌시장

- 1. 언제 가도 즐거운 시장_124
- 2. 가좌시장의 탄생_127
- 3. 가좌시장의 전설_131
- 4. 가좌시장 터줏대감 <크로커다일> 박상근 사장을 만나다_140
- 5. '스타점포'가 있어야 시장이 뜬다_145

Ⅴ. 인우와 천돈이 있는, 인천축산물시장

- 1. 인천축산물시장 프로필_156
 - 2. 착하고 아름다운 자매식당_160
 - 3. 열우물경기장 주변_160
 - 4. 흥미진진 야시장_161
 - 5. 경기권에 유일한 도축장_162
 - 6. 코로나 립스틱_163
-

VI. 인천의 강남, 강남시장

- 1. 강남시장 소개_170
- 2. 마을의 형성과 강남시장_176
- 3. 강남시장의 변화_182
- 4. 강남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 강남시장의 리더, 한재호님의 이야기_190
- 5. 주요 사업들_202

VII. 노을이 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정서진중앙시장

- 1. 들어가며_212
- 2. 정서진중앙시장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현재_215
- 3. 주변 대형 상가_226
- 4. 상인회와 자원봉사단_228
- 5. 전설을 만들어가는 시장사람들_234
- 6. 나오며_245

에필로그 247

인천 서구 전통 시장 연표 251

I

시장 형성 이전의 서구

- 1 전통적 자급자족경제 시대
- 2 서구의 근현대 행정구역
- 3 운요호 사건과 제물포 개항
- 4 일제강점기
- 5 배다리시장의 형성, 흥망성쇠
- 6 송림동시장의 등장
- 7 인천교 개통
- 8 흑백사진 속 청라도
- 9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서구의 도시화
- 10 화폐

김영덕 (향토문화연구소장/문학평론가)

I. 시장 형성 이전의 서구

지질학적으로 지금(now)은 공룡이 멸종한 신생대(era) 제4기(period) 홀로세(epoch)다. 그런데 11,000년전에 시작된 홀로세Holocene는 이미 종식되었고 지금은 '인류세Anthropocene', 즉 '인간의 시대'라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지질학적 논란이 한창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사회가 형성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실존existence이자 기제 가운데 하나가 시장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등 시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은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다. 그러나 시의 고급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아무나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라는 시스템 하에서 시장의 생성은 권력자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봉건 영주의 성채(citadel)에서만 시장이 허용되었다. 지금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커머스'시에는 대규모 명품시장인 '시타델아울렛CITADEL OUTLETS'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791년(정조15년) 폐지되기 전까지 '금난전권(禁亂廛權)'이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금난전권이란 육의전과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던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특권을 지칭한다. 서양의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이었다.

신석기시대 이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물물교환으로 상징되는 교환경제 시대를 거쳐 오늘날 온라인거래를 포괄하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capitalism) 경제에 이르기까지 거래(deal)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시대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이 더 행복해졌는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 유행의 변화에 따라 시장 상품들의 얼굴도 바뀌어 왔다. 그러나 시장이 매일 무수히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하여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궁극적 균형을 찾아가는 비의적 장소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시장은 진실의 순간들이 반딧불처럼 명멸하는 익명의 숲이며, 자본주의의 꽃이다.

1. 전통적 자급자족경제 시대

1만년전 인류가 수렵채집생활을 포기하고 이른바 정주형 농경목축생활을 시작한 이래, 농업생산성은 사실상 가족 구성원들의 근력과 가축의 활용에 좌우되었다. 고즈넉한 농경 위주의 사회였던 서구 지역에서는 노동의 단위로 ‘삼부자’라는 어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삼부자三父子란 문자 그대로 가족내에서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 둘을 말한다.

젊은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려 자녀들을 낳고 키워 아들들로 그 조합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논농사에 필수적인 ‘가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대되었다.

가래는 큰 삽처럼 생긴 가랫날에 양쪽 귀퉁이를 새끼끈으로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가래손잡이를 붙들고 힘과 방향을 조절하는 농기구다. 가래를 사용하면 흙을 떠서 멀리 보낼 수 있고, 흙을 파 올리는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다.



농가에서 소를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도 아주 중요했다. 소를 갖고 있으면 다목적 운송수단이었던 우마차를 끌 수 있는 것은 물론, 논과 밭에 ‘쟁기질’과 모내기 직전의 ‘씨레질’까지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 한자어로 건(件)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 인(人) 변에 소 우(牛)자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소가 결합하여 비로소 ‘일을 구분하는 한 단위’가 된다는 개념어인데, 매우 절묘하다. 농가에서 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운기나 포크레인, 트랙터같은 중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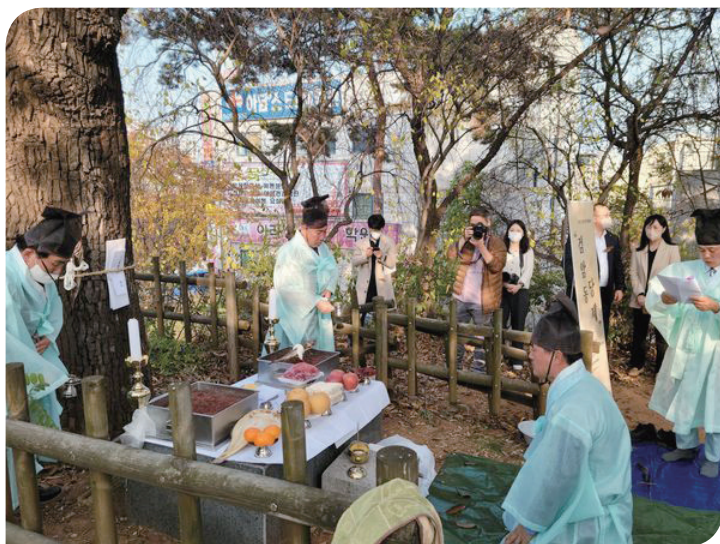
자급자족경제 시대에도 소를 매매하거나 소금 같은 필수 물질을 사고파는 시장의 기능은 요구되었다. 서구, 그 중에서도 서곶지역에 등장했던 가장 오래된 시장은 고현리, 오늘날 공촌동의 공촌초등학교 인근에 있었다는 삼국시대 ‘고현’시장이다. ‘고현’은 백제의 대규모 소금생산기지를 관리하는 지방 읍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초기 ‘수주’의 소재지로 역할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현리’는 대규모 소금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고려가 건국되면서 수도인 개경에서 김포반도를 지나고 부평부를 거쳐 삼남지방을 이어지는 도로가 계양산 ‘징매이고개’와 ‘작은 징매이고개’로 고착되면서 그 축선상에 있던 시천동 ‘꽃뽕’마을과 검암동 ‘바로뽕’마을 사이의 지역인 ‘장모루’가 수주의 소재지가 되었다. 장모루 바로 옆에는 고려 때 역마를 관리하던 역참 ‘구슬역’이 있었고 그 주변에 과거시험을 보러 수도인 계경을 오가던 삼남지방의 선비들과 지방관, 부부상들을 위한 여각인 구슬원이 변창했으며, 시장도 활기를 띄었다. 조선시대에는 인근 검암동 ‘바로뽕촌’이 모월곶면의 소재지가 되면서 ‘발아현’이라는 고개 아래 ‘발아장’이라는 큰 저잣거리가 형성되었다. 그 고개는 1925년 인천-양촌간 신작로가 뚫리기 전까지 국도 구실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검암동 국민체육센터 맞은편 그 고갯마루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는 매년 가을 당(산)제가 열린다. 마을 수호신에게 무병과 풍년을 빌며 지내는 제사다.

원래는 시월 상달 무오일에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어 제를 올렸다. 당(산)제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 주는 동신(洞神)에게 무병과 풍년을 빌며 지내는 제사다. 1930년대까지도 전국 자연부락의 58퍼센트가 당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서구문화원이 주최하고, 검암동 당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서구에서도 60년대 초반까지는 동리마다 가을걷이를 마치고 당(산)제를 지냈는데, 도시화의 광풍으로 신현동이나 검암동, 검단의 일부 마을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형편이다.

당제는 보통 마을의 높은 곳, 당산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지낸다. 검암동에는 국민체육센터 맞은편 언덕에 수백년간 제를 지내던 상수리나무가 아직도 건재하다. 수령이 400년을 넘는다. 마을의 원로 회의에서 신성한 사람을 당주로 선정하여 제를 올린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온 그 저잣거리에서는 우시장이 서고 농산물과 일용잡화가 팔렸다고 한다. 이후 계양면에 황어장이 개설되고 그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발아정은 유명무실해지다가 폐지되고 말았다.

과거 농경사회였던 서구의 여염집 구조는 대체로 ㄱ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 곳간채가 마주보도록 구성된 트인 ㄷ자형이었다. 중국 화북지방의 전통 가옥인 사합원(四合院쓰허위안)과 구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사랑채 왼쪽 2칸은 사랑방이고 가운데 1칸은 대문, 오른쪽 2칸에는 행랑방이 있었다. 행랑방 뒤쪽에는 외양간과 광, 곳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사랑채 바깥쪽 대문 옆에는 뒷마루가 놓여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공간은 안마당이었다. 곳간채의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고 외벽은 짚단이나 갈대, 수수짚을 진흙과 버무려 흙벽을 쌓았다.

안채의 중심인 안방 아랫목과 접해 있는 곳에는 부엌이 있었는데, 아궁이 높이 때문에 부엌 바닥은 봉당 보다 보통 한 자 이상 낮았다. 부엌에는 부뚜막이 있었고, 그 위에 밥을 짓는 중간 크기의 솥과 큰 가마솥 2,3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가마솥은 물을 끓이거나 소에게 먹일 여물을 쭉고 엿을 고는데도 사용되었다.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색된 부뚜막 상부에는 안방에서 연결되는 다락방이 있었다. 가내 일용품을 보관하는 벽장으로 사용되었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는 대청마루가 있었다.

부엌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가면 뒤란이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나온다. 뒤란 주위로 바작을 치거나 참죽나무에 의지해 수수깥 율타리를 설치해 외부와의 경계로 삼았다. 부엌에서 가까운 곳에는 돼지 우리도 있었다. 변소(뒷간)는 본채와 한참 떨어진 마당 가장자리에 있었으며 그 입구에 젓더미가 반드시 함께 있었다.

2. 서구의 근현대 행정구역

인천광역시의 많은 부분이 독자적 명칭을 가진 독립 행정 단위로 존재했으므로 각 행정단위별로 독자적인 역사가 있었고 지역적 특징이 있듯이, 서구의 여러 지역도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구역 또는 매립 전 공유수면으로 존재했다. 오늘날 서구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서곶면 지역은 1914년 신설된 부천군의 일부로 존재하다가 1940년 비로소 인천부로 편입되었다.

검단지역은 1995년 김포군으로부터 분할, 편입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는 1980년대에 매립이 완성된 후, 농지에서 택지로 전용된 것이다.

김포권역에 있던 검단지역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부평(도호)부의 일부였던 서구는 오늘날 인천의 중심부와는 전혀 별개의 생활권에 속했다. 오히려 부평읍내(계산동)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실 인천의 도심과 서구가 유의미하게 연결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공사가 끝난 ‘인천-양촌간 도로’가 개통된 이후다. 그 전에는 우마차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가 전부였다. 사람과 물자를 대규모로 수송할 도로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고 왕래 수요도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서구 가좌동과 동구 송림동 사이에는 주안갯골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구 주민들은 ‘번지기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인천을 왕래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갯골이 끝나는 십정동을 우회하고 주원고개를 넘어서 인천 시내까지 가야했다. 행정적으로는 물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도 전혀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신식학교와 시장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왕래할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3. 운요호 사건과 제물포 개항

프랑스(1866)와 미국(1871)을 물리친 조선정부는 오히려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 진출을 노리던 일본에게는 뜻밖의 장애가 된 것이다.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일으켰다.

운요호(雲揚號)사건은 1875년 9월 20일 일본 해군 전함들이 서구 경서동 난지도 동남쪽 금산 후사면에 닻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경서삼거리 인근이다. 운요호 함장인 이노우에 가오루는 직접 수십명의 해병과 함께 보트를 나누어 타고 불시에 강화도 초지진으로 침입했다.

강화해협을 방어하던 조선수비병이 놀라서 침입해 오는 일본 보트에 포격을 가하자 이노우에는 운요호로 철수한 다음, 전함들을 강화해협으로 배치하여 신식 함포로 초지진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여 초토화시키고, 내친김에 영종진에도 포격 후 상륙하여 살상과 약탈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장졸들이 장렬히 전사했다. 조선조정은 회담을 강화에서 진행하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연해방영>을 편성하고 화도진과 함께 연희진을 설치하는 결정을 내린다.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일본의 압박과 정세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이 조약은 수백년간 지속되어 오던 해금책 또한 파기되는 단서가 되었다.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중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서둘러 미국을 비롯한 구미 열강들과의 수호통상조약을 주선하였다. 1882년에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고, 그

해 미국과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883년 한적한 아촌이었던 제물포가 개항되었다.

그리하여 제물포에는 인천해관(1883)과 인천감리서(1883)가 설치되고 각국 영사관과 전관조계 및 공동조계(1884)가 들어섰다. 이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상공업시설과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나갔다. 그러나 인천부는 일본인 도시로 변모했고 조선인은 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일본인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도 신속히 진행되어 1898년경 이미 일본조계 내 5개 지명이 산수정(송학동), 본정(중앙동), 상정, 종정(관동), 해안정(해안동) 등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4. 일제강점기

제물포개항 이후, 개항장 중심의 근대도시 인천은 태생이 일제의 식민도시, 식민지 교두보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1910년대 인천지도를 보면 배다리 경인철도 서쪽만 인천이었다. 동쪽은 화평리, 송림리 등 조선인 거주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 개항장만 식민지 교두보 일본인 거주지로 활용하려는 일제와 일본인 거주지역을 최소화하려는 조선당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구가 인천시내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계기는 1925년에 개설된 인천-양촌간 신작로 개설이었다. 그 전까지는 그 지역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5. 배다리시장의 형성, 흥망성쇠

130년전 터진개(신포동)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인천 원주민들은 외세 열강에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 입고 쫓기는 짐승처럼 쓰러져 넘어 척박한 땅, 배다리로 왔다. 터진개에서 맨몸으로 밀려난 인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배다리와 인근 화수동, 화평동, 금곡동과 창영동이다. 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옛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굶주림이었다. 쓸만한 어구도 없이 맨손으로 고기잡이가 될 리 없었으며, 갯골 저지대의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인근 장의리(송의동)나 숯골(도화동) 같은 문전옥답에는 이미 그 지역 토박이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웃 마을 품팔이로 간신히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의지만은 누구보다 강했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자신들의 삶을 개척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인천 짬물 정신이 태동한 것이다.

그리고 희망이라곤 없어 보였던 이곳 배다리에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1899년에 경인철도가 부설되면서 지금의 배다리 인근에 축현역이 생긴 것이다.

인천의 변두리, 갯골의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노른자위로 변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그 당시 지도에서 경인철도 서쪽은 행정구역이 이미 미야마치나 혼마치, 유정이나 용강정 등 일본식으로 지명이 바뀐 반면, 조선인 거주지인 오른쪽은 화평리, 송림리, 금곡리 등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자들에게는 제물포 개항장 인근 지금의 중구지역만 인천이었다. 외세 열강들의 조계가 설치되었던 중국의 상하이나 텐진 시내가 그렇듯 이곳도 경인선 철길을 경계로 조세, 치안 행정

나닌 사실상 서로 다른 국가였다. 요즘의 시각으로는 경인철도가 인천의 도심을 양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도시 설계자들은 철길을 인천이라는 도시의 주거지역 외곽으로 배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을 한 것이다.

과거 배다리는 사실 주운수로(舟運水路)였다. 1914년에 발행된 인천 지도를 보면 묘도(팽이부리) 앞에서 시작된 수문통 갯골이 화수동과 화평동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휘어져 싸리재와 금곡동 경계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갯골의 맨 위쪽이 바로 배를 댈 수 있는 곳 pier이란 뜻의 배다리다. 밀물 때 미곡과 새우젓, 목재 등을 가득 싣고 들어온 작은 배들은 하역을 마치고 썰물 때가 되면 끄적끄적 간헐 다음 밀물 때까지 갯골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925년 인천-양촌간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서구의 주민들은 걸거나 나룻배를 타고 배다리시장을 이용했다.

예나 지금이나 도로가 새로 뚫리고 기차역이 생기면 땅값이 뛰고 개발붐이 일어난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큰 변화의 물결이 몰려온다. 배다리 바로 서쪽에 축현역이 생기면서 물동량도 급증했다. 육로가 불편했던 시절, 이곳 배다리는 뱃길과 철길이 맞닿았으며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을 가진, 시장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항장 근처의 잘사는 일본인이나 서양인들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외항선을 통해 본국에서 수입되는 박래품에도 의존을 했지만 주로 의류와 공산품일 뿐, 곡물이나 수산물, 목재 등은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 지방에서 각종 물품을 싣고 들어온 선박들이 배다리까지 들어와 성시를 이루었다.

1910년경 경인철도 직선화 공사로 축현역이 지금의 동인천역(상인천역)으로 옮겨 갔지만 배다리 시장의 변형은 지속되었다. 동인천역 광장과 배다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구지하상가’였다. 갯골 독방길

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거대한 품물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특히 여름철이면 갯골을 따라 시원한 해풍이 불어와 시장은 불야성을 이루며 인천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공터였던 일대의 야시장과 일용품시장이 1936년에 인천부 직영 공설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상류인 배다리쪽부터 매립이 시작된다.

갯골이 매립되면서 형성된 중앙시장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시 동원체제로 도시민들이 소개되면서 잠시 위기에 처한다. 미드웨이해전 이후 남양군도에서부터 미군에 밀리던 일제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최후의 시가전까지 준비하며 전투에 방해되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은 시골로 이주시키는 강제 소개령(疏開令)을 내린 것이다. 전쟁으로 물자가 귀해진데다 많은 인천 사람들이 연고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 있었으므로 소비인구도 크게 줄면서 배다리 중앙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았던 일제강점기의 질곡도 결국 종식되며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 되면서 패전국인 일본의 군대를 무장해제하고 시설물을 접수하러 대규모 미군병력이 인천으로 들어오고 곧이어 미군정이 펼쳐지면서 배다리 중앙시장은 다시 활기를 띤다. 인천항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미국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륙운송 루트가 원활치 않았던 당시 미군정 당국의 수송 허브는 부산이 아닌, 인천항이었다. 이 때 한진상사나 월미운수처럼 하역과 화물운송으로 큰 돈을 벌어 오늘날 굴지의 재벌이 된 기업들도 많았다. 화평동쪽은 양키시장으로 특화되었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6.25사변이 일어났다. 시장은 전쟁과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통에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서울과의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배다리시장의 전성시대가 찾아온다. 수원까지 아우르는 한강이

남 지역의 대표적 시장으로 발돋움을 한 것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5,60년대 당시 배다리시장에는 내 고모가 하던 포목점이 있었고 외종조부가 운영하던 비누공장도 있었다. 그 공장은 '승리비누'라고 쓴 검은 붓글씨를 송판에 세로로 새긴 간판을 단 건물이었는 데, 그 규모가 제법 컸다. 동인천역 광장에서 (구)지하상가를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서 50미터쯤 걸어가면 왼쪽 편에 있었다. 공장 좌우로 싸전과 방앗간, 떡집, 선술집, 옷가게, 포목점, 문방구, 약기점들이 있었고, 통로 가운데에도 가판대가 끝없이 이어졌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시장은 손님을 끄는 상인들과 흥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로 항상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강의 뒷 물결은 앞 물결을 밀어내고, 세상에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대신하며, 모든 것은 끝을 향해 간다고 했다.

서울의 관문으로 이 땅의 개화기를 선두에서 견인했으며, 스스로 백삼십년 한국 근현대사의 증인이 되어주던 인천의 배다리도 80년대 이후 주민들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도시 인프라까지 바뀌면서 폐허만 남기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다.

그러나 배다리시장은 지금 송도신도시에도 있고 청라국제도시에도 있다. 강남과 분당에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있다. 뉴욕 맨해튼의 미드타운에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의 코리atown에도 있다.

배다리는 이제 내면화(internalization)되어 인천을, 배다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다리시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천 사람들 기억의 심연에 가장 역동적이며 행복했던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1차대전으로 폐허가 되었던 유럽의 도시들을 보며 했던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이 시장의 폐허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배다리가, 인천이라는 이 도시가 한 때 꿈꾸었던 그 꿈을 다시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Essay - BAEDARI Secondhand Bookstore Street

Friday, June 5, 2009, late in the afternoon, I was able to hang around on the so-called 'Baedari Secondhand Bookstores Street' in the old town Incheon. It's located just across the 'Jungang (Central), Jayu (Liberty) or Yankee Market'

Actually, I had some spare time shortly before a meeting appointment with my second cousin who is a teacher at a nearby high school, just to have fun while talking and drinking some Soju and rice wine together.

The district name "Baedari" can be translated directly into English language as a 'Ferryboat Bridge' or a small pier where ferryboats can anchor in. Until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the Kyeongin (Seoul-Incheon) Railroad was construc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re was reportedly a waterway to this area from the coast, accommodating ferry and/or fishing boats.

Though the waterway is completely covered with the pavement of broad streets these days, folks in this district still experience floods during the rainy season in summer because it's pretty low-lying area.

During the district's heyday in 1960's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child, I remember, there were numerous small businesses and street vendors, selling almost everything from American GI's military clothing, cigarettes, liquors, canned foods, diner supplies like sausages, etc., to every type

of books crowded in the street.

There were several ice cake factories like 'Changyeong-dang', etc. through the road as well. From the late 1960's, the street began to be called as the 'BAEDARI Secondhand Bookstores Street' as more than 50 bookstores settled in both sides of the street.

Now, however, only several bookstores remain, primarily because the people's living standard has been upgraded. Students, who were the biggest customers of those bookstores are no longer visit the street to buy those used textbooks or reference books at a new school term.

Those students also don't need to rely heavily on reference books or dictionaries, thanks to the so-called information age, enabling them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Besides, the population in the background area has been decreased sharply for the last 20 years as new suburbs, such as Yeonsu, Songdo, Cheongna and Yeongjong Island, etc, were developed in a large scale.

Many local Incheon people, however, still miss the old "BAEDARI" since the good memories were scorched into their brains as the Belle Epoque, a continental European "Golden Age", did to many Europeans.

6. 송림동시장의 등장

인천을 상징하는 배다리시장이 번영을 누리며 도시가 확장되자 송림로터리 인근에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구지역에도 시장이 등장하면서 서구주민들이 더 이상 송림동 시장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사실 60년대 후반까지도 배다리에서 송림시장으로 이어지는 송림로 양쪽에는 제재소들이 빼곡 들어서 있었다. 그 서막은 만석동 팽이부리에서 현책방거리까지 이어지던 수문통 갯골을 통하여 경기 남부, 충청도지역에서 선박으로 공급되던 건자재들을 가공하기 위한 목재소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열렸다. 그 목재소들은 90년대까지도 성황을 누리던 ‘문화극장’ 인근에 있던 인천의 명물 성냥공장들에 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50년대 후반, 인천교가 개통되면서 개건너 서구주민들이 가까운 송림동시장을 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40년대까지도 지대가 낮아 겨울철 썰매장과 천연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던 곳에 ‘현대극장’이 들어서고 음식점들도 생기면서 수많은 서구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60년대와 70년대가 이 시장의 전성기였다. 이른 아침, 검단사거리에서 출발한 시내버스와 강화, 양곡에서 출발한 버스가 시장 입구 정거장에 정차하면 일대는 등갯길 중고등학생들과 계란 등 소규모 농산물을 보파리에 싸서 신고 온 촌부들, 상인들로 법석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서구가 도시화되면서 차츰 쇠락하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도 명맥은 유지해 나가고 있다.

7. 인천교 개통

60년대 초반까지도 인천의 서구지역 대부분의 농가 마루 밑에는 크고 작은 고무신들과 함께 짚신과 미투리 두어 켤레가 놓여 있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짚신은 고무신과 함께 서민들과 삶의 고락을 함께 해 온 존재였다. 그렇지만 농사일을 할 때는 불편해서 대부분 논 두렁이나 밭두렁에 신을 벗어 놓고 맨발로 일을 했다. 애초에 집에서부터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일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했다. 오줌을 훌륭한 거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아까워했을 정도다.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바로 배출되어 따스한 오줌을 스스로 언 밭에 누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언 밭에 오줌누기’라는 속담이 생겼다.

내 할머니는 소싯적에 아주 억척스러워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농한 기에는 부업으로 보파리 장사를 했다. 30년대부터 5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이다. 겨울에는 주로 성냥장수, 여름에도 잠깐씩 오지그릇장수를 했다. 성냥은 화수동, 송림동 일대에 있던 성냥공장에서 날개비로 떼어다가 머리에 이고 봇짐장수로 다니며 뒷박으로 헤아려서 팔았다. 허브앤스포크Hub-Spoke개념을 선구적(?)으로 도입, 북서곶의 우리집을 물류 허브로 활용하며 김포와 강화는 물론, 멀리 행주나루까지 도보로 다니며 장사를 했다. 오지그릇은 오늘날 송의동 축구전용경기장 인근의 작은 포구에 있던 오지그릇 장터에서 떼어다가 머리에 이고 돌아다니며 판매를 했다.

인천의 구도심에서 서구청을 연결하는 도로는 예나 지금이나 6번 국도와 305번 지방도였다. (구)서곶로가 305번 지방도로다. 가정동에서 국도6번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가파른 승학고개를 넘어 온 그 도

로는 검단을 지나 김포 양촌으로 연결되었다. 현재 서구청 앞을 지나가는 신작로인 서곶로는 98번이라는 새로운 명찰을 달고 있다.

국도6번은 지금도 인천역에서 시작되어 화수사거리를 지나 셋골로를 따라 오다가 현대시장에서 송림로와 만나는데, 인천에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양평, 횡성, 평창을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유서 깊은 도로다.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국토 중앙을 통과하는 유일한 동서횡단 국도였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에도 그 도로는 건재를 과시하며 가좌동과 신현동, 가정동을 지나 아나지고개까지 고속도로와 나란히 서인천구간을 달렸다.

보부상들은 지금의 송림오거리를 경유, 송림로를 따라 인천교삼거리까지 걸어와 그곳에서 나룻배를 탔다. 뱃삿은 30전이었다. 배를 타고 갯골을 건너면 닿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가좌동의 ‘번지기나루’(일명 ‘보도진’)이다.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부터는 고무신을 벗어 허리춤에 넣고 맨발로 걸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익숙해서 편하기도 했지만, 신발 닳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멀리 행인이 오는 것이 보이면 꺼내 신었다가 지나가면 다시 허리춤에 찼다.

50년대 후반에는 이곳 나루터에 다리가 놓였다. 한때 그 이름 하나로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대표했던 교량인 ‘인천교’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과거 이 갯골 하구에서는 가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달의 중력으로 인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인천에서 밀물은 썰물 보다 그 속도가 두 배는 빠르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바닷가 서민들은 갯벌에 나가서 게나 조개, 바지락같은 해산물을 캐서 고단한 삶을 영위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인천의 외갓집에 다녀오는데, 버스가 갑자기 인천교 위에 정차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창 밖을 보니 멀리 갯골이 넓어지는 하구에서 ‘사람 살려’라는 다급한 외

침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왔다. 119같은 인명구조대의 도움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해산물 채취에 열중하느라 미처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미 갯골에는 소용돌이처럼 바닷물이 시퍼렇게 들어와 있었다. 물은 갯벌 높은 곳까지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황량한 해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천교 위에 서있던 버스안의 승객들은 갯골 하구를 바라보며 발을 구르고 탄식만 할 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바닷물은 어느새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허리에서 가슴, 그리고 마침내 목까지 차올라왔다. 나는 그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속절없이 깊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잠시 후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승객들을 싣고 다시 출발했다. 버스안의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도6번 가좌동 구간의 비포장 도로를 힘겹게 달리는 천장 낮은 오래된 버스 안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다.

8. 흑백사진 속 청라도

초대 인천시 교육위원을 역임했으며, 서구 지명위원과 건물 및 도로명 자문위원, 서구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고(故) 허정(許楨) 선생은 6.25전쟁이 터지자 서둘러 고향인 경서동 고잔마을 인근의 청라도로 식솔들을 이끌고 피난을 떠났다. 당시 20대 후반 약관의 나이임에도 서곶초등학교 교감이던 그는 썰물 때 질척이는 갯벌을 걸어서 갔다. 일단 가까운 섬에 가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요량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작은 섬에도 남로당 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여우 피하려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었다. 그곳에는 신분을 숨기고 서곶초 청라분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남로당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인공치하 서곶초 교책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 작은 섬에 꼼짝없이 갇혀서 한 달 넘게 교활하고 악랄한 그들의 온갖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던 허정 선생은 결국 그 교책의 신고로 인민의용군에 끌려가 생사의 고비를 무수히 넘길 수밖에 없었다.

청라도는 푸른 비단이라는 의미의 그 어느 곳보다도 포근하고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섬이지만, 서구 토박이들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기억과 욕망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곳이다. 육지화된 지금 이른바 국제도시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개방된 첨단 글로벌시대에 잘 먹고 잘 살자는 욕망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곳이지만, 그 섬은 원래 작고 척박한 땅이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섬에 들어온 주민들도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 청라도는 그냥 잠시 거쳐 가는 곳일 뿐이었다. 제아무리 생존력이 뛰어나 해산물 채취와 영세 발농사만으로도 입에 풀칠하는 게 가능하다는 집안도 결국 몇 대 버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육지로 떠나는 섬이었다. 그리고 허정 선생 같은 분들이 봉변을 당하며 생지옥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하다.

과거 북서곶 지역은 '모월곶면'이라는 옛 지명이 시사하듯, 신생대 제4기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면서 형성된 리아스식 해변을 가져 바닷물의 드나듦이 매우 복잡하고 반도와 섬이 많았다. 청라도는 해발 70미터 내외의 언덕 두 개가 이어져 구성된 섬이다. 인근에 이도와 소문침도, 장금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작고 척박한 섬에 어린 소풍객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어린이날 즈음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빗바랜 자개 찬합에 보리밥과 조출한 반찬 몇 가지 담아주면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다. 아이들은 그

작은 섬에서 급우들과 신나게 뛰어노느라 하루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그 아이들 나이도 이제 칠십대 후반을 넘어서고 있다.



9.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서구의 도시화

지리적 이동과 사회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근현대인의 삶은 타향살이다. 어쩌면 도시의 삶 자체가 이미 타향살이인지도 모른다. 고향은 이제 각자 기억의 심연에서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피처럼 이어지는 경인지역은 1899년 개통된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일제강점기 많은 인력을 고용했던 부평의 미쓰비시 조병창과 인천의 철도공작창도 철도역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경인철도 노선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벗어나 오랫동안 조용한 목가적 농촌마을로 남아있던 서곶 지역, 그 중에서도 남서곶이 먼저 도시화된 결정적 계기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였다.

서울의 서부지역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 남서곶과 부평, 궁극적으로는 서울과의 차량 왕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아나지고개’가 뚫려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서곶지역도 수도권의 일부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가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 좌측에 들어서고, 제5단지와 6단지가 가좌 인터체인지 인근에 들어서면서 산업공단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부족한 택지의 대안으로 남서곶이 부각되었다. 이후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동주택과 빌라, 다가구주택들이 논과 밭에 마구 들어섰다.

빈번한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화와 익명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속도로가 남북을 관통하며 달리면서 남서곶지역은 동서로 단절되어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가정동이 루원시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남서곶은 이제 새로운 첨단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천지개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골탈태의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가정동 루원시티교차로에서 6번 국도와 작별을 하고 북쪽으로 달리다보면 승학산과 철마산 사이의 고갯길을 장중하게 넘는 도로가 나타난다. 서곶로다. 서구청을 지나고 시천동 아라뱃길을 넘어 완정사거리까지 거의 직선으로 연결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그 도로 밑을 달린다. 그런데 철마산 기슭 현광아파트 앞에서 왼쪽으로 난 좁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승학고개를 구불구불 넘는 좁은 도로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옛 서곶길이다.

그 도로는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와 한성백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역 역사의 증인이다. 지금도 그 길은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옛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자신의 품에 안기는 크고 작은

차량들을 넉넉하게 맞으며 건재를 과시한다. 6.25한국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 미군 통신대대와 터키군 제1여단,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 예하 부대 병력들이 쫓고 쫓기며 넘던 길이다. 그 고갯길을 따라 심곡동 서구보건소 옆을 지나면 과거 서곶면의 중심지였던 연희동이 나온다.

옛 서곶길은 원래 농협 창고 옆 언덕의 연희감리교회에서 좌회전하며 경사진 길을 내려가 서곶초등학교 옆을 지나 과거 연희진이 자리를 잡고 있던 우성아파트 인근 계명공원에서 숨을 돌리고, 다시 길고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 빈정내사거리에 직선으로 닿았다. 그런데 이곳 토박이들은 지금도 연희진에서 그 교회 언덕을 지나 용두포대로 연결되던 구간을 ‘군인길’이라고 부른다. 과거 연희진과 기연해방영군사들이 열병과 분열 등 제식훈련을 하고 근무교대를 위하여 행군을 하며 그 길을 지나던 모습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차량통행 위주의 큰 도로가 동쪽 산기슭을 둥글게 활처럼 깎으며 새롭게 개설되어 서곶길은 오늘날 인천연세병원 모퉁이를 지나 ‘빈정내사거리’와 만나도록 변경되었다. 1925년의 일이다. 그 해에 인천과 김포 양촌간의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1929년에 설립된 서곶초등학교 인근에는 서곶면 사무소와 주재소, 우체국, 병의원, 의용소방대, 금융조합 같은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서곶면의 중심지였다. 이곳은 1914년 면사무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조선시대 관방시설이었던 ‘연희진’이 있었다.

10. 화폐

화폐(貨幣, Currency)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어 지불 기능을 가진 교환 수단을 말한다. 물물교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대신에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으로, 이는 사실 그 물품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다. 부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이자 그 가치를 비축할 수 있는 수단이다.

경제학에서 화폐라는 단어는 상당한 논란거리인데 과연 무엇을 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현금만 화폐로 볼 것인지 예금까지 화폐로 볼것인지, 예금을 화폐로 본다면 요구불 예금만 화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기예금도 화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표는 화폐인가 아닌가, 신용카드 역시 화폐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과거 서양에서는 금을 화폐로 쓰는 금본위제도와 금과 은을 함께 쓰는 복본위제도와 함께 소금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서울 마포의 염리동과 강서구 염창동 사이에 공통점은 소금salt이다. 이들은 모두 소금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조금 생뚱맞은 것 같지만, 샐러리맨이라는 어휘도 소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로마시대에 나라에서 군사들에게 돈이나 곡물 대신 소금을 봉급으로 지급한데서 유래된 비영여권 조어가 바로 샐러리맨이다. 일본식 영어다.

소금은 조선시대에도 전매품으로 지정하여 취급할 정도로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사실 수렵, 채집생활을 하던 원시시대에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포획된 동물의 고기에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던 시대에는 따로 소금을 섭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수렵생활을 청산하고 이른바 정주형 농경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 물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관리들의 녹봉을 주로 양곡으로 지급했다.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하도록 통일을 한 것이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데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쌀에 화폐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선헤청’은 1608년 시행한 대동법을 책임지는 기관이었다. 선헤청은 오늘날 남매문시장에 있었는데, 북쪽은 북창동, 남쪽은 남창동으로 불렸다. 선헤청의 가장 큰 창고는 종로구 평창동에 있었으며, 용산에는 선헤청의 별청인 ‘만리창’이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근대적 조폐기능이 정착되고 시장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인천의 서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곡(쌀)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다. ‘물물교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대신에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으로 쌀이 통용된 것이다. 쌀은 사실 그 물품의 실제 가치를 나타낸다. 부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이자 그 가치를 비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 당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비결은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수한 양곡을 되팔아 다시 이문을 남기는 것에 있었다.

사람들의 생존을 좌우하던 양곡, 그 중에서도 쌀의 역할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국가마저 세금을 쌀로 받은 것은 물론, 관료제를 지탱하는 대동법을 시행하는 선헤청을 두고 있었으니 양곡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전통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기와집이면 다 사창인가’라는 옛말이 있다. 사창(社倉)은 조선시대 환곡(還穀)을 쌓아두던 각 고을의 곳집(창고)인데, 사전적으로 ‘겉모양이 홀륭하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다 홀륭하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 서구 원창동에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사창이 있었다. 전국의 사창 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왕실 소유의 세곡미(稅穀米) 창고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으뜸 원元자가 붙은 원창동(元倉洞)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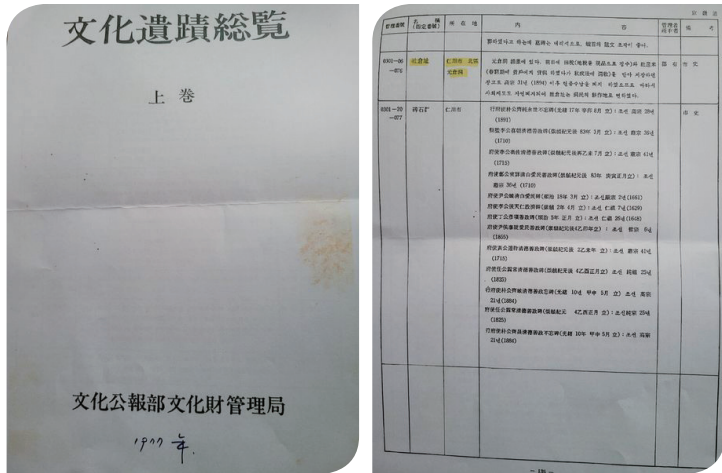
1977년 당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이 간행한 <문화유적총람>에 그 ‘사창지(社倉址)’가 자세히 나온다. 소재지는 ‘인천시 북구 원창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창동 포리(浦里)에 있다. 전일에 전세田稅(지세를 현품으로 징수)와 사환미社還米(춘궁기에 빈호(貧戶)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후에 환수)를 받아 저장하던 창고로 고종 31년(1894) 이후 현품수납을 폐지하였으므로 따라서 사회제도도 자연 폐지되어 사창지는 동민의 경작지로 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리자/소유자를 표시하는 항목에는 군유(群有)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원창동 일대를 관할하고 있던 부평군이 그 사창을 관리하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리라. 관리번호가 0301-06-076으로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사창리’라는 지명을 가진 곳은 이곳 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강원도 화천, 충청도 괴산과 음성, 태안, 전라도 고창, 무안, 장성, 경상도 창녕 등 수십 곳에 달한다. 서울에도 마포에 광흥창(廣興倉)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도봉구에는 창동(倉洞)도 있다.

그런데 왜 곡창지나 교통의 요충지도 아닌, 변두리 한적한 바닷가 마을인 원창동 포리에 대규모의 곡식창고가 위치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이 땅의 열악했던 도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 왕실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높은 산꼭대기에 600개 이상의 봉수대를 세웠다.

원창동 인근 가정동 축곶산에도 봉수대가 있었다.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고 밤에는 불빛을 이용하여 신호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는 인근의 봉수대에 차례대로 전달되어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 전달하였다.

외적이 침입할 경우, 전국의 관방시설에서 방어를 하고 봉수신호를 보냈다. 평상시는 1회, 적이 나타나면 2회, 적이 국경 가까이 오면 3회, 적이 쳐들어오면 4회, 그리고 적과 교전이 벌어지면 5회로 봉수신호를 보냈다.

조정에서는 봉수 신호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왕실을 보위하고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오직 방어에만 몰두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술전략개념은 눈을 찡고도 찾아볼 수 없

었다. 그랬다면 평소 나라의 도로를 넓혀 놓고 중앙에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그 도로를 통하여 기마병들이 앞장 서 달려가 외적을 물리쳤을 것이다.

인조는 이괄의 난을 피해 충청도 공주로 몽진을 한 후,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으로 또 다시 몽진을 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여의치 않아 후퇴한 것이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부터 친 것이다.

따라서 한양 도성으로 통하는 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도로망을 갖출 이유가 없었다. 어떤 용기 있는 신하가 부국강병과 백성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를 확충하자고 주장하면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할 판이었다. 길이 넓으면 적의 접근만 용이하게 해서 왕실 스스로 도망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길을 넓히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개념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연유로 나라의 도로 사정은 생각보다도 훨씬 열악했다. 국도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부분의 도로가 소달구지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대규모 수송체계는 강과 바다를 통한 수운(水運)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천 앞 바다는 세곡선들이 빈번히 오가던 항로가 되었다.

삼남지방의 곡창에서 화폐 대신 현품으로 거두어드린 세곡미를 실은 세곡선들은 연안을 따라 이동하며 육지의 지형 또는 물표와의 관계위치로 배의 위치나 방위, 거리를 구하는 지문항해(地文航海)를 통하여 강화수로를 통과, 한강을 거슬러 올라 마포나루에 짐을 풀었다. 이 루트가 플랜 A다. 하역된 세곡미는 곧바로 인근의 광흥창(창전동)으로 입고되었다. 그런데 강화 손돌목은 물살이 거세어 술한 세곡선이 그곳에서 난파를 당했다.

대안으로 세곡선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원창동의 창고에 일단 짐을 부려 놓고 다시 우마차를 이용하여 오늘날 6번 국도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개발되었다. 플랜 B다. 그때 돌곶이(석곶)마을에 인근 주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큰 공사판이 벌어져 '새고개(새오개)'가 뚫렸다. 그곳이 오늘날 신현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루트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원적산과 철마산 사이의 '아나지고개'였다. 원창동 포리의 갯말에 있던 그 사창지에는 현재 SK에너지 정유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곳에서 아나지고개 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킬로미터 내외다. 포리에서 세곡을 실은 우마차들은 돌곶이(신현동) 해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가정동에서 6번 도로를 만나 아나지고개를 넘었을 것이다.

그 고개는 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차츰 잘려나가다가 7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의 서구와 부평구, 계양구를 가르는 그 고개는 바닷가가 지척이라 해발고도에 비해 아주 험준해서 인근의 '징매이고개'와 함께 사나운 산적들과 화적떼들이 자주 출몰했던 곳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적이나 산적, 화적떼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름길, 외통수인 곳이다. 물산이 풍부한 대저 인근이면서도 치안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관군을 동원하여 토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설령 토벌을 당하더라도 두목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 어렵지 않게 도피할 수 있도록 능선으로 연결된 곳이면 더욱 좋다. 아무리 산세가 험해도 육지의 섬처럼 고립될 수 있는 곳은 피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나지고개'는 산적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사업장(?)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무렵, 원창동의 사창社倉시설들을

관장하고 있던 부평부사 박희방은 부임하자마자 세곡미의 손실을 막고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아나지고개에서 준동하는 산적들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다. 이 지역의 산악 능선을 중심으로 지형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답사를 한 끝에 세곡미 행렬이 아나지고개를 넘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군사를 아나지고개와 계양산 양쪽으로 분산, 매복시켰다. 아나지고개에서 관군에 패주하면서 한남정맥 산줄기를 타고 도망치던 산적들은 결국 계양산 피고개 능선에서 매복하고 있던 관군의 주력부대에 의하여 일망타진되었다. 그 와중에 용케 달아났던 산적 잔당들도 몇 년 후 조정이 토포사로 임명한 박희방의 후임 조병하 부평부사에 의해 한들마을(백석동)에서 토벌되었다. 1887년의 일이다.

양곡(쌀)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던 당시의 기준으로 계양산 징매이고개나 아나지고개에서 세곡미 수송차를 털어 달아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현금수송차량을 습격하는 것이나 진배없었으므로, 군왕과 국가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I

검단 유일의 시장 검단재래시장

- 1 검단재래시장의 위치와 형태
- 2 조선시대 역원과 검단재래시장
- 3 검단 공장의 난립과 재래시장의 형성
- 4 검단 주민과 검단재래시장
- 5 검단 재래시장의 소멸과 변화
- 6 1999년 검단종합시장 화재 사건

김영준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II. 검단 유일의 시장 검단재래시장

1. 검단재래시장의 위치와 형태

검단 재래시장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검단출장소 앞에 있었던 검단의 시장이다. ‘검단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은 검단출장소 앞에 있던 시장의 정식명칭은 아니고 검단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 중 하나였다. 다른 이름으로는 ‘검단시장’, ‘검단종합시장’이었지만 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이 ‘검단재래시장’이었으므로 여기서는 ‘검단재래시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검단재래시장은 지금의 검단 출장소 앞에 있던 작은 시장으로 현재는 클라우스빌이 있는 곳 일대이다. 또한 인구 2만 명 정도 되던 1991년 당시 김포군 검단면 면사무소 소재지(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사거리 일대)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시장이다.

1) 위치

검단 재래시장은 앞서 잠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검단면사무소 즉 지금의 검단출장소 앞에 있었다. 그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검단재래시장의 위치(빨간색 선)



〈그림 2〉 현 검단재래시장 지역(지도출처: 네이버지도)

〈그림 1〉지도는 1996년 1월에 발행된 김포군지번안내도이다. 발행은 1996년에 한 것이지만 편집을 1991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단재래시장이 있던 시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가운데 사거리가 지금의 검단 사거리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민 증언에 따른 검단재래시장의 위치이다. 그리고 검단 재래시장에서 오른쪽 위에 지금의 검단 출장소가 있다. 이를 현재 위성사진으로 표기해보면 오른쪽 〈그림 2〉와 같다.

위의 지도는 현재 검단출장소 일대의 위성사진이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앞 지도에서 표시한 검단재래시장이 있던 곳이다. 검단 재래시장이 있던 자리의 일부는 〈그림 3〉과 같은 클라우스빌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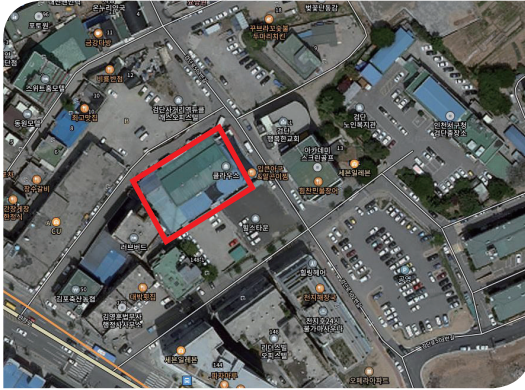


〈그림 3〉 검단재래시장에 세워진 클라우스빌

2) 형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검단 재래시장의 구성은 크게 슈퍼마켓 1개, 일반 가게 10개, 횃집 1개, 식당 1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조립식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카바를 씌우고 좌판의 형태로 장사를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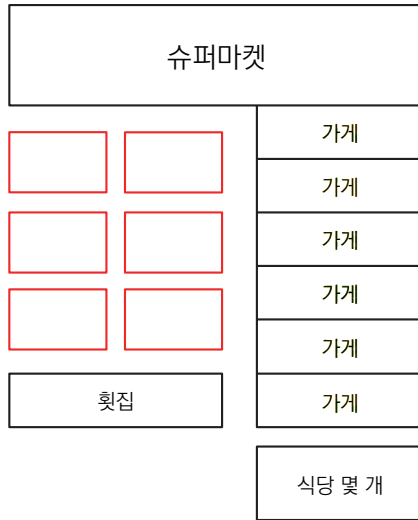
이러한 검단재래시장의 모습은 2008년 위성사진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08년의 검단재래시장(지도출처: 카카오맵)

위의 위성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검단재래시장이다. 이 위성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검단재래시장은 인천 서구청 검단출장소 앞에 있었으며 커다란 지붕을 씌운 공간에 여러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하고있다.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인천 남동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의 경우 몇 개의동에 가게가 있는데 모두 커다란 지붕을 씌운 건물안에 여러 가게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위성사진을 보면 2008년 당시 검단재래시장의 주변에는 검단출장소 앞의 주차장 외에도 주변에 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단재래시장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사진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검단재래시장의 점포는 아래와 같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림 5〉 검단재래시장 상가배치도

위의 〈그림 5〉은 검단사거리의 주민분께서 그려주신 것을 가지고 만든 검단재래시장 상가 배치도이다. 이 그림을 보면 1990년대 검단재래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검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로 빨간색의 경우는 천막을 쳐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사진도 없기 때문에 증언을 통해 검단재래시장의 모습을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 검단재래시장이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 뒤쪽으로 〈그림 6〉과 같은 상점이 2개가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바를 썬 천막 형태의 점포이기 때문에 검단재래시장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알기 쉽다. 하지만 위치상으로 〈그림 6〉과 상점들은 검단재래시장의 영역 밖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은 상점은 검단재래시장이 소멸한 이후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포의 형

태로 보았을 때 검단재래시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한 점포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7>은 후술하게될 김포북변오일장의 사진으로 여기에서는 큰 천막을 쳐 놓고 그 아래에 노점의 형태로 장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이 검단재래시장에 있었던 천막으로 이루어진 가게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서 지금은 사라진 검단재래시장에서 천막으로 이루어진 가게들의 모습을 유추하고자 한다.¹⁾



<그림 6> 천막형 점포



<그림 7> 김포북변오일장

2. 조선시대 역원과 검단재래시장

이러한 검단재래시장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검단 및 검단사거리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단이라는 명칭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해

1)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둔다.

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은 본래 김포에 속했던 지역으로 중종 25년(1530)에 발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포군 토산에 “황옥(黃玉), 현 서쪽 검단리(黔丹里) 애갈산(艾葛山)에서 난다.”라고 하여 처음에는 검단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정조 13년(1789)에 발행된 「호구총수」에는 검단면이라고 되어 있어 어느 시점에 검단리에서 검단면으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검단면의 관할구역으로 검단면, 마산면, 노장면이었다. 그리고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검단면, 마산면, 노장면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된 김포군에 편입시켰으며 이는 광복 이후 1995년 2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때 검단면은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사무소 소재지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그리고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됨에 따라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생기게 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²⁾



〈그림 8〉 1980년대 검단면사무소



〈그림 9〉 2023년 검단출장소

2)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 2014, 112쪽.



〈그림 10〉 1990년대 마전리 원현 전경



〈그림 11〉 1990년대 원현의 위치

마전리 원현은 지금의 검단사거리이다. 검단사거리는 〈그림 10〉³⁾과 〈그림 11〉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까지는 원현으로 불리었는데 원현이란 역원(驛院)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⁵⁾ 이는 조선시대 김포의 역원인 광인원(廣因院) 혹은 과일원(過逸院)이라는 역원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⁶⁾ 이는 전근대시기부터 이미 지금의 검단사거리 일대가 검단지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나 역원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주변으로 예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驛院)이란 역(驛)과 원(院)을 합친 말로서 역(驛)은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던 곳’이고 원(院)은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역민(驛民)을 편성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을 역촌(驛村)이라고 하

3) 김포군지(1993), 김포군, 390쪽

4)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5)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 2014, 119~120쪽.

6)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 김포현 역원. “광인원(廣因院)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 「김포군읍지」(1899) 지도

였다.⁷⁾ 그래서 지금의 원현 즉 지금의 검단사거리가 검단의 중심지역이 된 것도 예부터 역원을 중심으로 역촌(驛村)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⁸⁾

조선시대에는 주요 교통로를 중심으로 장시(場市)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단사거리에도 일찍부터 역원을 중심으로 장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에 의하면 “봉화촌의 북쪽 끝은 검단개라 불리는데 예전 제방이 없던 시절 김포·강화 간의 나루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선하러 가던 길손들이 이 마을을 거쳐 김포읍 방면으로 통행했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다.⁹⁾ 이를 통해 검단사거리 일대가 예부터 주요 교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지역에 역원을 중심으로 장시(場市)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검단 재래시장이 검단사거리 일대에 만들어 진 것도 역원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검단사거리가 있는 원현이 검단면의 중심지가 되고 검단면사무소가 있었던 것도 역원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면사무소 소재지인 가유리에도 승보원(承寶院) 혹은 산리원(酸梨院)이라고 불리는 역원이 있었다고 하며,¹⁰⁾

7) 황대일, 「조선시대 울산군 부평역촌의 구성과 배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3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21쪽.

8) 근대에 한국에서도 충청남도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공주시가 중심지였지만 철도가 대전을 지나감에 따라 대전으로 중심지가 바뀐 사례가 있다. 이리케 교통로상에 위치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9)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 2014, 119쪽.

10) 봉원학, ‘고려시대 역원이 있었고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 다시 찾은 우리동네 우리마을[128]- 고삼면 가유리 ①’, 「자치안성신문」, 2011-06-04(<http://anseongnews.com/front/news/view.do?articleId=24684>)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의 경우도 면사무소가 있기 전에는 유둔원이라는 역원이 존재했다고 한다.¹¹⁾ 이렇게 조선시대 역원이 있던 곳에 나중에 면사무소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역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읍 또는 면의 치소가 되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살면서 장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검단사거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과일원(『김포군읍지』 1899)

정리하자면 검단사거리는 예전부터 김포로 가는 교통로에 위치했다. 그래서 검단사거리에 해당되는 마전리 원현 지역에는 조선시대 광인원(廣因院) 혹은 과일원(過逸院)이라는 역원이 존재했고 역원을 중심으로 역촌이 생겼으며 소규모의 장시(場市)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교통의 발달 및 각종 변화로 점차 쇠퇴하여 사라진다. 이후 역원이 쇠퇴하면서 사라지고 한동안 시장이 없었다가 1991년 무렵에 지금의 검단 재래시장이 생겨난 것으로 볼

11) 송호철, '전라남도 마을 산책고흥 동강면 구 면사무소 석조 건물'(<https://ncms.nculture.org/story-of-our-hometown/story/6964>)

수 있다. 지금은 검단재래시장조차 사라지고 검단중앙상점가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재래시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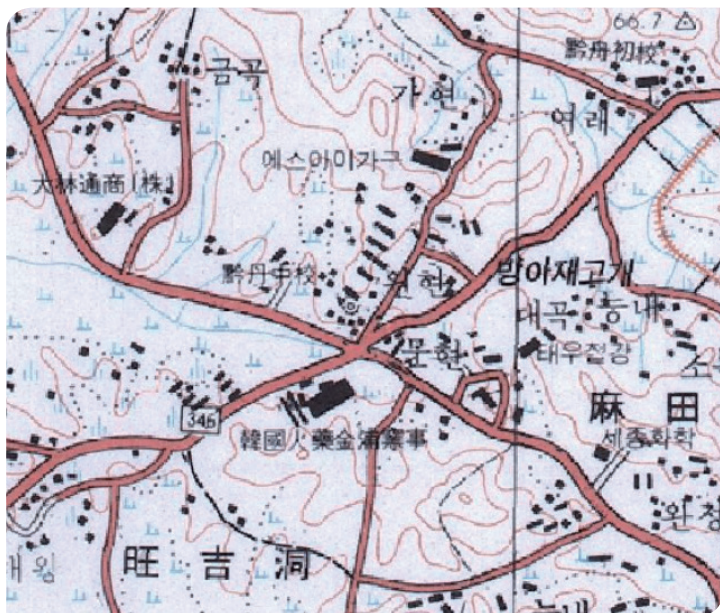
〈그림 13〉 검단중앙상점가

3. 검단 공장의 난립과 재래시장의 형성

재래시장이 형성되었을 시기는 검단이 아직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기 이전인 1991년이다. 이 시기에 검단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었으며 검단재래시장이 있는 검단사거리는 검단면의 중심지역이었다. 그래서 검단사거리에는 검단면사무소가 있었으며 검단면사무소는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면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검단면사무소 앞에 검단재래시장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지역이 검단면의 중심지였던 점도 있지만 검단면에 소규모 공장들이 생겨나면서이기도 했다. 이렇게 검단에 소규모 공장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5.16 군사 정변과 관련이 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근대화 및 산업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경기도 김포군에도 다수의 기업체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1977년도에는 김포군 김포면에는 14개,

제양면에는 6개, 고촌면에는 5개, 양촌면에는 4개, 월곶면에는 3개 노성면과 검단면에는 각 1개씩의 기업체가 있었다고 한다.¹²⁾ 하지만 검단재래시장이 있었을 당시에는 검단면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체가 존재했었다. 이를 지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1990년대 검단사거리 주변 지도(출처:국토지리정보원)

위의 지도를 통해 1990년대 검단사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대림통상, 에스아이가구, 태우집강, 세종화학, 명성공업, 한국화학김포요사, 원산화학, 신진보일러 등이 보인다. 여기서는 1991년 당시 검단의 기업 및 공장들을 살펴보고 이들과 검단 재래시

12) 「김포군지」 1977, 413쪽.

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만 위의 기업들을 전부 알아보는 것은 아니고 옛 신문에 나와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¹³⁾

① 김포요업¹⁴⁾

- 설립일 : 1975년 9월 5일
- 위치 : 검단면 왕길리 349
- 생산품 : 타일

옛 김포군에서 도자기·벽돌·기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요업은 1960년대에는 간단한 벽돌과 생활용기를 생산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개량된 최고급 벽돌 및 부록크, 타일 등을 김포요업과 한국청자공업주식회사 등에서 생산하였다.¹⁵⁾ 이러한 생산업체 중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에 있었던 것이 김포요업이었던 것이다.

김포요업에 대해 특이한 점으로는 타일쇼가 있다. 김포요업은 1977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문회관 화랑에서 타일제조공정, 타일제조공정 및 30여종에 달하는 고급타일과 시공된 모형을 전시하였다.¹⁶⁾ 1977년 신문기사를 보면 김포요업은 이 타일쇼를 계기로 고급자기타일을 생산하고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규격별 색깔별로 주문생산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김포요업은 스스로 생산한 자신들의 타일 생산 기술력을 홍보하고자 타일쇼를 개최했다는 것을

13) 韓國化學金浦窯事, 태우철강 등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나오지 않는다.

14) 「김포군지」 1977, 415쪽.

15) 「김포군지」 1977, 414쪽.

16) 「조선일보」 1977년 3월 3일: 「매일경제」 1977년 3월 9일

보여준다.

이러한 김포요업은 1980년 10월 28일에 같은 한국화학그룹 소속 회사인 태평양건설에서 인수 합병하였고, 1988년 말에는 대림통상으로 인수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29일에는 대림산업으로 매각되어 사라졌다,

② 대림통상 김포금구공장(金浦金具工場)¹⁷⁾

- 설립일 : 1980년 7월 18일
- 위치 : 인천시 서구 왕길동
- 생산품 : 수도꼭지, 샤워기

금구(金具)라는 것은 수도밸브(수도꼭지)의 옛날 표현으로 김포금구공장(金浦金具工場)은 '김포수도밸브공장'이라는 뜻이다. 대림통상이 김포군 검단면 즉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에 수도꼭지 공장을 짓게 된 것은 수도권에서 수도밸브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를 통한 급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림통상에서도 수도꼭지 사업 확장을 위해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 대지 1만8천평, 2천삼백평규모의 금구공장을 지었던 것이다.

③ 신성용접기 김포제2공장

- 설립일 : 1986년 11월 25일
- 위치 : 김포군 검단면
- 생산품 : 아크용접기

17) 「매일경제」 1980년 7월 18일

신성용접기는 용접기 전문 개발 업체로 저항용접 타이머, 연속저항 용접기 등을 개발한 업체이다. 1980년대 기계·자동차·전자공업 등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이 벌어짐에 따라 용접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서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신성용접기는 경기도 부평에 제1공장을 두고 1986년 11월 25일 김포군 검단면(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에 대지 2천평, 건평 1천평 규모의 아크 용접기 전문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¹⁸⁾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④ 흥진건설 김포공장

- 설립일 : 1983년 7월 11일
- 위치 : 김포군 검단면
- 생산품 : 조립식 건축자재

흥진건설은 2016년 6월 30일에 폐업한 조립식 건축자재 업체이다.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있으며 단열건축자재와 건축내장재를 생산하고 설계와 시공을 하는 중소기업이었다. 이러한 흥진 건설은 김포 검단면 대지 6천평, 건평 1천 5백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1983년 7월 11일에 가동하였다. 김포 검단 공장에서는 조립식 인슈 패널과 컬러 알루미늄 컬러커튼을 생산하였다. 2016년 6월 30일에 본사가 폐업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검단 공장도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기업들은 옛 신문에 나오는 것으로 앞의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김포군 검단면이었을 때 검단

18) 「매일경제」 1986년 11월 25일

의 인구는 2만 명 정도였고 대부분이 논밭이었다. 또한 공장도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단을 이루는 것처럼 집중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주요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산재하였다. 특히 준농림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검단면 지역의 공장에 대해 「동아일보」 1993년 2월 25일 기사에는 “검단면은 현재 공장 주택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면서 인구가 급증,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등 각종 도시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라고 하였고, 「경향신문」 1995년 1월 29일 기사에는 “인천시는 28일 현재 검단지역에 난립·운영되고 있는 무등록공장의 정비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3천6백억원을 들여 검단면오류리 일대 폐염전 부지 90만평에 제2의 인천지방공단을 조성기로 했다고 밝혔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1990년대 검단면에는 여러 공장들이 난립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공장의 등록기준이 건축면적 500㎡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때문에 각종 무등록 공장이 양성화되었다. 서구의 경우, 146개의 무등록 공장과 223개의 조건부 등록공장 등 약 400여개의 무등록 공장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무등록 공장들이고 1995년 검단이 김포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업종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공장이전이 지속되어 비공식적인 무등록 혹은 무허가 불법공장들이 증가하고 있었다.²⁰⁾

그런데 이렇게 검단에 공장들이 난립하게 된 데에는 수도권매립지

19) 한규창, 「도농복합도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4쪽.

20) 한규창, 「도농복합도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6쪽.

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원래 검단에 수도권매립지가 없었을 때는 검단 지역은 토지관리법상 성장억제권역이었다. 하지만 김포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로 바뀌면서 주민들은 항의를 했고 검단을 성장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져 검단은 성장관리권역이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창고형 공장들이 들어서며 검단에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1990년대 검단에는 각종 공장들이 난립하였고 특히 등록이 안된 무허가 불법공장의 증가로 인해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검단에 등록 및 무등록 공장들이 몰린 원인은 검단의 지리적 조건에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원래 검단은 김포군 검단면 시절에는 김포군 최고의 오지로 김포군 공무원들이 출장을 기피할 정도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검단은 재발견된다.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인천 및 서울 등의 대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검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서울과 인천의 소비자에게 도착되는 시간은 1~2시간 이내였다고 한다.²¹⁾ 이정도로 검단은 서울 및 인천의 대도시와 가까웠다,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시책으로 인하여 주변 대도시에서 무계획적으로 공장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다.²²⁾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검단에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농지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축산 및 양계를 하던 곳을 공장주들이 사기도 하고 임대를 받아 공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농지

21) 김창식, 「대도시 영향권 중첩 농촌지역의 도시화과정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1쪽.

22) 한규창, 「도농복합도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1쪽.

법이 생기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농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여
정식으로 공장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주변에서 합법 및 불법이든 공장이 몰려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서면 일
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표 1>과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²³⁾

<표 1> 검단지역의 인구변화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검단지역	8,568	10,425	17,820	55,784

<표 2> 검단지역의 인구 증가율

지역별 구분	연 평균 증가율(%)		
	1970년~1980년	1980년~1990년	1990년~2000년
검단 지역	1.98	5.51	12.09

위의 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70년~1980년보다 1980년
~1990년, 1990년~2000년의 검단의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1990년에는 검단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난립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검단에서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검단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검단
에 시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증언에도 검단재래시장의
형성에 검단에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23) 김창식, 「대도시 영향권 중첩 농촌지역의 도시화과정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2~43쪽.

있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의 검단출장소(옛 검단면사무소) 앞에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그 앞에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검단 재래시장은 앞서 언급한 여러 기업 및 공장들 중에서 김포요업과 대림통상 김포금구공장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즉 김포요업공장과 김포금구공장에 식재료들을 납품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활동이었던 것이다. 검단 재래시장은 인근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였지만 이들 기업에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노동자들이 검단재래시장으로 와서 밥을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중이 컸다고 한다.

특히 김포요업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들어선 공장이었기 때문에 새마을 공장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리고 검단에서 큰 공장에 속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많이 취업이 되었으며 검단에서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경비로 취직되기도 했다고 한다.

검단재래시장은 이렇게 검단 주민들 뿐만 아니라 검단의 공장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3년 무렵에 잠깐이지만 호황기라고 할만 시기를 누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들 공장 및 업체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공장들과의 깊은 관계는 후술하게 될 검단 재래시장의 쇠퇴 및 소멸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4. 검단 주민과 검단재래시장

이렇게 형성된 검단재래시장의 규모는 인천 서구의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가좌시장’, ‘강남시장’들 보다 작은 축에 속하고 그 형태도 앞서 본 것처럼 조립식 건축물과 좌판에 천막을 씌운 좌판형 상점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검단 유일의 시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왜냐하면 검단재래시장은 인근 주민들이 시내까지 가거나 김포에 있는 시장까지 가서 구입하기 힘든 것들과 채소들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로 여기서는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들을 주로 판매하거나 납품을 하는 곳이었다.

사실 검단면을 제외한 김포군의 다른 면들은 시장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었다. 1977년 및 1993년에 발간된 「김포군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장들이 보인다.²⁴⁾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포면 풍무리 신장기 시장

- 1874년에 김포군수이중윤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되었음.

② 김포면 감정리 나진시장

- 1900년에 군수 장윤희에 개설하였으나 곧 폐지됨.

③ 김포면 장기리 장기리 시장

- 개설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개설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됨

24) 「김포군지」 1993, 김포군, 955~956쪽.

④ 김포읍 북변리 김포시장

- 원래 1902년 군수 박주동이 김포읍 서변리에 설립하였으나 반년만에 폐지되고 상인들의 청원에 의해 1911년에 다시 개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짐.
- 우시장이 있었으나 황어장터의 우시장이 번창하여 폐지됨.

⑤ 하성면 마곡리 하성시장

- 1922년 1월 27일 개설되었으며 동성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이를 뽕뽕이라고 불렀으므로 ‘뽕뽕시장’이라고 부름.
- 나중에 마곡시장이라고 부름.
- 김포군의 최동북단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인접면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여 번성하지 못함.
- 1993년 당시에 4일 및 9일, 5일장이 개장되고 있었음.

⑥ 김포면 차정리 나진교 시장

- 1900년대에 김포군수 장윤희가 만들었으나 나중에 없어짐.

⑦ 양촌면 약곡리 양곡시장

- 1927년 12월 15일에 설립되었음.
- 양곶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주민들이 이용함.
- 1970년까지 김포군에서 번성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김포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됨.

⑧ 월곶면 군하리 월곶시장

- 1927년 12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5일 및 10일에 개장됨.
- 월곶면 군하리에 있어서 군하시장이라고 불림.
- 김포군 최서북단에 있어서 통진 4개면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인근 강화군 강화봉 시장이 크고 물건이 다양하여 번창

하지 못함.

- 1993년 당시에는 폐쇄된 상태.

⑨ 통진면 서암리의 통진시장

- 1954년 6월 21일에 설립됨.
- 마송시장, 서암시장으로도 불리며 김포군에서 가장 늦게 개설됨.
- 1993년 당시에는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었음.

⑩ 대곶면 율생리 대곶시장

- 면사무소 소재지에 개설됨.
- 5일 및 10일 간격으로 시장이 열림.
- 대곶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양곡시장을 이용했으므로 1963년 이후 자연스럽게 폐쇄됨.

위의 시장들은 1993년에 발간된 「김포군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1977년에 발행된 「김포군지」에는 김포면 양기리 시장, 노성면의 태매시장 등이 있었었지만 1993년 무렵에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시장들을 보면 김포군 검단면에는 시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7년 혹은 1993년의 「김포군지」 어디에도 ‘검단 종합시장’ 혹은 ‘검단재래시장’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검단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것이 1995년이고 ‘검단재래시장’이 생긴 것이 1991년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1995년에 발간된 「김포군지」에는 검단재래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단재래시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검단면에 있었던 재래시장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검단면이 가지는 특징때문으로 생각된다. 인천광역시에 편입되기 이전 김포군 검단면은 김포지역 중 가장 외진 곳에 속했다고 한

다. 1960년대 검단면은 당시에 ‘김포의 전라도’라고 불릴 정도로 김포군 최고의 오지였으며 김포군청의 직원들이 출장을 서로 안 나오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출장을 나오면 이장이 고등어나 콩치통조림을 가게에서 사고 막걸리와 국수를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포군 검단면을 ‘국수면 국수리’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김포읍내나 군청을 갈때도 모두 걸어서 가야할 정도로 교통편이 열악했다고 한다.²⁵⁾ 이렇기 때문에 「김포군지」를 만들 때 검단재래시장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김포에서 오지로 여겨졌던 검단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 파는 가게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단재래시장에는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채소가게, 정육점, 닭집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검단의 채소 및 물품 등은 검단 및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 등 멀리서 새벽부터 물건을 가져와 팔았다고 한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검단재래시장의 매출은 주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주변 공장과의 거래 매출이 컸다고 한다.²⁶⁾ 또한 검단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은 검단 주민들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외지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검단재래시장은 검단면에서 유일한 시장이기 때문에 검단면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검단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검단재래시장의 물건가격이 다른 시장에 비해 비싸다고 하였고 때문이다. 이는 검단재래시장의주로 주변 공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았

25) 「검단농협 50년사」, 검단농업협동조합, 2015, 167~168쪽

26) 검단재래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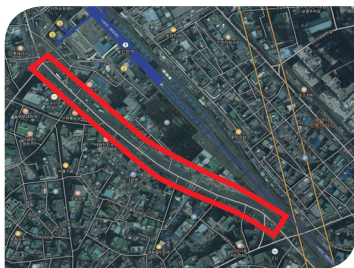
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즉 주변 공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에 주로 신경을 쓰다보니 상대적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검단재래시장의 물건이 비쌌기 때문에 검단면의 사람들도 주변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가까운 김포시장(김포북변5일장)과 인천 동구에 있는 송림시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수문통 갯골을 따라 동구 배다리 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므로 서구에서 배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동구의 시장들을 서구 주민들도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단은 원래 김포에 속했기 때문에 김포의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중에 인천으로 편입된 후에 17번 버스²⁷⁾가 검단에서 송림시장까지 갔기 때문에 검단주민들은 송현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아니라 송림시장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또한 검단 주민들은 물건을 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팔러 지금의 배다리 및 참외전의 시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검단 주민들은 주로 야채, 옥수수, 과일을 팔러갔는데, 과일은 호두와 같은 것을 참외전 거리에 내놓아 팔았다고 한다.



〈그림 15〉 참외전거리(2017년)



〈그림 16〉 참외전거리의 위치(출처:네이버지도)

27) 17번은 폐선되었고 지금은 17-1번이 대신하고 있다.

사실 검단권역이 인천의 영향권 내에 들어온 것은 50년대 후반에 개통된 교량인 ‘인천교’ 때문이다. 서구 가좌동과 동구 송림동을 연결하는 그 교량이 생기면서 서구도 인천의 일부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교량 덕분에 서구의 학생들은 인천시내의 중고등학교에 통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구 주민들도 인천시내의 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구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들도 인천 시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인천교 개통 직후인 60년대 초반에는 인천의 시내버스 노선이 서구 백석동까지만 운행했으나 당시 김포군 검단면 주민들의 탄원을 인천시에서 받아들여 60년대 중반부터 ‘소신여객’ 시내버스가 검단사거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내버스는 노선 번호 없이 행선지만 버스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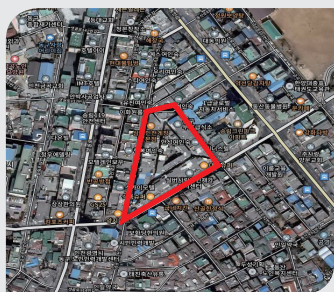
※ 검단 주민들이 이용한 타 지역 시장들

① 송림시장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1958년 공설시장으로 시작한 시장이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동구 만석동으로 진입한 미군들이 동구 서림초등학교 운동장에 주둔하면서 이 일대에 양공주촌이 형성되었고 나중에 이곳에 송림 시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곳도 다른 시장들의 초창기때처럼 좌판 노점 형태로 장사를 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름집, 쌀집, 채소가게, 한복집, 양장집 등이 있었으며 인근에 도살장이 있어서 소 및 돼지의 내장이나 부속물을 이용한 해장국집, 내장탕집, 순대국집 등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시장 전체 가게의 70%정도가 옷가게였다고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는 번성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

새로 형성된 주안주택단지로 인구가 이주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송림시장이 쇠퇴하게 된 주요 원인은 주민이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변에 동부시장, 송의시장 등이 생기면서부터였다고 한다. 특히 이들 시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물건을 싸게 구



〈그림 17〉 2008년도의 인천송림시장
(출처: 카카오맵)

입할 수 있었으므로 송림시장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시장으로써의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근린상가 수준으로 운영되는 점포 몇 개가 있을 뿐이다.²⁸⁾



〈그림 18〉 (구)송림시장의 현재모습



〈그림 19〉 (구)송림시장의 현재모습



〈그림 20〉 (구)송림시장의 현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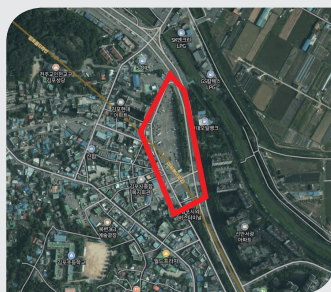


〈그림 21〉 (구)송림시장의 현재모습

28) 「인천의 길과 시장」,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6, 78쪽.

② 김포북변5일장

김포읍 북변리에 있는 5일장으로 김포시장으로도 불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는 1902년 군수 박주동이 김포읍 서변리에 설립하였으나 반년만에 폐지되고 상인들의 청원에 의해 1911



〈그림 22〉 김포북변5일장이 벌어지는 김포북변공영주차장(출처:네이버지도)

년에 다시 개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러한 북변5일장이 벌어지는 장소는 김포북변 환승센터 앞에 있는 북변공영주차장이며 매달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에 열린다.



〈그림 23〉 김포북변5일장 장소



〈그림 24〉 김포북변5일장 모습



〈그림 25〉 김포북변5일장 모습



〈그림 26〉 김포북변5일장 모습

5. 검단 재래시장의 소멸과 변화

검단재래시장은 1991년에 만들어진 이후 1993~1994년도에는 호황이라고 할만한 시기를 지내게 된다. 그러나 1998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당시 수많은 기업을 도산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었으며, 검단재래시장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검단의 공장들도 이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이들 공장들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검단재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결국 검단재래시장도 불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시장은 쇠퇴기를 맞이하여 소멸하게 된다. 다만 소멸 과정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서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성지도로 2013년까지 검단재래시장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증언에도 검단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2023년 기준으로 약 5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성지도 상으로는 대략 2014년경 이르면 검단재래시장은 검단에서 사라지고 클라우스빌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2013년 검단출장소 일대
(출처:카카오맵)



〈그림 28〉 2015년 검단출장소 일대
(출처:카카오맵)

위의 <그림 27>과 <그림 28>은 카카오맵의 스카이뷰 즉 위성지도이다. 이 지도들을 보면 빨간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의 빨간선은 검단재래시장이지만 <그림 28>의 빨간선은 클라우스빌 2채이다. 이를 통해 대략 2014년에 기존의 검단재래시장이 철거되고 새롭게 클라우스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검단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대략 2014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검단재래시장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주변 시장에 비해 비싼 물건가격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서 싼 가격에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검단재래시장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는 크게 검단농협 하나로마트와 검단중앙상점가이다. 이 둘은 검단재래시장이 있던 당시에도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검단농협 하나로마트는 1997년에 만들어졌고 검단중앙상점가는 원래 있던 상점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단 농협 하나로마트

1968년 10월 검단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검단 농협은 지금의 검단 농협 본점 자리에 있는 백 몇 십평 정도되는 양곡 창고 3동을 개축하여 1997년 12월 6일에 250평 크기의 하나로마트를 개점하였다. 이 당시 하나로마트 건물 공사를 끝내고 오픈하자마자 IMF 외환위기가 왔다. 그래서 만약 외환위기가 온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그 전보다 3~4배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난 것을 「검단농협 50년사」에서는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이후 검단 농협 하나로 마트는 개점한지 1

년 후에 매출이 2.5배가 되었으며 조합원 및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받아 성공사례로 평가받았다고 한다.²⁹⁾

그러나 처음에 하나로 마트는 작았고 연쇄점 개념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즉 고기도 팔고 식료품도 파는 연쇄점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많은 손님을 흡수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커지면서 주변 주민들을 손님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검단 농협 하나로마트의 위치(출처: 네이버 지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검단 농협 하나로마트가 만들어지면서 검단재래시장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단재래시장에는 채소가게, 정육점, 닭집이 있었고 주민들은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하는데, 검단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것들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검단재래시장의 대체재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9) 검단 농협 하나로 마트에 대한 내용은 「검단농협 50년사」, 검단농협합동조합, 2015, 247~248쪽'을 참고하였다.



〈그림 30〉 지금의 검단 농협



〈그림 31〉 지금의 검단농협(하나로마트)

② 검단중앙상점가

검단 중앙상점가가 위치한 이곳은 예전에는 상가 13개가 있던 곳으로 규모로 보면 시장이라고 부르기 힘든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단사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생기고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상가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70~80여개의 점포가 등록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인천에서 1기 ‘골목형 시장상점가’에 지정됨에 따라 서구청의 지원 속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현재 검단사거리일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가라고 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검단중앙상점가에 5일장을 유치하려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림 32〉 검단중앙상점가(빨간색) 지도출처: 네이버지도

※ ‘골목형상점가’란

2020년 8월 개정되어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즉 기초지방단체의 지원아래에 소상공인밀집지역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검단중앙상점가의 모습〉



〈그림 33〉 검단중앙상점가



〈그림 34〉 검단중앙상점가

〈검단중앙상점가의 상점들〉



〈그림 35〉
검단중앙상점가
상가배치도

6. 1999년 검단종합시장 화재 사건

검단재래시장은 주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소개된 적이 없어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그다지 큰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딱 한번 신문 즉 「인천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재 사건 때문이다.



〈그림 36〉 검단재래시장 화재사건 기사

(출처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92>)

1999년에 벌어진 화재사건인데, 위의 기사에서 언급하는 ‘검단시장’, ‘검단종합시장’이 바로 ‘검단재래시장’이다. 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3월 7일 새벽 1시 48분에 검단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으며 40분만에 진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행인이 버린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방차 20대와 소방대원 60여명이 출동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액은 경찰 추산 3천7백만원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주민들은 그냥 일반적인 화재사건의 하나로 기억할 뿐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 이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화재가 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할 만한 이야깃거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재사건을 검단재래시장의 몰락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839곳 중 679곳이 불에 탔고, 2017년 1월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에서는 점포 120개 중 116개가 피해를 입었다. 2017년 3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수산시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좌판 220여개와 점포 20여곳이 불에 탔다고 한다. 이때 소래포구 수산시장에서 입은 피해는 추산 6억 5천만원이었다고 한다.³⁰⁾ 또한 2020년 기준으로 5년간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237건의 화재로 53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많은 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³¹⁾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나는 화재는 한순간에 시장 상인들의 모든 생업적 기반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악화시켜서 지방정부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주변상권 소멸로 서민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³²⁾

30) 소래포구 수산시장의 화재에 관한 내용은 ‘채진,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20, 91쪽.’을 참조했다.

31) 채진,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20, 80~81쪽.

32) 채진,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20, 81쪽.

앞서 검단 재래시장이 슈퍼마켓 1개, 일반 가게 10개, 횡집 1개, 식당 1개로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점포 7개와 좌판 6개가 불탔다는 것은 상당한 피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영세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배선이 무질서하게 연결되어 있었을 수 있다.³³⁾ 더군다나 검단재래시장은 이미 IMF외환위기로 인해 주변 공장들이 몰락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의 피해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매우 더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화재가 검단재래시장을 몰락하게 만든 직접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림 27>과 <그림 2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검단 재래시장은 2013년까지 존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9년의 화재가 검단재래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맞지만 재래시장을 사라지게 만든 결정타 역할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그만큼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체할 다른 상가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앞서 언급한 검단 농협 하나로마트와 검단중앙상점가로 인해 찾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검단재래시장의 물건은 다른 지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다고 한다. 즉 시장의 화재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 하나로마트 등에 밀려서 자연스럽게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

33) 채진,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20, 81쪽.



서구 최초의 시장 거북시장

- 1 거북시장에 대한 소개
- 2 거북시장 이전의 석남동
- 3 석남동 일대의 공업지대화와 인구 변동
- 4 거북시장 형성과 변화
- 5 거북시장의 가게
- 6 주요 사업

추교찬 (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Ⅲ. 서구 최초의 시장 거북시장

1. 거북시장에 대한 소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08에는 거북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서구 최초의 인정 시장이다. 이 시장은 강남시장, 가좌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보다 오래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서구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장이었다.

그러나 거북시장 외에도 신거북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두 시장은 서로의 구역이 일부 겹치는 구역도 존재하면서도 별개의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시장이 한 곳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두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거북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³⁴⁾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지금은 많은 점포들이 신거북시장에 속하며 상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옛 거북시장은 한창 번성할 때는 점포 50개와 노점 40여개가 있어 길가가 매우 번잡했다고 한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 몰락하여 대부분의 가게는 문들 닫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구 거북시장은 가게도 얼마 안 되어 상인회가 조직되지 못하였고 많이 쇠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몇 가게들은 계속 운영 중으로, 이중 거북시장 초입 영성상회는 닭강정 맛집으로 알려졌다.

34) 「인천의 길과 시장」,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6, 157쪽.

거북시장은 1980년경에 설립되어 과거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 중 하나였지만, 1980~86년경부터 시장내의 세입자, 상인들이 비용으로 인해 노점으로 나가 노점상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즉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노점과 상가점포의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도가 넓어 버스나 대중교통 자가용으로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 전통시장라고 할 수 있다.³⁵⁾

저녁시간대에도 쇼핑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고객들은 주로 전통시장 내 노점과 소매점 등을 이용하고 있다. 노점은 건어물, 생선, 분식점, 채소, 약세사리, 잡화, 양말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 내 매장은 병원, 약국, 신발, 의류, 잡화, 건어물, 생선,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³⁶⁾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전통시장 안의 노점을 이용하며 할인마트,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 고객도 많다. 또한 상인들의 배달, 은행업무도 많다. 상가의 형태는 도로변을 따라 되어 있으며 노점의 경우 상가와 마찬가지로 상가의 앞에 도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³⁷⁾

그러나 기존의 주차시설이 주변이 재개발지역 등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정부에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장 건립, 온누리 상품권, 상인들을 위한 마케팅 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

35)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60쪽.

36)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60쪽.

37)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60쪽.

는 실정이다.³⁸⁾

사실 거북시장의 경우 시장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상권 조성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주변지역의 노후화 등과 맞물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북시장의 상권을 살펴보면, 상권의 규모가 거북시장사 거리를 중심으로 면적이 121,043㎡, 반경으로는 278.75m 정도이고 이 면적은 인천시 내에 있는 21개의 상권중 12권에 속한다. 이러한 거북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권의 구성으로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종으로서 의복의류, 종합소매업, 가정, 주방, 인테리어 업종이 많았고, 서비스업종에는 병원, 미용, 건강, 부동산 중개업종이 많았다. 그리고 음식 및 숙박업종에는 한식, 유흥주점, 분식 업종이 많다.³⁹⁾

다음으로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유동 인구 규모는 평균 557명인데 주중에 유동인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거북시장에서 거북시장으로 접근하는 주 도로 양편에 있는 노점상들이 기존 시장내 입점 상인들과 중복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노점상과 기존 입점상인들과 갈등 문제는 많이 정리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⁰⁾

다만 이러한 상권 및 유동인구에 대한 것은 신거북시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구 거북시장은 사실상 4개의 가게만 남

38)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55~260쪽.

39)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v인천학연구, 18, 2013, 261쪽.

40)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61쪽.

겨놓고 거의 죽은 상태이며 그나마 조사자가 갔을 때는 2개의 가게만 장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상권, 유동인구에 대한 이야기는 거북시장으로 불리던 구 거북시장이 아닌 신거북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하면 거북시장 사거리의 평균임대 시세는 33.058㎡를 기준으로 활성화지역의 경우 지하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이고, 1층의 경우는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3,000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이라고 한다. 비활성화 지역의 경우는 지하가 보증금 1,2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고 1층이 보증금 2,400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1,6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라고 한다.⁴¹⁾

2. 거북시장 이전의 석남동

이렇게 복잡한 신거북시장과 거북시장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거북시장이 생기기 이전의 인천 서구 석남동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인천 서구는 고구려 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과 검포현(黔浦縣)의 일부였다. 즉 주부토군은 부평, 검포현은 김포를 의미한다. 서구 지역을 남북으로 나눌 경우 북쪽 지역은 검포현 소속, 남쪽 지역은 주부토군에 속하였던 것이다. 이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발음보다는 의미가 통하도록 전국 지명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의 삼국시대

41)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61쪽.

지명인 미추홀(彌鄒忽) 또는 매소홀(買召忽)은 소성(邵城)으로, 주부토는 장제(長堤郡), 검포는 김포(金浦縣)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를 통해 미추·매소의 의미가 늪(沼) 또는 물(水)과 관련된 의미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주부토는 긴 뚝 또는 긴 제방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시대부터 부평과 김포 지역에는 북쪽에 자리한 한강 강변 습지에 뚝을 쌓고 개간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부평수리조합이 설립된 것도 이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서곶의 북쪽지역이 황어현(黃魚縣)에 속했으며, 남쪽지역은 부평현(富平縣)에 속했다.

조선시대 지리지인「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에 현재의 서구지역에 해당하는 면(面)으로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이 기록되었을 뿐 마을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마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조사한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로, 이 책에는 부평 석곶면(石串面)에 봉현리(烽峴里)·가정리(佳亭里)·신현리(新峴里)·포촌리(浦村里)·번작리(番作里)·가좌리(加佐里)·울도(栗島)가 있으며, 군역의 의무를 지닌 호가 350호(1,015구)가 있다고 기록되었다. 현재 석남동이 이 시대에 번작리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모월곶면의 동리는 공촌리(公村里)·연희리(延希里)·고잔리(古棧里)·검암리(黔岩里)·시천리(始川里)·백석리(白石里)·청라도(靑蘿島)·난지도(蘭芝島)였다.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 한 일본제국주의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지방 지배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제물포 일대 각국 조계 지역은 인천부로 편제하였고, 전통시대 인천·부평·양천 지역 등을 합쳐 부천군을 설치하였다. 이때 부평군을 구성하던 15면은 5개면으로 축소되며, 석곶면은 모월곶면(毛月串面)과 통합되어 서곶면(西串面)으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 때 통상적으로 두 지

역 명칭에서 한 글자씩 조합하는 방식이 사용하였는데, 서곶면은 공통 글자인 ‘곶’을 남기고, 부평군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로 서(西)를 사용하여 서곶면이라는 현재 지명이 탄생하였다. 이때 조사된 석곶면과 모월곶면의 통계를 살펴보면 호수와 인구는 각각 323호·1,605명, 482호·2598명, 경지면적은 석곶면 밭 135.58반, 논 154.58반, 모월곶면 밭 88.72반, 논 188.08반이었고, 지세부담은 974.832원과 1,263.181원으로 모월곶면이 석곶면에 비해 좀더 마을 규모가 컸다. 특히 석곶면에는 일본인이 25명(13호)가 거주하였다.⁴²⁾

1930년대 후반 만주사변·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제국주의는 한반도를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 기지로 만들며, 인천과 경성의 영역을 확장하여 공업지대를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군 서곶면은 인천부에 편입되며 촌상장정(村上將町)으로 변경되었고, 광복 후 석남동으로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2) 「군면폐합 관계서류」(국가기록원, CJA0002549)

〈1946년 경 월미도에서 바라본 서곶면 일대〉



* 사진 속 방파제는 인천역과 월미도를 이어주던 도로이고, 우측 상단의 시설은 인천 만석포구 일대이다. 그 뒤로 원적산과 서구 일대가 보인다.

〈1946년 경 가좌동 인근에서 인천 만석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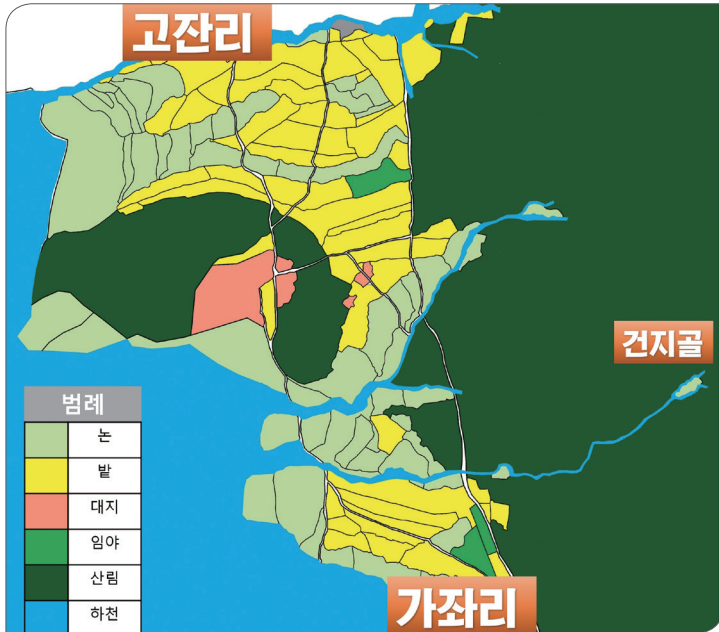


* 십정동에서 찍은 사진으로 가운데 부분이 주안염전이고, 우측 중간에 보이는 곳은 중구 만석동 공업지대이다. 사진 상 그 아래가 가좌동 보도진 나루 일대이다.

거북시장이 위치한 석남동은 조선시대 변작리 지역이었다. ‘변작리’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는 조선후기 서구의 해안에 출몰하는 이양선을 경계하기 위한 감시소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마을 이름은 18세기에 등장하고, 이양선이 본격적으로 목격되는 것은 19세기에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지명은 사람이 거주해야 비로소 명명되는데, 그때 주로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적 환경이나 조건의 묘사이다. 예를 들면 윗마을의 경우 한자로 상촌(上村) 또는 상골(上谷)로 표기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새마을로, 순 우리말인 ‘새’는 한자로 표기될 때 신(新)·새(鳥)·사이(間)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신촌(新村)·조촌(鳥村)·간촌(間村)이란 지명이 많고, 조선시대 인천부의 조동면(鳥洞面)도 이러한 경우로 보인다. 인천 중구 우각동은 당시 한자로 우각(牛角) 즉 소뿔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보니 후대 사람들은 우각을 소리보다는 의미에 주목하여 ‘소의 뿔처럼 휘어진 모양’에서 유래했다고 해석한다. 즉 지명표기에 쓰인 한자를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자의 의미가 아니라 순수하게 소리로 우곡을 발음하면 우굴(윗골·윗고을·윗마을)이고 한자로 표기하면 上谷·上村로, 앞에서 본 새마을과 같은 경우이다. 지명에서는 이와 같은 예가 무수히 많다.

이 같은 예를 참조하면 변작리는 아마도 ‘변(變)’에서 유래한 것 같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현재 시흥시 물왕저수지 북쪽 일대 농지에 위치한 미산동·매화동은 본래 조선시대 인천부 전반면(田反面) 지역이었다. 1721년 조선 정부는 시흥갯골에 바닷물이 드나들지 못하게 둑을 쌓고 농경지로 만들어, 이곳을 호조벌이라 부른다. 전반면이라는 명칭도 농경지로 변화한(田變)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한자화되며 변(變)이 반(反)으로 표기된 것이다. 즉 ‘변→번→반’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1910년 무렵 변작리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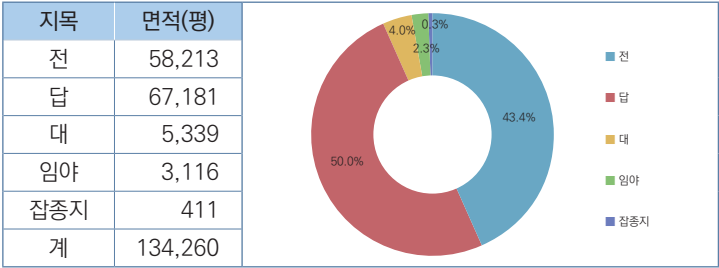
* 현재 지적원도는 해안가 부분(효정아파트 인근)이 멸실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 부분은 필자가 1967년 항공사진을 참조하여 임의로 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이곳 변작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로 「토지조사부」가 있다. 일제는 한국병탄 후 부족한 통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행하였다. 이 토지사업은 부평에서 시범조사 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토지조사부」와 「지적원도」이다. 이 두 자료를 이용하여 1910년 변작리의 토지 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작리의 토지 신고는 1910년 6월 26일~29일, 8월 25~28일 두 차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8월에 신고하였다. 조사 결과 변작리의 토지는 134,260평(146필지)으로 국유지는 없었다. 지목구성은 답 50.0%(67,181평), 전 43.4%(58,213평), 대 4.0%(5,339평), 임야

2.3%(3,116평), 잡종지 0.3%(411평)으로 구성되었다. 즉 답이 변작리의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조금씩 해안에 독을 쌓아 갯벌 지역을 논으로 만든 것이 지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910년 8월 변작리 토지 이용 상황〉



〈1967년 변작리 인근 항공사진〉



* 1967년 제작된 항공사진으로 가운데 푸른 선은 경인고속도로 노선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변작리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48명으로 이들의 주소는 부평·인천·서울이었다. 이것을 아래<표>로 정리하였다.

〈변작리 지주의 주소지와 소유 면적〉

주소	지주	면적	주소	지주	면적	주소	지주	면적
변작리	9	14,439	인천 금곡리	1	5,551	경성 차동	1	5,889
가좌동	9	9,966	인천 사정	1	2,881	경성 모교동	1	1,142
고잔리	7	10,065	인천 송림리	2	3,028	경성 청파동	1	2,962
신현리	5	2,698	인천 송판정	1	705	경성 동곡	1	22,847
부평 상동	1	6,221	인천 송현리	1	14,194	경성 하교동	1	658
부평 산곡리	1	14,649	인천 미산리	1	8,337	경성 보민동	1	642
			인천 용리	1	590			
			인천 지나동	1	1,509			
			인천 화평리	1	4,569			
합 계	32	58,038		10	41,364		6	34,140

지주의 67%가 변작리와 이웃한 마을인 가좌동·고잔리·신현리 그리고 천마산 너머 부평 산곡리에 거주하였고, 인천 지주는 21%(10명), 서울 지주는 13%(6명)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에 주소를 둔 지주 중 일본인 쿠노(久野喜太郎)와 야마자기(宮崎喜作)이 있었다. 인천 거주 지주는 변작리에 살던 이들이 개항장으로 진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자의 경우일 듯 하다. 왜냐하면 변작리 뿐 아니라 서곶면 지역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소유 면적을 지주의 주소지로 분류하면 부평 43%·인천 31%·서울 26%로 타 지역 지주 이른바 부재지주(不在地主)가 변작리 토지의 57%를 차지하였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을 정리한 것이 아래<표>이다.

〈변작리 지주의 계층별 토지소유 분포〉

(단위:평)

소유면적	1,500 이하	1,500~ 3,000	3,000~ 9,000	9,000~ 15,000	15,000 이상
인 원	28	9	8	2	1

지주 전체의 77%(37명)가 1정보(3,000평)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1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는 11명이었다. 소유 토지 면적에 따라 빈농(0.5정보 이하), 소농·중농(0.5~1.5정보), 부농(1.5정보 이상)으로 분류할 경우 빈농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농·중농은 11명, 부농은 9명이었다. 빈농은 변작리(6명)·가좌리(6명)·고잔리(5명)·신현리(5명)·인천(3명)·서울(3명)으로 주로 변작리와 주변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변작리의 1정보 이상을 소유한 이들을 정리한 것이 아래<표>이다.

〈변작리 3,000평 이상 토지 소유자〉

(단위:평)

면적	주소지	이름	면적	주소지	이름
22,847	경성 동곡	李圭常	5,551	인천 금곡리	朴明順
14,649	부평 상동	李鍾晉	4,814	변작리	李聖道
14,194	인천 송현리	高春吉	4,569	인천 화평리	崔聖鉉
8,337	인천 미산리	鄭景順	3,795	고잔리	李春三
6,221	부평 산곡리	池有弼	3,028	인천 송림리	李濟道
5,889	경성 차동	金重默			

변작리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이는 서울 장통방 동곡(서울 중로구 관철동)의 이규상(李圭常)이었다. 그의 토지는 마을 앞 개천 앞 님(前川)(위 「지적원도」 참조)를 따라 형성된 논과 북서쪽 해안가의 제

일 큰 논(현재 금호어울림아파트 일대) 그리고 대지 148평을 소유하였다. 아마 종친가문인 전주 이씨 일족으로 추정되는데, 번작리 그의 소유 대지에는 소작농이나 마름이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 송현리 고춘길(高春吉)은 소유 토지는 14,194평이었는데, 정작 그의 주소지인 인천부 송현리에는 그의 명의로 된 토지가 없었다. 번작리가 주소인 지주 중 고순일(高順日)·고영선(高永先)·고홍서(高弘西)·고홍식(高弘植)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거지를 번작리에서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할 볼 수 있다. 부평군 마장면 산곡리 지유필(池有弼)은 대지 2,026평을 소유한 점이 이채롭다. 이곳은 위 지도(지적원도와 1967년 항공사진)에서 거북시장약국 서쪽편 대지에 해당한다. 번작리 거주 지주로는 이성도(李聖道)가 답 1,900평·전 2,532평, 대지 382평을 소유하였다. 그의 집은 번작리 361번지로 산곡리 지유필(池有弼) 소유 대지와 접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지적원도에는 이 부분이 멸실되었다.

아래 <표>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지역조사 자료인 「지지조서」·「조선지지자료」에서 서곶면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915·1917년 서곶면 호수와 인구수〉

동리명	옛이름 부락명	1915년		1917년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검암리	검바위 간지울	75 (54·21)	340 (246·94)	75 (54·21)	345 (248·97)
백석리	한돌	58	262	56	262
시천리	시천리	37	168	36	170
공촌리	공천리	34	156	35	157
심곡리	기피울	55	250	54	250
연희리	연희리	67	305	65	305
고잔리	고잔	79	357	75	332
가정리	가정리	53	242	55	242
신현리	신오기	61	274	61	274
포리	지말	35	161	35	161
고작리	고잔리 번작리	58 (31·27)	279 (154·125)	51 (26·25)	250 (135·115)
가좌리	가지울 산곡리	126 (104·22)	568 (470·98)	97	481

출전 : 「지리지서」 부천군(1915년)

1915년 5월 서곶면은 3,362명(738호)이 살고 있었고, 2년 후인 1917년에는 3,229명(695호)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1915년 조사는 산곡리 장끝말이 가좌리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도 3,264명(716호)로 역시 줄어드는 추세였다. 아마 나룻배를 이용하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인천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강했을 것이다.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앞서 본 18세기 석곶면(石串面) 균역 담당자가 1,015인(350호)인 점을 볼 때 호수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서곶면에서 제일 큰 동네는 가좌리로 1915년 470명(104호)에서 1917년 481명(97호)로 오히려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좌리 남쪽 해안에 주안염전이 들어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번작

리는 윗 마을인 고잔리와 합쳐져 고작리(高作里)가 되었다. 번작리 거주 인구는 1915년 125명(27호), 1917년 115명(25호)으로 1호당 거주 인구는 4.6명이었다. 5년 전인 1910년 「토지조사부」에 주소가 번작리인 지주는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을 1호로 볼 경우 26호(1915년과 1917년 평균 호수) 가운데 9호만이 토지를 소유하였고, 나머지 17호는 본인 소유 토지가 없었다. 9호 중 0.5정보 이상을 소유한 이는 3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번작리 주민들의 경제적 상태가 소농·중농 3호, 빈농 6호, 소작농 17호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3. 석남동 일대의 공업지대화와 인구 변동

‘시장(市場, market)’은 생산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장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시대에 이것을 ‘장(場)’이라 하였는데, 옛 문헌에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는 물러가는 것을 장(場)이라고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잉여생산물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교환하려는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운반시설 등의 기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는 단순히 교환을 위한 부정기적인 시장만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생산력과 사회여건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부정기 시장은 정기시장으로, 그리고 정기시장은 다시 상설시장으로 발달해 왔다.⁴⁴⁾

앞서 본 것처럼 번작리는 지형 상에서도 동쪽이 원적산맥으로 막히

44) 인천광역시(2006), 「인천의 길과 시장」, 13~18쪽

고, 서쪽은 바다에 연하였기에 시장이 들어서기 위한 접근성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교통로의 중요 시설의 하나인 주막(酒幕)도 서곶면에는 가정리 산밋주막(山底), 가좌동 나루.7주막(津邊), 고잔리 옷우물주막(漆井里)만 있을 뿐 번작리에는 없었다.⁴⁵⁾ 즉 번작리는 생산의 공간이었지 소비·유통의 공간이 아니었다. 조선 시대 인천과 부평을 대표하는 시장은 사천장과 황어장으로 특히 황어장은 시장의 영향권을 한강과 임진강을 이용하여 강화도·경기도 북부·황해도까지 두었다. 일제강점기 인천 주변 지역의 대표적인 5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과 인근 지역 5일장〉

지역	시장	날짜	지역	시장	날짜
인천 지역	疎巖장(석바위)	4·9일	통진 지역	원통리장	4·9일
	사천장	1·6일		오라리장	2·7일
	채미전	2·7일	김포 지역	신장	1·6일
부평 지역	황어장	3·8(1·6)일	강화 지역	남문장	2·7일

출처 : 朝鮮總督府(1929), 「朝鮮의市場經濟」

1961년 서구지역의 행정구역면적은 36.55㎢에 인구 11,000명으로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논밭과 임야 상태였다. 해면은 아직 광활한 자연갯벌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세어도와 거침도 사이 자연적 수로가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육지에 가까운 섬 주변과 경서동에는 민간이 방조제를 쌓아 소규모 염전이나 논 조성을 위한 매립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정부는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채택하고 그 방법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선택하였다. 재벌로 구성된 한국수

45) 「조선지리지자료」 부평부 서곶면.

출산업공단은 구로수출공단을 조성하였다. 이후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2개 단지가 건설되었고, 부평에도 제4단지가 1969년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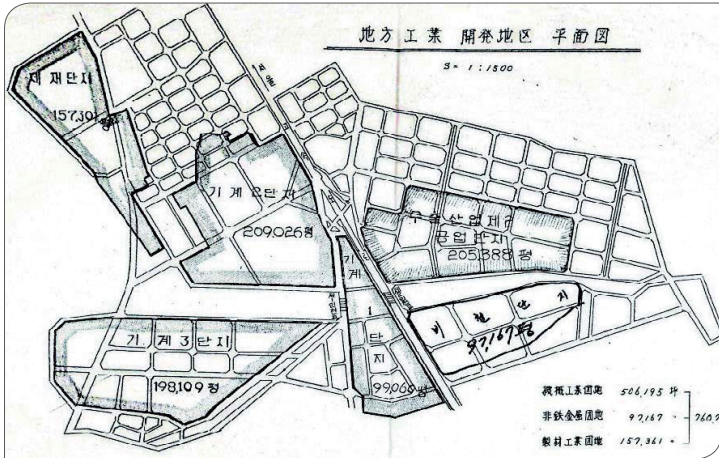
〈주안공업단지 명칭 변화〉

기존 명칭	변경 명칭	행정구역
주안 제2수출공업단지	주안 제5국가산업단지	가좌동
비철금속 공업단지	주안 제6국가산업단지	주안동
제2기계공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가좌동
제3기계공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도화동
제1기계공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도화동·가좌동

출처 : 서구문화원(2021),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

반면 인천의 산업단지는 토착기업 중심의 인천상공회의소가 주도하여 (사)인천수출산업공단, (사)인천기계공업공단, (사)인천비철금속공업공단을 설립하였다.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은 부평지구(제1수출공단)와 주안지구(제2수출공단)에 공단을 조성하였고,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주안염전 자리에 3개 기계공단을, (사)인천비철금속공업공단 역시 염전자리에 비철금속공단을 조성하였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재벌기업과 정부관료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인천은 지역의 토착기업과 사회세력들이 주도한 사업이었다.

〈1970년 주안공업지구 개발 평면도〉



출처 : 서구문화원(2021),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

그러나 정부는 1971년 (사)인천수출산업공단을 한국수출산업공단에 강제 통합하여 부평 제1수출공단을 제4국가수출공단으로, 주안 제2수출공단을 제5국가수출공단으로 관리주체와 명칭을 바꾸었다. 1974년에도 (사)비철금속공단을 해산하고 제6국가수출공단으로 흡수하였다. 또한 1976년 제3기계공단을 흡수하여 인천시로 관리 감독권을 이양하면서 인천지방산업단지로 재편된다. (사)인천기계공업공단은 1978년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상공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제1기계공단만을 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1기계공단이 현재 남아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이다.⁴⁶⁾

이 가운데 석남동 일원과 관련된 산업시설은 제2기계공단을 들 수 있다. 가좌동의 제2기계공단은 주안염전을 매립 후 공단부지를 분양

46)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2021), 『서구 산업의 발전과 성숙』, 22~26쪽.

하였다. 제2기계공단은 제1기계공단에 비해 부지 면적이 2배 이상 넓어 입주 공장의 분양면적도 넓었다. 일신제강은 3만 5천여 평으로 가장 넓은 부지를 분양받았고, 영창약기는 1만 1천여 평, 동양석판이 7천 1백여 평, 신한공기와 협신볼트는 각각 2천여 평 이상을 분양받았다.

〈제2기계공단 입주예정 업체명(1973)〉

업체명	생산품목	주소	공장건설	업체명	생산품목	주소	공장건설
일산산업	강과·신철	서울	1971. 8	영창약기	약기	서웃	1971. 9
신한공기	계량기	서울		협신볼트	볼트·넛트	서울	
미아산업	직버회로	인천	1971.10	영진실업	상수도배관	서울	1971. 9
남강공업	양정·호선	인천	1972. 8	대인철공소	석판·강판	인천	1973. 3
동양석판	석탄·강판	서울	1971. 7	아주신철*	사슈바·앵글·평철	서울	1971. 8

출전 : 서구문화원(2021), 앞의 책

*아주신철은 입주 취소하여 총 9개 업체 입주 결정

이외에도 서울의 건축관련 업체인 동화기업이 1968년 석남동·가좌동 해안가를 매립하여 간척지 50여 만 평을 건설하였다. 한국전쟁 후 시설 복구가 시작되며 건축의 기초인 목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동화기업도 미군에 목재를 공급하며 성장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인천 석남동·가좌동 해안에 대규모 목재수입·제재단지 건설을 시도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1964년 무렵 수산양식 목적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업은 고잔리의 끝(현재 석남동 SK인천석유화학)에서 바위섬인 소염도(모래방죽 사거리)을 거쳐 보도진(현재 영창약기 2공장 인근)을 연결하는 공사였다.(현재 건지로 153번길이 그 흔적이다) 동화기업은 현 가좌동 염곡로를 따라 목재 공장 15개를 건설하였고, 이를 서울에 산재해 있던 목재회사들에게 분양하였다. 동화기업에 이어 영림목재와 태원목재, 한국목재, 한양

목재, 원창목재, 대명목재, 가가담목재, 신대림제재소 등이 갯골을 따라 형성되며 목재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이와함께 나무가 주재료인 피아노를 생산하는 영창악기 역시 이곳에 공장을 설치하였다. 1988년 서구가 출범하여 조사한 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517개 업체, 63,898명의 노동자가 서구 공업지대에서 근무하였다.

〈서구 업종별 공장 현황〉

구분	합계	섬유	화학	전기·전자	기계	기타
공장수	517	21	68	162	90	176
종업원수	63,898	4,692	16,081	18,378	6,602	18,145

출전 : 「서구백서」(1988년)

〈서구 동별 공장 현황〉

구분	합계	가좌1	가좌2	가좌3	석남1	석남2	원창동	경서동
공장수	517	132	104	97	21	110	2	5
종업원수	63,898	21,162	10,669	18,904	1,897	8,287	474	2,505

출전 : 「서구백서」(1988년)

석남동과 주변 지역에 산업시설이 집중되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 몰려들었다. 아래<표>는 1961년~2012년 기간 동안 석남동과 가좌동의 인구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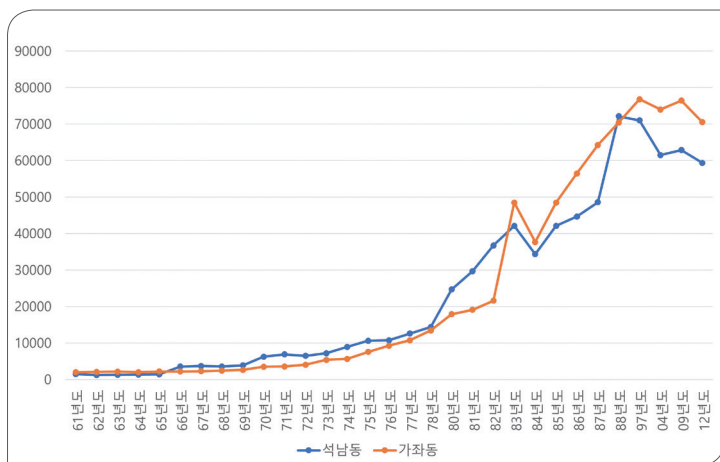
〈1961~2012년 석남동·가좌동의 가구수·인구수 변동〉

년도	석남동		가좌동		년도	석남동		가좌동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61년	282	1,491	362	1,990	77년	2,807	12,594	1,766	10,724
62년	211	1,214	379	2,074	78년	3,072	14,372	2,152	13,427
63년	235	1,281	382	2,128	80년	5,686	24,677	3,616	17,892
64년	243	1,335	352	2,022	81년	6,803	29,695	3,870	19,101
65년	256	1,390	376	2,168	82년	8,205	36,730	4,542	21,582
66년	598	3,526	387	2,172	83년	6,352	42,107	11,699	48,467
67년	607	3,675	405	2,237	84년	8,007	34,338	8,629	37,674
68년	621	3,539	450	2,408	85년	6,352	42,107	11,699	48,467
69년	787	3,872	542	2,615	86년	10,950	44,659	13,757	56,468
70년	1,284	6,260	731	3,492	87년	11,995	48,578	15,826	64,269
71년	1,337	6,875	804	3,554	88년	19,157	72,145	17,330	70,421
72년	1,268	6,471	866	4,042	97년	21,956	71,023	24,691	76,828
73년	1,532	7,168	1,005	5,378	04년	21,273	61,499	24,266	74,012
74년	1,867	8,944	1,050	5,635	09년	24,054	62,894	27,318	76,439
75년	2,227	10,592	1,303	7,541	12년	23,841	59,357	26,547	70,542
76년	2,351	10,729	1,485	9,271					

참조 : 「인천통계연보」

*비고 : 66년부터 석남동 인구통계에는 가정동·신현동도 포함되었다.

〈석남동·가좌동의 인구변화 추이〉



이 지역 인구가 조사된 1961년부터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은 가좌동이였다. 앞서 봤듯 1915년과 1917년 동리별 인구에서도 가좌동이 가장 많았다. 즉 가좌동의 인구 증가는 주안염전과 관련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1966년에 석남동과 가좌동의 인구수가 역전하는데, 그 원인은 이해부터 석남동 통계에는 가정동·신현동 인구가 합산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은 석남동의 인구는 전 해보다 61.6% 증가하였고, 가좌동 역시 33.5%나 증가하였다. 즉 이 해에는 석남동 사람들 3명 중 1명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였다. 1970년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2.18%였던 점을 보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1983년도에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 해 가정동과·신현동을 통합하여 가신동을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며 인접한 석남동과 가좌동의 인구가 동반 감소한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70년 무렵 이 지역이 공업지대로 변모하며 석남동과 가좌동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공업지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1990년대부터 인

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무렵부터 연희동·가정동·검단동 등이 주거지대로 변모하며 현재 서구의 인구는 북쪽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4. 거북시장 형성과 변화

1) 거북시장의 시작

시장이 들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집중이다. 앞에서 보았듯 석남동과 주변 마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는 이 지역에 공업지대로 변모하는 1970년이다. 특히 1968년 설립된 동화기업의 목재공장은 이때 인구 집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울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공장을 따라 이주하였고, 이후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충청도·전라도 등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예를 들면 (株)영창약기 공장 노동자의 지역구성 비율은 충청도 45%, 호남 25%, 경인지역이 20%였다고 한다.⁴⁷⁾

목재공장으로 유입된 인구는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동화기업은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 가좌동(진지로 250번길 43)에 사택을 지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목재회사들도 공장 주위에 사택을 지어 안정적으로 노동자들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주거할 집이 부족했다. 건축업자들은 땅

47) 인천서구문화원, 위의 책, 135쪽.

을 구입해 주택을 지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짓고 살던 원주민들도 농사짓던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때 농부에서 건축업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았다. 건축업자들이 단독주택 한 채를 지으면 짓기 무섭게 매매가 되었다. 매매가 되지 않은 집은 방마다 임대를 놓았다. 임대가 나갈 것 같지 않던 반지하 방들도 금세 임대되었다. 목재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축업자들은 넓은 땅에 똑같은 모양의 단독주택을 10~15채씩 지어 분양하기도 했다. 그리고 2~3층짜리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었다. 가좌동에는 홍기연립과 대명연립 등이 지어졌고, 석남동에는 유성연립과 낙원연립 등이 지어졌다. 그리고 3~4층짜리 빌라가 지어졌다. 이어서 5~6층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가좌동에는 덕산아파트, 삼영아파트 등이 지어졌고, 석남동에는 새인천아파트, 효정아파트 등이 지어졌다. 이렇게 지어진 서민주택은 많은 목재공장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⁴⁸⁾

석남동에 사람들이 늘어나며 제일 먼저 의식주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이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이것은 점차 상설시장 형태로 변화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북시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거북시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 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설로서 1960년대에 이 지역에 거북상회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가 명성을 얻으면서 상권이 형성되며 이 가게를 중심으로 거북시장이 만들

48) 인천서구문화원, 위의 책, 79~81쪽

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지형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거북시장이 있는 곳은 거북이의 등에 해당되는 곳이고 머리 부분은 거북이 마을이 있던 곳인데 머리 부분은 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잘렸다고 한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있는 곳이 몸통과 머리를 이어주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⁴⁹⁾

하지만 거북시장은 서구의 최초 인정시장으로 그 기원은 1970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관련 문헌 기록이 없기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필자가 면담조사한 상인 중 가장 오래 동안 시장에서 장사한 상인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필자 : 여기를 왜 거북시장이라고 했어요?

도움을 주신 분1 : 여기 시장을 만들 때 거북이, 학 뭐 여러 가지 동물들로 하다가 거북이가 명이 길거 같아서 거북시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거북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거북이나 나던 곳은 아니고

집필자 : 예에 맞아요. 지명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거북상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필자 : 거북상회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시지요?

도움을 주신 분1 : 전혀 몰라요.

연구원 : 지형이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시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을 주신 분1 : 그건 만들어진 거고.

도움을 주신 분2 : 거북시장이라는 자체는 우리 아버지하고 몇 사람이 의논해서 만든 거라.

49) '인천여행 전통재래시장! 신거북시장이야기(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집필자 : 거북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북상회가 있었다고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북상회가 있었고

도움을 주신 분1 : 거북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북상회가 없었고 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배추, 무 심어서 먹었는데

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거북상회로 인해서 거북시장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상인들은 거북상회라는 가게가 없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거북상회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혹은 거북상회 상인에 의해서 거북상회를 중심으로 거북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생겼을 수도 있다. 즉 거북상회를 거북상가 또는 거북산업(거북공영주식회사)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인 듯하다.

다음으로 거북시장이 거북 모양의 지형에서 유래했다는 설, 면담자 본인도 타인에게 들은 것을 소개하였고, 또 앞 면담자보다 거북시장에서 장사한 경력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북시장의 명칭은 거북상가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거북시장의 형성과정을 상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자리(석남동)에 4대에 걸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현 거북시장(석남동 548번지) 자리에 1969~70년에 주택을 겸한 3층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 건물 1층에 지하다방·전파사·한복점 등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옆 산림청 소유 국유지(현재 신거북시장, 주차장) 공터에 노점이 들어서며 시장형태를 갖춰갔다. 위 1967년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석남동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 거주하였고, 그 옆으로는 경인고속도로 및 가좌동에서 석남동을 지나 김포에 이르는 도로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이전까지 근처에

서 가장 큰 시장인 인천 송림시장을 가려면 나룻배(혹은 거룻배)를 이용하였으나, 인천교 건설과 시내버스가 운행으로 현 거북시장 일대는 석남동의 인구와 교통이 만나는 곳이 되었다. 당시 큰 시장에 가려면 17번 버스와 41번 버스를 이용하였다. 초창기 거북시장의 수요자는 주로 동화개발 목재공장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거북시장 관계자와 인터뷰〉



그 후 1980~81년 건축업자 3명이 상가건물을 건축 후 분양하는데, 이때 회사의 번창을 기원하며 거북산업(거북공영주식회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상가 건물은 36평으로 1층 상점·2층 개인주택으로 이용되었고, 상점은 9평 500만원에 분양되었는데, 당시 모두 10개 상가에 40여 업체가 입주하였다. 초기 대표적인 상점으로 미도정육점·현대방앗간·그릇가게 등이 입점하였다. 이후 석남동의 인구 증가로 도로 주변으로 상가건물이 건축되었고, 그 앞으로 노점들이 자리하여 거북시장은 식품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 그릇 등 의류와 공산품으로 품목을 늘리며 큰 시장으로 발전하여 서구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목재공장 월급날이면 거북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하여 활기가 넘쳐났다. 이로 인해 서구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시작

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면 튀긴 통닭과 과일, 음료를 구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목로주점에서 보쌈과 파전이나 골뱅이무침 따위 안주를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달래는 회사원들로 만석이었다.⁵⁰⁾

2) 거북시장의 갈등

거북시장이 번성하자 손님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는 상인들도 함께 늘어나며 노점문제가 시장 내 큰 이슈가 되었다.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시장이나 상가에서 장사를 상인들과 길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은 항상 서로 부딪치는 관계에 있다. 시장이나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자신들과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 이는 거북시장도 비슷한데 양상은 다른 지역과는 약간 달랐던 것 같다. 이는 상인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움을 주신 분 : 여기가 노점이 커졌어요. 88년 올림픽이 있었지요. 전두환 정권이 노점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외국 귀빈들 와서 보기에 지저분해보인다고 여기다가 잠정허용구역을 정해준것이예요.

집필자 : 시장장점구역이요?

도움을 주신 분 : 노점상들이 있을 수 있게 잠정허용구역을 만들어주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앉은 것이 아니라 각처 인천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정리정돈을 해서 양쪽길에 앉히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그 때 120여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아요.

50) 인천서구문화원, 위의 책, 92쪽, 117쪽

집필자 : 120명이에요?

도움을 주신 분 : 이곳을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했으면 잠시 허가해주는 것
이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취소를 안해주는 거야? 그러다보니
까 이것이 계속 눌러 앉아서 이 사람들이 터주대감처럼 자리를 잡은 거야

집필자 : 그때 노점을 하신분들은 서구사람들이 아니라 인천사람도 있었던
것이지요?

도움을 주신 분 : 아니에요. 인천사람들도 있고 성남사람들도 있고 여기가
괜찮다고 무조건 자리잡고 앉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잠깐하다 말 것이라
고 해서 아예 자리를 안잡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거북시장 앞에도 노점상은 있었는데 규모가
다른 노점상들과 달리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상인의 말
에 의하면 거북시장 앞으로 70개의 노점이 있었다고 하며 위의 대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중에는 120명의 노점상이 있었다고 한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는 군부독재에 억눌
려있던 목소리가 밖으로 표출되었다. 1987년 7~9월에 벌어진 노동
자 대투쟁이 대표적이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서민들도 생존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었다. 그 중의 하나가 노점상들이었다. 특히 전
두환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
관을 핑계로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에 반발로 1987
년 10월 도시노점상연합회가 결성되어 1988년 상반기 전국에서 노
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을 일어났다. 그 결과 이해 하반기에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잠시 중단되었다. 이때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2월 1일
내무부 노점상 종합대응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리하면 노점
상 전용지역·잠정허용지역·금지지역으로 나눈 것이었다.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거북시장에 노점상들이 대거 유입된 것도 1988년 이

대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북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노점상들이 대로를 차지하고 있어 마음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전두환 정권이 88올림픽 성공을 위해 잠시 허용해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잠정’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노점상들이 나가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노점상허용구역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 거북시장의 몰락의 원인을 도로를 따라 형성된 노점상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인천의 길과 시장」에는 거북시장 초기부터 방앗간을 운영해온 상인의 증언을 통해 구 거북시장 상인과 노점상과의 갈등이 컸다고 한다. 그 상인의 말에 의하면 “단속대상인 노점상을 구청이 묵인해주다보니 노점상만 번성하고 정상적인 상가의 상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⁵¹⁾ 또한 앞서 언급한 노점상허용구역이 거북시장 앞에 지정되고 해제가 되지 않다 보니 노점상이 점점 커져서 구 거북시장을 몰락시키고 더 큰 시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구 거북시장 몰락의 원인은 노점상과 이를 눈감아 주었던 당시 구청 관계자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거북시장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던 거북시장 노점상의 시장 생활을 1988년부터 10년 정도 거북시장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상인의 말을 통해 알아보자.

51) 「인천의 길과 시장」,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6, 158~159쪽.

집필자 : 고향은 어디세요?

도움을 주신 분 : 강화조. 지인 소개로 87년까지 포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부모
어음 피해를 입어서 그만두고, 집사람의 지인 소개로 집앞에서 새우젓을 팔기
시작했어요.

집필자 : 강화에서는 언제 오신거예요?

도움을 주신 분 : 87년 무렵 서구로 이주했어요

집필자 : 그 무렵 단독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었죠?

도움을 주신 분 : 집은 만들어졌는데 도로포장은 안됐어요. 거북시장에서 노점
을 했어요. 상가 앞에 노점이 있었죠.

집필자 : 거북시장은 상가와 노점을 포함하나요?

도움을 주신 분 : 거북시장은 노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집필자 : 신거북시장은 노점을 포함하지 않죠?

도움을 주신 분 : 예 노점을 포함하지 않죠. 우리가 노점할 때도 상가는 죽었
었어요. 그래서 새우젓이 잘 팔리는거예요. 상가 앞에서 파니깐 사람이 몰려
오고, 새우젓은 냄새가 나서, 빈곳에 사과 껌작 위에 드럼통을 놓고 팔기 시작
했죠.

집필자 : 상가에는 들어갔셨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아니 난 노점만 했어요. 현재 이곳에 집을 지으며 나는 이곳으
로 들고와 집사람은 아직 남아서 새우젓을 팔았죠. 차차 경기가 없어지니 들어
오고 말았지. 노점상가가 구성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집필자 : 선생님이 새우젓 장사를 할 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도움을 주신 분 : 그때는 장사도 웬만치 됐었어요

집필자 : 그때는 상인회도 있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그렇지요 상인회는 없었어요. 장시간에 외부가 차량을 가지
고 와서 파니깐 기존 노점은 팔지 못했어요. ... (생략)... 그런 일이 자주 있었
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보고 여기 상인회를 조직해보자, 그리고 (자체)

경비를 두고 단속을 하고. 그러면 날보고 회장을 하라고 하는거예요. 이전에 조직했었는데 (현재) 없어졌다고. 그러했더니 부회장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92명으로 상인회를 조직했어요.

집필자 : 그 때가 몇 년도예요?

도움을 주신 분 : 그때쯤 되요(88년)

집필자 : 선생님 몇 년 생이세요?

도움을 주신 분 : 42년생

집필자 : 상인회는 무슨 일을 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 못들어오게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됐죠. 그전에는 일수를 썼어요. 일수가 3사람이 되는데, 시장이 끝나면 돈을 걷으러 오죠.

집필자 : 회장은 누구였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정영기씨라고, 고무신 신발을 팔았어요. 장사가 잘되니 일수가 없어지고, 야채장사가 12명 있었는데 하루에 다 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오고 ... 파출소 앞에서 신상가까지 사람들이 밀려다녔어요.

집필자 : 거북시장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시겠네요?

도움을 주신 분 : 그렇죠. 그전에 생겼겠죠.

집필자 : 상인회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 : 관혼상례 부조사업을 하고, 1년에 한번씩 단합대회했죠.

집필자 : 상인회는 얼마나 하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 : 1997년 집 짓고 그만두고, 집사람은 계속하다가 5~6년에 전에 그만두었어요.

집필자 : 새우젓만 파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 : 새우젓은 김장철에만 팔고, 여러 가지 팔았어요. 장사가 잘되니 아무거나 잘 팔렸어요.

집필자 : 상품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 : 가락시장에서 트럭으로. 도라지 가져오면 팔이 팔았어요. 상가 항의로 3미터씩 구역을 정하고 규칙을 지켰어요.

집필자 : 상인회하고 많이 다뤘겠네요?

도움을 주신 분 : 상인회하고 많이 다뤘겠어요. 장사가 안된다. 진정을 넣고 그래서

집필자 : 구에다 얘기했겠네요?

도움을 주신 분 : 구청에서 1주일만 쉬어봐라. 그러면 무슨 나올거다. 그래서 1주일 쉬었어요. 1주일 쉬었더니 사람이 안오는거야. 노점이 없어졌다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오라고 사정을 하는거야. 우리 때문에 장사가 잘됐던거야.

집필자 : 조합원 회비는 얼마인가요?

도움을 주신 분 : 하루에 1천원씩. 경비 일당으로 썼지.

집필자 : 다른 회비는 없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없죠.

집필자 : 전성기때는 몇분이나 됐나요?

도움을 주신 분 : 다라 장사는 우리가 단속을 안했지. 트럭으로 오는 사람은 단속했지.

집필자 : 그분들한테도 회비 걷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아니요. 할머니들한테는 안걸었어요. 쓰리군(소매치기)도 많았고, 위조수표도 있었어요.

집필자 :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장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쉬는 자리는 경비가 먼곳에서 온 사람을 우선으로 넣어줬어요. 대개 옷장사들이 왔어요. 하루에 800만원치 팔았어요. 나도 잘되는 날에는 80만원 못되는 날에는 60만원 팔았어요.

집필자 : 상인회원이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도움을 주신 분 : 자리를 잡고 장사했으면 그 사람은 회원이죠

집필자 : 상인회 활동하는 사진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없어요. 장사는 잘됐어요. 가락시장가면 거북시장에서 온 사람
람들이 많았어요. 강남콩 시절에는 이틀에 한트럭 가져왔어요.

집필자 : 다른 회장들이 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아니요. 정영기씨와 나 이후에 상인회는 끝나고 없어요.

집필자 : 서구와 함께 한 것은 없나요?

도움을 주신 분 : 그런 것 없었어요. 구청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면 저거하고, 단
속하고, 구청하고 부딪히는 것은 없었어요.

집필자 : 그 이후에는 잘모르시겠네요?

도움을 주신 분 :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집필자 : 상가 상인회와는 접촉이 없었나요?

도움을 주신 분 : 예

위의 대화에서 거북시장의 노점상들도 자체 상인회를 운영하며, 시장의 번영에 함께 하였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노점상들이 상인회를 구성해도 될 정도로 거북시장 주변의 노점상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거북시장의 몰락 배경을 이러한 노점상들에게 돌리는 구 거북상회 상인의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어찌되었든 이후 이들 노점상들은 나중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건물로 이주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1985년 거북시장 인근 위성 사진〉



〈2005년 거북시장 인근 위성 사진〉



〈노점상 정리 후 거북시장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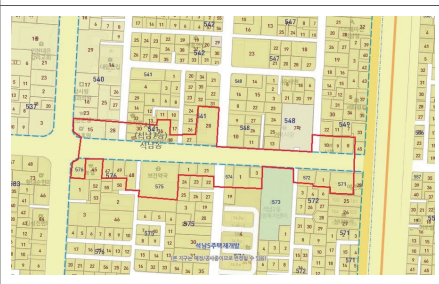
3) 신거북시장

거북시장과 별도로 거북로 도로 주변 상점으로 구성된 신거북시장 변영회가 조직되었다. 2005년 재래시장 특별법이 제정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이 두 단체는 각기 따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여, 초기 거북시장은 2005년 12월 22일, 신거북시장은 2005년 8월 17일에 각각 등록시장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신거북시장은 도로변 상가와 노점이 연합하여 더 큰 시장을 형성하여 거북시장과는 별도로 인정받은 시장이라고 한다. 길을 따라 노점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북상가에 있는 구 거북시장과 비교해서 접근성이 좋아 자연스럽게 고객의 발길을 붙잡았고 노점이 늘어나면서 도로의 대부분이 노점으로 가득 차면서 시장으로 변한 경우라고 한다. 2006년 인천역사자료관에서 출간한 「인천의 길과 시장」에 의하면 “신거북시장의 중앙도로는 4차선 도로이나 상가와 노점의 상품 진열과 장을 보러온 고객들이 차지하여 일반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타격을 입기 전이며 지금은 그정도로 많은 노점이 있지는 않다.

이러한 구 거북시장과 신거북시장의 차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거북시장과 신거북시장〉

	<p>개설일자 : 1982년 등록일자 : 2005. 12. 22 위치 : 서구 면개포로10번길 12 일원 구역면적 : 6,959.8㎡</p>
	<p>개설일자 : 1982년 등록일자 : 2005. 8. 17 위치 : 서구 면개포로 5 구역면적 : 10,314㎡</p>

2011년 조사에서 거북시장은 53개의 점포, 신거북시장은 120개 점포로 구성되었다.⁵²⁾

〈거북시장 사거리 점포 평균 임대세〉

(단위:만원)

급지	층수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활성화지역	2층	33.058㎡	3,000	70
	1층	33.058㎡	4,500	100
	지하	33.058㎡	2,300	50
비활성화지역	2층	33.058㎡	1,600	40
	1층	33.058㎡	2,400	60
	지하	33.058㎡	1,200	30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2011), 「서구 내 전통시장 및 도소매업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6쪽

52) 인천발전연구원(2011년), 「인천 전통시장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후 상권이 쇠퇴하며 거북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고 지금은 4개의 상점만 유지 중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신거북시장 상인회만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신거북시장 상인회는 사업자로 등록된 상인으로 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상인회는 회장·부회장 각 1명, 운영이사 3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된 임원진이 상인회 업무를 처리한다. 올해 2023년부터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회금(10만원)을 납부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상인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5. 거북시장의 가게

거북시장의 가게들을 소개하면서 신거북시장에 속한 가게도 조사해야 하겠지만 본 향토지의 목적이 사라져가는 전통을 발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있기에 여기서는 지금은 쇠락해서 4개의 점포만 남은 구 거북시장의 가게들 중 인터뷰에 협조했던 영성상회와 현대방앗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영성상회



현재 구 거북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가게는 4개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현대방앗간과 영성상회가 있는데 이들 가게 중에서 인터넷 상에서 닭강정 가게로 유명한 영성상회가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성상회는 구 거북시장 입구에 위치하며 후라이드, 닭강정, 생닭을 판다. 노부부 두 분이서 장사를 하는데 남편분은 거북시장 부근에서 4대째 사시던 분이었고 아내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출신이라고 하셨다. 아내분이신 이계숙님께 의하면 영성상회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에 만들어졌으며 본인 앞에 2명이 영성상회에서 장사를 했고 본인은 세 번째 주인으로 29년째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 정확히는 처음에 건물주로 세를 주었던 분들이 영성상회에서 닭튀김 장사를 하였고 그렇게 2분이 나간 뒤에 이계숙 사장님 본인이 직접 가게를 맡았다고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비록 인터넷 상에서 닭강정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는 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먹고살아야 하고 연세가 드셔서 장사라도 안하면 시간이 무료하다고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

2) 현대방앗간



구 거북시장에 있는 방앗간으로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3-2’이다. 이 가게에서는 고추, 기름, 식당재료들을 파는 곳이다. 여기도 노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으며 1982년 거북시장이 생길 때부터 가게를 하

기 시작한 역사를 함께한 만 42년 된 가게라고 할 수 있다. 현대방앗간의 김중돈 사장님의 경우 원래는 충청남도 태안군 출신이시며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데에 있다가 인천으로 와서 살았다고 한다. 결혼하고 인고 앞에서 살다가 82년도에 거북시장에 와서 가게를 하셨다고 한다. 결혼 당시에는 당시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장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현대방앗간에서는 고추와 참기름, 들기름 등을 파는데 예전에는 북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참기름, 들기름 등을 팔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참기름, 들기름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님은 매우 적고 대부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손님으로 오신다고 한다.

부부가 연세가 많으시고 가게에 세를 놓아도 들어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비록 손님은 적지만 가게를 놀릴 수 없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신다고 한다. 영성상회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유명한 수준은 아니지만 필자가 인터뷰할 때도 꾸준히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있었다. 이런 점을 보면 현대방앗간의 고추나 참기름, 들기름의 질이 좋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 거북시장의 가게 두 군데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두 가게의 공통적인 점은 모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하신다는 점이고 지금도 남아있는 구 거북시장의 가게라는 점이다. 또한 이 가게들이 유지되는 이유는 20년 이상 거북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시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해보니 모두 자신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장사를 그만두시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게들은 결국 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따라 가게의 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그분들이 건강 문제로 가게를 문닫는 날이 거북시장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해본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시간 관계상 다른 2군데 가게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북시장의 가게를 소개하면서 다른 두 가게에 대한 소개가 빠진 것을 사과드리고자한다. 나중계 기회가 되면 나머지 가게들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거북시장 일반현황

전통시장명	신거북시장	시장 구분	인정 / 상설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면개포로 5		
대표자	신거북시장상인회장 (박한섭)	관리자 (상인회, 조합)	신거북시장상인회
대지면적(㎡)	10,480.2㎡	건물연면적(㎡)	9,900㎡
매장면적(㎡)	4,290㎡	부대 시설	주차장(116면), 공중화장실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4,290	750	3,540		4,290	

□ 점포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노점상	계	상인	종업원	노점상	기타
115		97	6	12	0	249	103	146	0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2017년 : 3,300), (2018년 : 3,300), (2019년 : 4,000)
일별 이용객수(명)	(2017년 : 600명), (2018년 : 550명), (2019년 : 650명)

□ 연도별 추진사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연도	사업내용
2006	주민편의시설 및 화장실	2014	공동마케팅
2007	경품이벤트	2015	공동마케팅
2008	상인대학	2016	공동마케팅
2008	경품이벤트	2017	공동마케팅
2010	시장입구 안내간판	2018	공동마케팅
2010	공동마케팅	2018	공영주차장 조성
2011	전기, 가스 안전 시설물 보수공사	2019	특화거리조성·공영주차장 조성
2011	공동마케팅	2020	특화거리조성
2012	공동마케팅	2023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2013	공동마케팅		

〈신거북시장 상인회 회원 배치도〉

관리대개드	정다문약국
2층:이연지교, 365의원	이니스프리
거북천의원	바렌티노
3층:이표부비노기교	농협
2층:유엔박소아과	조은약국
3층:고운피부과의원	더페이스샵
지하:왕도노래방	기복신발
2층:내일아트	출판비아로렌
3층:공실	
지하:다인맥주방	공실
지하:거북포차	푸른바다
푸른바다	커피에반하다
	서진속산점목

지하:알뜰대문	TRY
	메건용품
	보관약국
	아반자라
	연영그릇
	오백익집
2층:천아빈인후교, 수선집	개원오락실
3층:별스크림	장수신발
	미소향교
지하:영영노래방	보통화점점
2층:공실, 공실	신가네떡발
24시화선터	수선집
구재의류	지중해탈려점

작한용품	중앙아재
	거북마트
	석남익집
	임미순반찬
	아재
석남 2동 사무소	
서부경찰서 석남2동 지구대	

	작한과일
	영호장식
	서진속산

아이닥터	구재의류
출각내아재	지하:실내낙시, 발노래방
	2층:출한의원, 장인호지교, 커피점
	3층:사이배리아pc방, 예원교회
해날국수	2층:예일메디칼
거북시공약국	장가네넨면

공해나라	경방나라	
비너스	지하:출부출력발	2층:서울유치과
등산복아웃도어		3층:공실
중국식품	거북다방	4층:주목
거북도넛소		
개원오락실	지하:공실	3층:공실
다걸	2층:공실	
	공실	
무지개수목관		
핑크		

속산점목	지하:아시안노래방
적석두부	2층:거북당구장
	3층:공실
커피	
황금성	
김방가게	
꽃목공예는점	PC방
	06 컴프
	매장국
	독도0
	음원

	OC마트	다미공창	모닝식자
	보원당		
	우먼로드	2층:누이다방	
	공전점점	지하:스타노래방	

공실	2층:동산의원
이름약국	지하:사별노래방
농가점목점	1층:고려병부
공영주차장	
GATE 4	

2층:수녀회 3층:세문안교회 지하:금난다방	SK텔리콤
	CY이스편의점
지하:학교다방	행PC게임
	온 종합건축
2층:역사이팅PC방	희망나눔가게
	관매점
2층:예원교회	공실



거북두루	남원공	
춘천닭갈비	2층:나인다방	
원진미트	2층:학교당구장	
제이엔텍		
비타민하우스	2층:모닝클럽	
공심		
정술인테리어		

6. 주요사업

1)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활성화 사업

신거북시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도 지원사업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활성화 사업이다.

■ **시설현대화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과 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

■ **경영활성화사업** :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도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과 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 및 상인 교육,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하 내용은 구정백서(2012년~2022년)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추진실적】

(1) 2012년

① 경영활성화

- 친환경 봉투제작
- 상인 공동 앞치마 제작
- 경품권 및 홍보전단 제작
- 시장입구 홍보영 안내간판 설치

(2) 2015년

① 경영활성화

- 친환경 봉투제작
- 상인 공동 앞치마 제작
- 경품권 및 홍보전단 제작
- 시장입구 홍보영 안내간판 설치
- 경품대잔치, 공동마케팅

(3) 2016년

① 경영활성화

- 경품대잔치 및 노래자랑 행사

(4) 2018년

① 경영활성화

- 경품대잔치 및 노래자랑 행사

(5) 2019년

① 경영활성화

- 경품대잔치 및 노래자랑 행사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상인교육, 마케팅 지원)

(6) 2020년

① 경영활성화

- 특성화첫걸음 시장(기반조성)사업

(7) 2021년

① 경영활성화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 기타 추진사업

■ **사업이름** :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 **사업 기간** : 2018년 1월~2022년 8월

■ **내용** : 주차장 및 판매시설 공사

■ **특이사항** : 사업기한이 처음에는 2020년 12월이었음.

■ **구정백서(2019년~2022년)의 내용을 참고**

■ **사업이름** :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기간** : 2023. 08. 21. ~ 2024. 02. 04.(예정)

■ **내용** :

- 베리어프리 보행로 조성 : 4m 폭 넓은 보행로
- 곡선형 도로 : 차량속도 저감 및 보행안전성 확보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 보행자 안전
- 보차로 단차 유지
- 보행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조명 설치 :
건널목 바닥 조명, 가로등 조명
- 광장 및 보도 바닥 등 서비스 공간 육각형 패턴 삽입 :
거북 등 모양
- 스마트 고보조명 설치 : 입체적 야간경관 연출
- 녹지대 및 이동식 플랜터 설치 : 휴식 공간 조성
- 가로등 및 볼라드, 지상화전력기기(분전반)에

신거북시장 BI(오구단길) 표출

- 입구상징물, 입구안내판, 종합안내판, 중심 결절부 게이트 설치 :

신거북시장 구역이라는 상징성 및 영역 표시

- 조업정차대 설치 :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

■ **특이사항** : 사업기한이 처음에는 2021년 6월이었음.

■ 구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참고했음.

■ **사업이름** : 거북로 일부구간 지중화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18번지 일원(거북로)

■ **사업 기간** : 2023. 6. ~ 2024. 2.

■ **내용** :

- 철거 : 전주 22기, 가공변압기 41대

- 신설 : 지상변압기 7대, 지상개폐기 5대

■ 구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참고했음.

IV

정과 덩과 추억을 담아가는, 인천 가좌시장

- 1 언제 가도 즐거운 시장
- 2 가좌시장의 탄생
- 3 가좌시장의 전설
- 4 가좌시장 터줏대감 <크로커다일> 박상근 사장을 만나다
- 5 '스타점포'가 있어야 시장이 뜬다

김진초 (소설가)

IV. 정과 덩과 추억을 담아가는, 인천 가좌시장

1. 언제 가도 즐거운 시장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넌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어린 시절 자주 부르던 동요다. 장에 다녀온 아버지 손에는 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소고기 한 칼이든 자반고등어 한 손이든, 아무튼 비린 남의 살이 들려 있었고, 아이들의 주전부리로 국화빵이나 눈깔사탕도 빠뜨리지 않았다. 때문에 부모님이 장에 가시면 아이들은 괜스레 마음이 들떠 가만히 있질 못했다. 돌면 돌수록 먼지만 뽕양게 이는 마당에서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를 목청 높여 부르며 기다림의 지루함을 달랬다.

조선 후기인 1770년에도 우리나라 오일장은 전국에 1,000개가 넘었다고 한다. 아무튼 장날은 애들에게도 어른에게도 축제의 장이었다. 전설의 오일장은 소설 속에도 종종 등장한다. 김동리의 소설 『역마』에서는 ‘화개장’이,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봉평장’이, 김주영의 『객주』에는 청송 ‘진보장’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간 추억의 장터를 재현시켜준다. 오일장이고 칠일장이고 장이 서는 날은 장돌뱅이들이 화려한 무대는 오르는 날이다. 장날이란 무대가 있어, 정착을 못 견디는 이 나라 장돌뱅이들은 제각각의 재능과 열정을 불태우며 역마살을 잠재웠을 테고, 그들의 다양한 묘기와 입담을 감상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던 백성들 역시 잠시 고단한 인생을 내려놓고 여가를 즐겼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시장은 즐거운 장소다.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어 좋고, 맛난 것을 먹을 수 있어 좋고, 평소와 달리 주머니가 손쉽게 열려서 좋다. 어쩌다 부모님을 따라 장에 가면 그야말로 신세계에 입장하는 기분이다. 약장수의 화려한 공연과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에 꼼짝 못 하고 붙들려 있으면, 어머니는 손을 잡아끌며 어서 가자고 상성이다. 여기저기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풍선이나 솜사탕을 든 채 마냥 행복하던 추억의 장소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지금도 시장에 가는 게 즐겁긴 마찬가지다.

대형 쇼핑몰에 갈 때와는 기분 자체가 다르다. 시장은 사람과 물건의 만남이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때문에 꼭 단골집을 찾게 된다. 흥정과 에누리 문화가 사라진 시절임에도 단골집을 찾는 이유는 물건의 품질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장이 알아서 좋은 물건을 내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시장 사람들의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단골에 대한 배려다. 가게가 한가한 시간일 때는 커피믹스를 타주며 놀다가라고 붙들기도 한다. 못 이기는 척 잠시 장본 짐을 내려놓고 메도를 살피는 시간이다. 시장에 가기 전, 살 것이 무언지 미리 적어서 가면 두 걸음 할 일 없이 완벽하게 장을 본다. 시장에 가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안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아름 장을 봐온다. 그렇게 냉장고 배를 가득 채우면 한동안 식탁이 풍요로움은 물론 삶이 안정적이다.



〈그림 1〉 가좌시장 입구

우울해도 시장에 간다.

시끌시끌 역동적인 시장에 가면 확실하게 기분 전환이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마음을 다잡고 정돈도 하게 된다. 시장의 왁자함에 휩쓸려 얼떨결에 뭔가를 사 들고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기도 한다. 시장은 언제나 즐겁다. 사서 즐겁고 팔아서 즐겁다. 그러니 온통 즐거운 사람투성이다.

2. 가좌시장의 탄생

현재는 가좌2동에 소재한 가좌시장이지만 예전엔 행정구역 상으로 가좌동이였다. 뿐만 아니라 서구가 아닌 북구였다. 서구청 서구 백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좌2동>이 기록되어 있다.

1) 일반현황

(1) 연혁

- 1985. 11. 15. : 북구 가좌동에서 가좌1·2동으로 분동
- 1987. 6. 12. : 북구 가좌2동에서 가좌3동으로 분동
- 1988. 1. 1. :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
- 1990. 5. 1. : 서구 가좌2동에서 가좌4동으로 분동
- 1996. 7. 8. : 청사 신축 이전
- 1996. 7. 26. :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 2018. 1. 2.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2) 지역특성

- 서쪽으로 경인고속도로 가좌IC와 동쪽으로 철마산이 위치
- 북쪽으로는 원적산길(가좌3동)과 남쪽으로는 장고개길을 경계로 위치
-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
- 관내 가림고등학교와 가좌고등학교, 가좌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등이 위치하여 서구 지역의 신흥교육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

가좌시장의 입지조건을 보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주변상권과 더불어 손님들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변도로 상황이 다른 서구시장보다 원활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서구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013년 기준으로 점포정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⁵³⁾ 지금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강남시장 등도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 내부 지붕, 점포 및 소비자 방문통로 등을 정비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장보다 낫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하면 가좌시장 점포의 평균임대 시세는 33.058㎡를 기준으로 활성화지역의 경우 지하는 보증금 2,2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이고, 1층의 경우는 보증금 4,400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2,900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이라고 한다. 비활성화 지역의 경우는 지하가 보증금 1,2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고 1층이 보증금 2,3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1,6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라고 한다.⁵⁴⁾

필자는 서구 가좌2동이 북구 가좌동이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 한신 레아파트가 가좌주공아파트이던 1982년 가을, 최초 입주자로 들어가 살았다.

지금은 사방이 고층아파트로 뻗뻗하지만, 그때만 해도 진주아파트 1단지 딱 세 동이 14층 높이로 우뚝 서 있고, 길 건너에 야트막한 공

53)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19쪽.

54)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19쪽.

무원아파트가 있을 뿐, 삼지창 같은 수꽃을 치켜든 옥수수밭이 싱싱하던 한가한 마을이었다. 가좌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자 몇 개 안 되던 가게와 노점상이 있던 진주아파트와 가좌주공아파트 사이 골목은 사람으로 미어터졌다. 당시는 대중교통 시설도 좋지 않아 외부로 장 보러 나가기도 여의치 않았다.

세상 이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 가좌시장이 바로 그렇게 형성됐다.

필요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이 바로 가좌시장이란 말 씀이다. 무릇 모든 것의 처음이 그렇듯 가좌시장의 탄생도 보잘것없는 길거리 노점상이 대부분인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물건은 좋았다. 푸른 천막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한 트럭 분의 갈치나 고등어 혹은 꽃게를 쏟아놓으면 싱싱한 물건을 고르는 맛에 지나가던 엄마들은 발길을 멈추고 둘레둘레 쭈그리고 앉아 눈이 보배라고 실한 걸 주워 담느라 바빴다. 그렇게 그날그날 저녁 메뉴를 정해주는 가좌시장이었다. 가좌시장에만 가면 찬거리 걱정이 없으니 오후 서너시만 되면 엄마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가좌시장으로 향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도 신이 나서 따라나섰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배달 자전거가 바삐 돌아다녔다. 처음엔 주로 부식 위주로 판매하던 노점상 위주의 가좌시장이 외통수 길로 건물을 하나둘 올리면서 문방구, 옷가게, 건어물집, 떡집, 반찬집, 분식집, 고깃간, 빵집 등이 들어서고 2층엔 각종 학원들이 들어서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베이식과 도스를 가르치던 컴퓨터학원을 비롯하여, 속

샘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무용학원, 서예학원 등 다양한 학원들이 가좌시장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그때 학동들이 베 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라 학교가 폭발할 정도로 학령인구가 많던 시절이었다. 당시 가정초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 저학년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해도 한 반에 학생 수가 60명을 넘기기 다반사라 학력 경쟁도 대단했다. 사정이 그러하니 학원가가 호황을 이룰 수밖에. 학원들은 문을 여는 족족 문전성시를 이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최고점을 찍던 80년대라 사람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써댔다. 특히 2세들에 대한 투자는 거침 없었다.

학동 수나 교육열이 정점을 찍던 그 시절 아이들이 벌써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40대가 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다. 부모가 뭐든 아낌없이 투자해서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인데 그들이 막상 어른이 되자 부족한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와 맞닥뜨렸다. 하지만 흥망성쇠를 거치며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세상 이치 아니던가? 이 또한 복불복이라 여기며 받아들일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게 아닐까 싶다.

3. 가좌시장의 전설

1) 스파르타식, 123학원



〈그림 2〉 123학원이 있던 자리

가좌시장엔 지금도 입에 오르 내리는 전설의 학원이 있다.

바로 <123학원>이다. 그 학원은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들어가는 학원으로 당시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문턱이 높은 학원이었다. 모든 학부모의 동의

를 받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학원으로도 유명했다. 일단 들어가면 잘리는 걸 수치스러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악명이 높으면서도 다니는 동안 자부심을 느끼는 양면성의 학원이기도 했다. 숙제를 안 해가면 발바닥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가르치는 건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 알게 물게 입소문이 난 학원이었다. 그래 그런지 인천 전역에서 그 학원을 찾아왔다. 만수동은 물론, 송내, 시흥, 안양에서까지 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학원이었다. 한씨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학원으로 원장 한은숙 씨는 이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재원이기도 했다. 123학원은 가좌시장에서 20여 년 남짓 전성기를 누린 뒤, 2008년 즈음인가 부평 어디로 자리를 옮겼고, 123학원이 있던 자리엔 특공무술학원 들어와 있다.

<천사무용학원>이나 <서울음악학원>도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유명세를 떨쳤다. 가좌시장 입구에 있던 해동검도학원은 영화배우 나한일 씨가 원장이어서 한동안 관심이 쏠렸던 걸로 기억한다.

2) 국수 봉사로 유명한, 안산한의원



〈그림 3〉 안산한의원

또 하나의 전설은 가좌시장 초입 왼편 건물 〈서울상회〉 2층에 있던 〈안산한의원〉이다.

1987년 개원한 안산한의원은 사상의학으로 체질을 분류, 치료해서 인기를 끌었다. 개원할 당시 미혼이었던 남윤석 원장은 휘청거리는 큰 키에 선한 미소를 장착하고 이웃집 총각처럼 편안하게 환자들을 맞이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처음엔 작은 한의원이었는데 점점 규모를 늘려 물리치료실을 찾는 고질병 노인 환자들의 단골로 각

광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 점심 대접으로 국수 봉사를 매주 수요일 안산한의원에서 쭉 진행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 중도에 그만두었다. 안산한의원에서는 어르신 국수 봉사에 나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겐 연말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왕별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상품권 10장씩을 선물했는데, 그걸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드린 사람이 있었고, 그걸 받은 어르신이 안산한의원이 아닌 다른 한의원에 가서 사용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였다. 안산한의원이 무료로 시술을 한다고 해서 의료법에 저촉되었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무료 시술은 불법이라는 얘기가다.

안산한의원에서 더이상 국수 봉사를 못 하게 되자, 가좌시장 상인

회에서 이어받아 상인회 회장님 식당에서 봉사가 이어졌다. 비용은 상인회비와 시장 사람들의 찬조와 협조로 유연하게 이어졌다. 반찬가게에서는 겉절이 찬조가 들어오고, 건어물집에서는 육수용 멸치와 다시마가 들어오는 등 내 일처럼 아름다운 수요일을 준비했다. 국수 봉사 규모는 더 커져 한 번에 300~400분한테 대접하기에 이르렀다. 국수 대접은 시장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자발적인 봉사로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만 다시 끊어졌다고 한다. 가좌시장 근방에 사는 어르신치고 수요일 국수 봉사에서 국수 한 번 안 드신 분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전설이 돼버린 매주 수요일 국수 봉사가말로 가좌시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까 싶다.

3) 주공복합상가, 추억의 떡볶이

가좌시장 동문 끝에 있던 주공복합상가 떡볶이도 전설이다.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와 있는 5층 건물이 바로 그 자리다. 주공복합상가에 들어서면 바로 떡볶이집과 마주치는데 가좌2동 사람치고, 특히 당시 아이들치고, 거길 모르면 간첩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처에 가좌초등학교와 가정초등학교가 있어, 학교가 파하면 아이들이 너도나도 달려가, 오후가 되면 복합상가 떡볶이집은 꼬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고추장을 푼 물에 밀떡을 떼어 넣고 설탕이랑 다시다를 들어부어 끓이는데,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저 오래 끓일 뿐인데,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밀떡볶이가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아, 연신 물을 들이켜면서도 씹씹대며 전투적으로 떡볶이를 먹곤 했다.

주공복합상가엔 곰보아쭈마도 있었다.

그녀는 떡볶이집 건너편에서 분식집을 했는데, 매일 점심때마다 한 총각이 밥을 먹으러 왔다. 무슨 사연인지 곰보아쭈마는 그 총각에게

비빔밥을 손수 비벼주고는 총각이 밥을 다 먹으면 식대도 안 받은 채 돌려보내곤 했다. 허여멀끔하게 생긴 총각이 어찌 빌어먹나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총각은 가벼운 뇌성마비 장애우였다.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매일 점심을 먹게 해주고 나중에 계산한다는 사연을 듣고 곰보 아줌마가 다시 보였다. 장애 아들 점심을 부탁할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상부상조하고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 한동안 자주 출입했던 기억이 난다.

가좌시장에 가면 시절인연으로 스치고 간 사람들이 그림다. 인정 많은 곰보아줌마가 그림고, 온종일 양푼을 끌어안고 밀떡볶이를 떼어 내던 절름발이 아줌마의 안부도 궁금해진다. 그녀들이 있어 중년이 된 아이들은 지금도 밀떡볶이 맛을 그리워하며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서성대는지도 모른다.

가좌시장 끝자락 주공복합상가에는 아이들이 환호하는 밀떡볶이집이 있었다. 처음엔 하나였다가 나중엔 두 개가 나란히 장사를 하던 떡볶이집이 있었다. 아이들이 워낙 몰려들어 두 집 다 장사가 잘됐다. 두 집 다 간판이 없어 이름 없는 가게로 이미 오래전에 가좌시장의 전설이 되었지만, 2023년 현재, 나이 마흔 이쪽저쪽으로 가좌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선명하게 기억할 추억의 명소로 꼽힐 명소다.



〈그림 4〉 주공복합상가가 있던 자리

4) 자신만만 오픈형 주방, 홍두깨 칼국수



〈그림 5〉 홍두깨 칼국수

원래는 <진주만두>였고 지금은 <홍두깨 칼국수>로 상호가 바뀐 분식집도 가좌시장의 전설로 40년을 바라보는 오래된 점포다.

애초에는 진주아파트 라이프 상가에서 시작했으나 이내 가좌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형제가 함께 하던 분식집이다. 90년대엔 돌솥비빔밥과 열무국수가 시그니처 음식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홍두깨 칼국수가 대표 음식이 되었다. 가게 앞에서 직접 반죽하고 홍두깨로 밀

어 썰고 끓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픈형 주방이 이 식당의 커다란 특징이다. 오픈형 식당을 하는 건 그만큼 실력과 위생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다. 사람들은 자리가 나길 기다리면서 칼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구경한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묘기대행진’을 보는 듯하다. 입구에서는 칼국수뿐 아니라 만두도 함께 빛난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구경하는 아이들을 구경하는 맛도 재미지다.

필자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주로 쫄면을 시킨다. 70년대 초반 인천에서 실수로 탄생한 쫄면도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이젠 먹을 곳을 찾기 어렵다. 웬만한 분식집은 메뉴에서 아예 삭제해

찾을 수조차 없다. 이따금 맵고 달고 질긴 쫄면이 그리울 때는 먹을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한다. 다행히 가좌시장 홍두깨 칼국수엔 쫄면이 메뉴에 올라가 살아 있다. 게다가 아주 맛있게 살아 있어 쫄면 맛집으로도 통한다. 돈까스도 좋고, 칼국수도 좋고, 냉면도 좋지만, 유난히 쫄면이 먹고 싶은 날이 있다. 그럴 땐 가좌시장으로 향한다. 단지 쫄면을 먹기 위해 집을 나선다.

가성비 좋은 착한 가게, 홍두깨 칼국수는 다른 동네에서도 원정을 올 정도로 유명하다. 어느 날 미추홀구 비즈니스고등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느 모녀가 나누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됐다. 그 모녀는 가좌시장 홍두깨 칼국수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이 말했다.

“그 집은 무엇보다 직접 담근 배추겉절이가 최고야.”

엄마도 맛장구를 쳤다.

“사실 나도 입맛 사로잡는 그 집 겉절이 때문에 칼국수를 먹는 거야. 딴 것도 먹고 싶은데 겉절이를 즐기자면 칼국수가 딱이거든.”

한국 사람한테 김치는 정말 중요한 반찬이다. 입맛이 없을 때 맛난 김치 하나면 집 나간 입맛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셀프바가 있어 직접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가져다 먹는 시스템도 좋다. 그 집엔 배추겉절이와 알맞게 익은 열무김치나 석박지 혹은 무채김치가 셀프바에 늘 상비되어 취향에 따라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된다. 언젠가 배춧값이 다락같이 올라 김치가 ‘금치’이던 시절엔 정말이지 맛있는 김치 실컷 먹으리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했다. 필자도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 학생이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칼국수값보다 내가 반찬으로 먹은 김치가 더 비쌀 텐데 멈출 수가 없네. 그래도 눈치를 안 줘서 좋고.”

지금은 6천 원인 칼국수가 4천 원 하던 때였다. 벽에는 이런 글귀만

붙어 있었다. <김치는 마음껏 드시되 제발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남기시면 벌금 천 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는 칼국수집이 아니라 ‘김치’집이었다. 집에서 못 먹는 김치, 칼국수집에서 싣 먹는 해프닝이 가좌시장 <홍두깨 칼국수>에선 가능했다. 그 집은 요즘도 점심때는 만원이라 합석을 해야함은 물론, 웨이팅이 거의 필수다. 손님이 많아 음식재료 회전이 잘 되니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더욱 믿음이 가는 전설의 분식집이라 하겠다.

5) 우뚝가사리로 만든 묵, 우무

여름이면 미숫가루를 만들어가던 <태평선식>에서 계피가루를 산다. 커피믹스에 계피가루를 타서 마시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다. 계피가루를 건네받자 건너편 손두부집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보였다. 아아 우무!

신포시장에나 있는 우무를 가좌시장에서 만나던 날 얼마나 기뻐던가?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우무가 눈에 띄면 무조건 산다. 양념까지 함께 포장해주니까 집에 가서 비비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이다. 게다가 우무야말로 인천의 맛있고 추억 아니던가?

우무는 바다 식물로 우뚝가사리로 만든 투명하고 탄력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채 썰 오이, 당근과 함께 초고추장에 비벼먹으면 상큼하게 입맛을 돋우는 우무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지만 소주 안주로도 일품이다. 그래 그런지 인천 출신으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우선덕 소설가는 인천에만 오면 우정 신포시장에 가서 필히 우무를 사간다. 나는 가좌시장에서 산다. 맛있게 배만 부르고 칼로리가 없어 살이 안 찐다는 우뚝가사리로 만든 묵, 인천의 전설, 우

무를 들고 흔들흔들 가좌시장을 걸어간다. 매콤, 새콤, 달콤한 기분으로.

우무와 쫄면은 양념의 맛과 색깔이 비슷하지만, 우무는 묵이라 부드럽고 쫄면은 찰고무처럼 질기다. 점심으로 질긴 쫄면을 먹고 저녁 반찬은 부드러운 우무를 택한다. 이런 날은 잠도 부드럽게 잘 올 것이다.

6) 발의 관성, 뚱보정육점



〈그림 6〉 뚱보정육점

가좌시장에 가면 〈뚱보정육점〉에서 찌개용 돼지고기부터 산다.

김치찌개에 넣은 소포장 돼지고기 팩을 욕심껏 사면 시나브로 마음이 든든해진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쓰면 되니 넉넉히 사도 문제없다. 오래전부터 뚱보가 보이지 않는 뚱보정육점이다. 문득 뚱보 소식이 궁금해 오랜 단골임을 상기시키며 문자 현재는 뚱보 형수가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뚱보정육점은 가좌시장 초

창기부터 있던 가게다. 그동안 뚱보가 보이지 않음에도 굳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김유신의 말처럼 발이 절로 이곳으로 향한 때문이다. 서라벌 제일의 미녀, 천관을 좋아했던 김유신이 어느 날 술에 취해 줄다

보니 그의 말이 천관의 집 앞에 데려다 놓았듯이 비록 뚝보가 없어도 상호가 그대로니 그가 하는 가게인가보다 믿고 왔던 게다. 그러니까 사람을 단골집으로 이끄는 건 머리가 아닌 발의 관성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크고작 은 정육점이 많이 생겼지만 뚝보정육점은 가좌시장의 전설로 남아 단골의 발을 이끈다.

7) 속 깊은 철마방앗간도 전설이다



〈그림 7〉 철마방앗간

한 여인이 지루하다.

속 깊은 가게에 앉아 조는 듯 꿈꾸는 듯 홀로 앉아 있다. 〈철마방앗간〉이다. 여름에는 김치듬글 물고추 빵는 이, 추석이면 송편 빚을 쌀 빵는 이, 시월상달이면 고시 지낼 시루떡 맞추는 이, 연말이면 가래떡 뽑는 이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방앗간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조니 기장이니 팔이니 잡곡봉지들과 온갖 젓갈들이 입구에 즐비할 뿐이다. 모름지기 시장이면 방앗

간 하나는 있어야 하는 법, 하품을 깨물고 자리를 지키는 여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시절 따라 품목이 바뀌는 참기름, 들기름 짜고 고춧가루나 빵으면서 방앗간을 지킨다는 여인이다. 21세기에도 방앗간이 꼭 필요한 어떤 이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여인이 아름답다. 때문에 가좌시장 철마방앗간은 전설일 수밖에 없다.

4. 가좌시장 터줏대감 <크로커다일> 박상근 사장을 만나다

2023년 9월 13일 오후 가좌시장 오래된 가게를 찾아갔다. 가좌시장 팔도건어물에서 소개해준 의류점 <크로커다일> 박상근 사장이다. 차분하고 푸근한 인상이라 편안하게 인터뷰가 진행됐다.

“가좌시장에서 개업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요?”

“아마 30년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훌쩍이라면 얼마나……”

잠시 기억을 더듬어본 박 사장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얘기했다.

“34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34년 전 가좌시장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대로 들려주실 수 있을는지요?”

박상근 사장은 옛날얘기보다 현실적인 답답함이 먼저 떠오르는가 보았다.

“여기가 한신희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인구가 많아져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망가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돼 우리 상인들 너도나도 고민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이유를 묻자 뜻밖이 대답이 나왔다.

“코로나 때 손님들 출입도 적었거니와 다들 손님이 없으니 문을 일찍 닫았는데, 그때 그렇게 길이 들어서인지 코로나 팬데믹에서 해방되어도 상인들이 문을 일찍 닫아서 문제입니다. 자기 가게 자기가 알아서 일찍 닫는데 뭐랄 수도 없고요.”

58년 개띠라는 박 사장은 옛날 사람이라 오픈 시간이 길어야 안심할 수 있고, 세대교체가 이뤄져 젊은이들이 이어받은 가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따지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실제로 박 사장 가게는 오전 10시경 문을 열어 영업을 하다 오후 5시경이면 부인이 나와 업무

교대를 하고 저녁 8시 반쯤 문을 닫는다고 한다. 더 문을 열고 있고 싶어도 대부분 문을 닫아 시장이 온통 캄캄하니 의미가 없다는 거였다.

“예전에 장사가 잘될 때는 매장 판매원을 썼는데 이젠 집사람과 둘이 교대로 지키지요. 수입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둘이 일해서 집사람 인건비 정도 떨어지겠지요. 코로나 시절엔 옛날에 벌여놓은 거 까먹으며 견뎌했습니다. 우리만 해도 이왕 하던 거니까 그럭저럭 꾸려나가는 거지 새로 창업한다면 언감생심 어렵겠는 일이지요. 앞으로 3~4년만 더하고 그만 손을 뗄 생각입니다.”

크로커다일은 규모가 큰 편이라 월세도 많이 나갈 것 같았다. 혹시 건물주가 아닐까 싶어 여쭙어보니 그건 또 아니었다.

“34년 전, 여기서 장사를 하던 친구가 한번 와보라 해서 왔더니 그 친구 가게 앞에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시장통 중간중간은 건물이 끊어지고 노점상이 있었죠. 그때 저는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있게 권하는 바람에 덜컥 계약을 하고, 건물이 완공된 뒤에 들어와 장사를 하다보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인연이지요.”

그 친구분 가게를 문자 지병으로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여기는 동네 시장, 송림동 현대시장은 대형 깡시장이었는데 이젠 저기나 여기나 똑같아졌네요.”

무슨 말씀인가 여쭙었더니 송림동 현대시장도 동네 시장이 돼버렸다는 뜻이었다.

“여기는 외통수 길이라 손님이 흠어지지 않아 좋고, 상인회에서 행사 유치를 잘해서 좋아요. 이젠 인천 대표 전통시장이 돼서, 명절이면 인천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등이 단골로 다녀가는 곳으로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서 34년 넘게 장사를 했고, 이제 몇 년 후면 은퇴를 하겠다는 박 사장은 가좌시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철철 넘쳐흘렀다. 시장 상인으로서 애로사항을 묻자 망설일 것도 없이 두 가지가 튀어나왔다.

“주차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프죠. 손님들의 불만 사항 중 탑이 주차장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답이 없다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통 천장에 씌운 아치가 10년이 넘으니 군데군데 새는데 구청에서 손을 봐준다 하고는 아직이라 비가 오면 손님들이 불편할까 봐 걱정입니다.”

시장에 아치로 지붕을 얹은 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기에 상관없이 이용하기가 수월해 좋았는데 손볼 때가 되었나 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 풍광 좋은 곳마다 둘레길이 생기면서 산책의 편의를 위해 요소 요소에 목책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10여 년이 지나자 노후돼 사용금지 팻말을 붙인 걸 종종 보았다. 전통시장 지붕도 그와 마찬가지로 노후돼서 다시 예산이 들어갈 시점이 도달한 게다. 모든 예산은 한번 투입해서 끝나는 일이 없다. 한번 시설을 마련하면 꾸준히 살피고 보완해야 하니 말이다.

“시장은 늘 점포와 노점상 사이의 알력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 그거요. 우리 가좌시장은 이제 노점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보시다시피 입구에 몇 개 남았을 뿐, 시장통 상가 앞에는 없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잘해서 노점상이 대부분 사라지니 당연히 다들 일이 없지요.”

그래도 <사랑의 약국> 앞 생선 노점상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있던 가좌시장의 거의 상징적인 노점상이다. 5년 전, 그 생선 노점상 아저씨께 여쭙어본 적이 있다. 그동안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힘든 노점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그분은 허허실실

말했다.

“내 지갑이 훤히 비치는지 돈만 모이면 빌려달랍니다.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는 말 아시죠? 바로 그 짝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일하니 나가는 돈 없고 배짱 편해 좋습니다.”

생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젠 눈 감고도 아는 생선도사가 되었다는 남자. 힘들게 번 돈을 몇 번씩이나 남의 입에 털어 넣고도 여유롭게 웃는 남자. 저이야말로 시장에서 익어간 인생이 아닐까싶었다. 익숙한 솜씨로 갈치를 탁탁 토막내고 소금을 훌훌 뿌리는 소손길에서 비린내 대신 미더운 장인의 향기를 느꼈다. 노점상도 성공하는데 점포를 가진 이들은 얼마나 재미를 봤을까싶어 박 사장께 물었다.

“가좌시장 초창기 상인들은 한밀천 쳇갸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실제로는 어땠는지요?”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빈 가게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번성한 시장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가좌시장은 ‘땀다방’이 뜰 정도로 들썩이던 곳이었습니다.”

“제일 돈을 많이 벌어 나간 업종은 무엇일까요?”

“문방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도 많고, 애들도 많고, 준비물도 많아 문방구에 애들이나 엄마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저쪽 프라자상가 쪽에 있던 문방구는 오래전에 돈 벌어 나갔고, 이쪽 모닝글로리는 아직도 여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아 추억의 문방구, 문방구가 번성하던 시절도 있었구나. 시장 안에서 흐르는 역사를 반추하자니 사람의 역사 시장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로 연결되는 거였다.

아닌 게 아니라 가좌시장은 이가 안 빠진 시장이다. 2층은 어떤가 몰라도 1층 시장길은 어디 한 집 문을 닫은 걸 본 기억이 없다. 코로

나 이후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해도 여전히 흥성거리는 시장길, 박 사장이 박을 내다본다. Y셔츠 앞깃 사이로 뭔가가 반짝인다. 로커들의 상장이 돼버린 순금 목걸이다.

“아, 이거요? 집사람이 생일선물로 해준 겁니다.”

가좌시장 건너편 현대아파트에 산다는 박 사장은 부끄러운 듯 목걸이를 옷 속으로 감춘다. 그에게서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보인다. 단골 손님이 들어와 주문해 놓은 옷을 찾아간다. 두 사람의 대화가 더없이 친근하고 경제적이다. 20년 단골은 저런 거구나. 긴말이 필요 없는 손님과 상인. 서로에 대한 신뢰가 쓸데없는 말의 낭비를 막는구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더니 시장통에서 또 한수 배운다.



〈그림 8〉 크로커다일 사장님

5. ‘스타점포’가 있어야 시장이 뜬다

가좌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은 건 2023년 6월 20일이다.

가좌시장 이찬관 상인회장을 만나기 전에 그에 관한 기사를 먼저 찾아보았다.



〈그림 9〉 이찬관 상인회장님

먼저 2018년 11월 4일 중부일보에서 인터뷰한 기사에 의하면 가좌시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점심에 국수를 무료로 대접하는 행사가 있다고 한다. 이때 한 번에 300~400명의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는데 7년 전부터 가좌시장에 있는 대창구이집이 터를 잡으면서 입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뒤에는 이찬관 가좌시장 상인회장이 있는데 그는 상인들로부터 재료와 식기 등의 지원을 받거나 배식 봉사를 통솔한다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봉사에 대해 이찬관 상인회장은 어르신들이 잘 먹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며 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듣던 대로 안산한의원원에서 시장상인회로 옮겨지면서 국수 봉사가 더 확대되었나 보다.

시장 중간 지하에 있는 만화카페도 낫설지 않다. 이 공간은 중부일

보 2018년 11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이찬관 회장이 서구 5개 전통시장 중 최초로 골목형 사업을 이끌어내면서 만든 복합공간이다. 여기서 이름 없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누구든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천 원에 팔았는데 이는 골목형 사업을 위한 운영비를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 원에 책을 마음껏 읽고 따뜻한 곳에서 시간 제약없이 쉴 수 있다고 한다.

다부진 체계에 왕성한 의욕을 장착한 이찬관 상인회장은 단단한 외모와 탄탄으로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지나치는 길손이 보기도 든든한 보스의 풍모를 풍기는 사람이다. 중부일보 2018년 11월 4일 기사에 의하면 그가 이끄는 가좌시장은 앞선 노력 끝에 단체장관상을 수여했고 앞으로는 상설공연장을 예술인들이 재능을 기부하거나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하였다. 중부일보 2018년 11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지 상인들과 고객들 사이에 정이 통하여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앞의 날짜 중부일보 기사에서 회장을 그만 둔 후 자신의 뒷모습에 상인들이 무언의 감사와 아쉬움의 박수를 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였다.

가좌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시장 중간 골목 공용화장실이 있는 건물 2층에 있었다. 이찬관 상인회장의 사업장은 사무실 들어오기 바로 전 건물에 위치한 <불타는 대창구이>였고. 바로 거기서 국수 봉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고 한다. 인사로 상인회장의 <불타는 대창구이>가 잘 되는가부터 물어보았다.

“20년 전부터 대창구이를 했는데, 골목에 숨어 있는 가게지만 많이들 찾아주셔서 그럭저럭 되는 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불타는 대창구이>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한 곳이라 여러 블로거가 로컬맛집으로 올려놓았다. 홍어를 곁들인 삼겹살이 최고라면서도 김치와 깻잎장아찌 그리고 번데기를 어찌나 찬양하던지 필자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찜해두었다. 하고많은 메뉴 중에 어찌다 대창구이를 택했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그 사연이 또 재미있다.

“제가 원래 막창을 좋아해서 동암역 쪽에 있는 생막창집을 애용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런데 서울 황학동 육촌 형님 제사에 갔다가 곱창 골목에 가서 먹을 기회가 생겼지요. 어찌나 맛있던지 이거 내가 해야겠구나 막바로 마음먹었습니다.”

“멀쩡히 직장 다니시다 갑자기요?”

대기업을 다니던 그가 때마침 황퇴(황당한 퇴직)를 당한 시기였다. 다만 밀도 끝도 없이 식당을 차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충남 청양에서 국밥집을 하셨기에 식당은 제게 낯선 세계가 아닙니다.”



<그림 10> 불타는대창구이

사람이 무엇에 쫓힐 때는 다 그만한 이유에 앞서 그만한 내공이 있게 마련인데 깜빡했다. ‘밀도 끝도 없이’란 실례의 말은 회수할 수밖에. 그리고는 시장 얘기로 들어갔다.

“가좌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요? 1차식품이지요. 간식, 반찬류 등등이요. SNS시대라

핫한 가게가 오픈하면 고객이 알아서 몰려옵니다. 요새는 <와!구이닭>이 인기입니다. 시장도 스타점포가 있어야 하지요. 사람들이 줄서서 사가는 곳이 있어야 기다리면서 다른 데도 눈을 돌리니까요.”

스타점포?

그렇듯하게 뒤통수를 치는 단어다. 이젠 시장에도 스타가 있어야 하는 시절이다. 가좌시장엔 예전에도 스타점포가 있었고 지금도 면면히 스타점포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을 달리하거나 혹은 같이하면서.

이찬관 상인회장은 가좌시장상인회에 야구팀이 있는 걸 큰 자랑으로 여겼다. 야구팀은 젊은 사람이 있어야 형성되는데 가좌시장엔 대를 이어서 하는 상인이 많다는 거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덧붙였다. 소상공인이 대를 이어서 하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어야 신이 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어쨌든 시장이 젊어졌다니 다행이다. 시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환하고 데코레이션이나 진열이 세련된 것도 젊어져서 일 것이다.

가좌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으로 2021년에는 <다다익선> 캠페인을 했다. 그 뜻은 결제수단으로 ‘다’ 받아주고, 가격과 원산지 ‘다’ 표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고객은 유‘익’하게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착’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2021년 연말엔 가좌시장 굿바이 그랜드 세일도 했으며 이찬관 상인회장이 덧붙였다.

“가좌시장은 현재 140여 개의 점포가 있는 중형시장으로 연속 2회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고, 다양한 혁신사업과 문화공연, 우수점포 선정 등을 추진하면서 더욱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림 11〉 2023년 추석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가좌시장

가좌시장 상인회장으로서 가좌시장의 전망이 어떤지 물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이 신도시 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구도심 개발할 때, 핫한 플레이스에 영화관도 만들고, 유명 맛집도 몇 개를 집어넣고, 즐길 거리 등 테마가 있는 장소를 만들어 사람이 몰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업종이 무언가도 궁금했다.

“아무래도 축산물시장이 가까운 가좌4동에 있다 보니까 고기와 연관된 업종이 많습니다. 정육이 단가가 세니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좌축산물시장도 가봐야겠구나 생각하며 가좌시장 2층에 있던 〈청년몰, 소금꽃 빌리지〉에 관한 소식을 물어봤다. 2016년 봄 서구청에서 야심차게 밀어준 〈청년몰, 소금꽃 빌리지〉가 궁금해 다녀온 기억이 나서다.

“아, 그거요? 원래 1차 사업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는데, 2차 모집에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 12〉 가좌시장 청년몰 입구

다시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에 <청년샵, 소금꽃 빌리지>로 향한다. 반짝이는 눈빛의 청년들 5명이 각자 다른 아이디어로 샵을 경영하던 곳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장에 온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2층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청년답게 홍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고, 짬짬이 전단지도 돌린다고 했다. 구청에서도 홍보해주고 시장사무실에서 방송도 해주니까 차차 좋아질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던 그들 모습이 눈에 선했다. 플리마켓을 열어 손님이 500명도 넘게 다녀갔으며 자랑도 했다. 구청에서 점포 임대료와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줘서 이들 청년 사업가의 창업 비용은 평균 500만 원 정도였다.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름이 소금꽃 빌리자라 불가마찜질방인 줄 알고 올라오는 분도 있다며 웃던 청년들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사람들 걸음이 너무 빨라요. 이왕 2층에 올라오신 거 천천히 돌아보시면 좋을 텐데 손에 짐이 있어서인지 휙 돌아보고 급히 내려가셔서 속상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좋아지니까 기다려야죠.”

“시장 상인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 가게가 알려지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시

간이 필요하니 끈기있게 기다려야죠.”

관심 없는 사람은 15초면 나가는 그곳, 소금꽃 빌리지 5인의 청년 사업자들이 저마다 색다른 재주를 장착한 채, 15초에 청춘을 걸었던 그곳을 향했다. 그런데 2층에 올라서 왼편으로 들어서자 어쩐지 익숙한 향내가 끼쳤다. 가게에 진열된 향초니 소품도 낯설지 않았다. 7년 만에 찾았건만 아직도 그곳을 곳곳이 지키고 있는 청년사업자는 CEO 전윤이 씨였다. 은은한 향기와 아기자기한 향초가 가득한 캔들 공방 <별사탕팩토리>는 옛 모습 그대로 여기가 바로 거기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어찌나 반갑던지?

“사업이 종료돼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어요. 사업장과 사업내용도 확장했구요. 전에는 캔들공방만 했는데, 이젠 학교 대상으로 출강도 하고, 천연 DIY 패키지도 판매하면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길을 걸어온 연륜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스러운 7년을 통과했으니 내공이 생길 만도 하겠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자생하고 있는데 ‘공방 나부랭이’ 소릴 들을 땐 기운이 쭉 빠졌지요. 그땐 ‘정신승리’로 버텼습니다. 이젠 알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관계 협회랑 아트센터와도 연결되고, 저랑 일한 곳들이 만족도가 높아 계속 재계약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돈도 좋지만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마흔이나 됐을까 싶은 전윤이 대표, 아직도 소녀 같은 모습의 그녀한테도 시장 물이 들긴 들었나 보다. 돈보다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고 싶다니! 아무튼 <별사탕팩토리>라도 남아 있어서 더욱 반가운 청년샵이었다.



〈그림 13〉 청년몰, 별사탕팩토리

다리도 쉴 겸 지하 만화카페로 내려간다. 만화를 보며 음료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데 여기 커피 맛이 또 일품이다. 가좌시장에서 자체개발한 로스팅 커피로 ‘2018 인천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어 맛을 검증받았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만화카페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사랑방 역할은 물론 다양한 공연, 전시 등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화시장의 중심이자 가좌시장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니 놀라운 일이다. 만화와 시장의 콜라보레이션,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말이다.

가좌시장은 동문과 서문 양쪽 입구에서 만화 캐릭터 ‘캥돌이’가 반긴다.

캥거루는 뱃속에 아기를 넣고 다니는 동물로 모자간에 애착이 심한 동물이다. 부모자식이 손잡고 함께 놀러오는 시장, 볼거리 많고 살 것 많고 먹을 것 많아 신나는 시장, 정찰제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물가를 배우는 시장, LED조명으로 더욱 밝고 환해진 시장, 작고 동그란 간판들이 사랑스러운 가좌시장에선 장바구니에 뭘가를 듬뿍 담아 준다고 한다. 그게 뭘가 물었더니 정과 덩이라나? 뿐만 아니라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란다. 그건 각자의 몫이겠지만 공짜로 담아가라니 그제 좋지 아니한가? 가좌시장이 부른다. 그럴 땐 달려가야 한다.

(인천 가좌시장은 인천지하철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1번 출구에서 974m에 위치한다. 고객지원센터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 18-19. 전화는 032-584-5006. 팩스는 032-584-3458이다.)



〈그림 14〉 만화카페 입구



인우와 천돈이 있는, 인천축산물시장

- 1 인천축산물시장 프로필
- 2 착하고 아름다운 자매식당
- 3 열우물경기장 주변
- 4 흥미진진 야시장
- 5 경기권에 유일한 도축장
- 6 코로나 립스틱

김진초 (소설가)

V. 인우와 천돈이 있는, 인천축산물시장

1. 인천축산물시장 프로필

인천 최대의 특화시장 <인천축산물시장>은 인천 서구 가좌로 96번길 35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도축장이 들어선 이후 자연스럽게 정육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1982년 시장이 개설됐다. 2005년에는 축산물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도축장을 끼고 있어 매일 신선한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산 소, 돼지의 정육 및 부산물을 신선한 양질의 상태로 공급하는 인천 유일의 축산물 전문시장이다.



<그림 1> 인천축산물시장

인천축산물시장 위치를 쉽게 설명하자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로 건설한, 마치 우주 기지처럼 생긴 돔형의 <열우물경기장> 건너편에 있다. 가좌 IC에서 차량으로 3분,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에서 도보로 5분, 마음만 먹으면 이용하기 수월하다.



〈그림 2〉 열우물경기장

이러한 축산물 시장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축산물 시장은 서구 내 유일한 업종이 전문화된 시장으로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조성되어 있다. 축산물 시장이 있는 곳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공사는 물론이고 아시아드경기장이 있는 곳에 있다. 또한 주변에 6차선의 대로변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주로 도소매업을 하는 축산물 취급 상인들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축산물시장은 도축장을 끼고 있는데 이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 마장동에 도축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인천축산물시장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또한 인천축산물시장은 2005년에 서구청에서 축산물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 상점이 150여 곳이고 식당을 포함해 16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축산물시장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지정을 받은 전문 도축업체들이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축산물을 도축하고 있다.⁵⁶⁾

55)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18쪽

56)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18쪽

2013년도 쓰인 논문에 따르면 “축산물 시장내 주차장이 협소하고, 시장내부 점포와 점포사이가 상당히 협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건립된 축산물 취급 축산백화점이 7층 규모로 하여 지하층과 4,5층에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주변에 구입한 축산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으나, 서울 마장동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다.⁵⁷⁾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금은 대부분 고쳐진 상태로 보여진다.

2012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축산물시장 인근 가좌1동 점포의 평균임대 시세는 33.058㎡를 기준으로 활성화 지역의 경우 지하는 보증금 2,700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이고, 1층의 경우는 보증금 4,400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3,400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이라고 한다. 비활성화 지역의 경우는 지하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이고 1층이 보증금 1,7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1,3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라고 한다.⁵⁸⁾

이러한 축산물 시장은 2017년에는 숙원사업이던 주차장도 건립했다. 밝고 화려한 색상의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은 전면 디자인 패널에 LED조명을 설치해 주차장을 찾기 편함은 물론 세련된 외관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인천축산물시장에는 축산물백화점도 있다. 인천축산물백화점은 냉동시설을 갖춘 7층 규모로 다양한 육류와 부산물을 판매하는 도매

57)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18쪽

58)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18쪽.

업체가 모여 있어 특수부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 그런지 인천축산물백화점에 들어서면 건물 전체가 냉장고인 듯 한여름에도 찜늘하다.

인천축산물백화점 앞, 인천축산물시장 바로 옆에 도축장이 있다. 도축장은 외부인 출입 금지다. 뭔가 비밀스럽고 엄숙해 아주 신성한 작업을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시장 곁에 도축장이 있어 고기와 기타 부산물이 바로 공급하니 신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겠다.



<그림 3> 인천축산물시장 도축장

2. 착하고 아름다운 자매식당

때마침 점심때라 인천축산물시장 한가운데 자리한 <자매식당>을 찾아갔다.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삼삼오오 식사를 하고 있다. 오래 전 와봤던 곳이라 물어 물어 찾아왔는데 역시나 가격이 착하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은 잔치국수도 6,000원이 기본인데, 뷔페식 한식이 일 인분에 5,500원이다. 김치콩나물국도, 고등어조림도, 찌릿도, 오징어젓갈도 다 맛있어 착한 가격에 감동하고 아름다운 맛에 또 한번 감동한다. 온종일 고기를 만지는 시장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여서일까? 음식 맛이 아주 정직하고 깔끔하다. 그래서 좋다.



〈그림 4〉 자매식당 내부

3. 열우물경기장 주변

원래 인천축산물시장 건너편, 그러니까 여우고개 입구 열우물경기장이 있는 곳은, 예전에 길가에 짬뽕 허름한 식당들이 나래비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이학식당>이다.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한때 그곳에선 소 머릿골이나 등골을 먹으러 다니던 사람도 있

었다. 기와를 인 아트막한 전통 민가를 식당으로 개조해, 건너편 도살장에서 받아온 싱싱한 축산물로 호사가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던 이학식당을 열우물경기장이 꼴딱 삼켜버렸다. 밥때가 되면 이학식당 마당에 자가용이 즐비하고, 얼큰하게 술 오른 사내들이 담배를 물고 담소를 즐기던 곳이 온종일 묵묵부답, 인적이ra곤 없다. 운동보다 음식이 더 사람을 불러모으는지, 식당들을 몰아낸 뒤론 인적이 뜸하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협진축산>, <신신종합축산>만 시끌시끌하다.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자리를 옮긴 <영광집>은 곱창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는데 이학식당은 어디로 자리를 옮겼는지 종적을 알 길이 없다.



<그림 5> 대로변 신신종합축산 내부

4. 흥미진진 야시장

인천축산물시장 상인회에 들러보니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지난 주(2023년 9월 8일 17:00~22:00)에 야시장이 열렸고, 다음 달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한다. 테이블을 400개나 마련한 <흥미진진 야시장>은 아주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Rock 버스킹, K-Pop, K-Classic, EDM Party 등의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200만 원 경품 이벤트가

준비된 행사는 많은 참여가족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IBK 기업은행 희망디자인 사업으로 낙후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선정됐다. 전국에서 1년에 하나만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금년엔 인천축산물시장이 선정돼서 시장 거리 천장에 조명을 설치했다.

5. 경기권에 유일한 도축장

인천축산물시장은 대부분 오래된 가게들인데, 대를 이어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 3대째 하는 상점들도 많다. 기본이 2대다. 예스러운 간판인 곳은 1대가 운영하는 곳이고, 트렌디한 상호를 가진 가게는 2~3대가 이어받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경우다.

“혹시 발골 작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하나요?”

몽골에서 만났던 현지인 남자가 한국의 정육점에 취직해 발골 작업 3년 만에 울란바토르에서 아파트를 샀다고 한 말이 생각나 물어보니, 펄쩍 뛴다.

“여기는 대부분 사장님이나 자제분이 직접 발골 작업을 하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산단 쪽에서 일하지요.”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도축장이 있는 축산물시장이라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리고보니 작년 가을 영흥도에서 고깃집을 하는 친구 집에 갔는데 부재중이었다. 물건 떼러 인천 십정동 도살장에 갔다는 거다. 인천축산물시장은 처음에 십정동 도살장으로 불렸다. 인천 사람은 영흥도로 가고, 영흥도 지인은 인천으로 고기 떼러 가고, 서로 엇갈렸던 것이다. 장사를 하는 친구가 가게를 비울 줄은 몰랐다. 가면 당연히 있겠거니 여겼는데 그렇게 어긋났던 것이다. 영흥도 친구가

인천축산물시장으로 물건을 떼러 다니는 줄은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다.

6. 코로나 립스틱

인천축산물시장 중간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섰다. 88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문을 열어 <88축산>으로 이름 붙였다는 가게다. 오후 1시경이라 한가한 시간인지 주인장 이경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며 뭐든 물어보라 했다. 마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래도 하수시설이 잘돼 물이 고인 곳은 없었다. 옛날엔 길이 어땠는지 궁금했다.

“옛날엔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 다들 장화를 신고 일했지요. 지금 이야 길도 좋고 조명도 좋고 쾌적하지요.”

그런데 가게 안에 고기가 별로 보이지 않아 이상했다.

“다 있지요. 전면 쇼케이스에는 전시용으로 조금 놓고 진짜배기는 안쪽 냉장고에 보관해요.”

요즘 경기가 어떤가 묻자 지금보다는 옛날이 한결 좋았다는 반응이다.

“요새는 다들 대형마트에 가서 소포장으로 사잖아요? 핵가족을 넘어 일인가구가 늘면서 사실 고기를 많이 살 일도 없고, 먹어도 나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어느 땐 그제 싸게 먹히니까요. 그래도 여기는 단골장사라 꾸준하게 되는 편이에요.”

혹시 오소리감투가 있는지 묻자 그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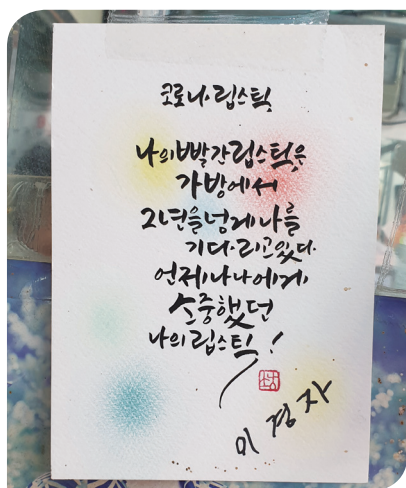
“그런 건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요. 그래서 재고가 없는 편이지요.”

이경자 씨가 벽으로 눈을 돌린다. 뜻밖에도 시가 붙어 있다. 캘리그라피로 사랑스럽게 쓴 시다.

“이거 내가 쓴 시예요.”

주인장 이경자 씨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환하다. 제목은 <코로나 립스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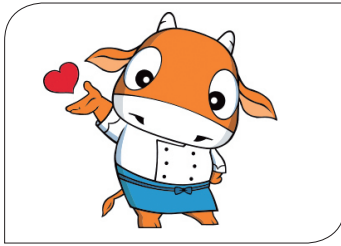
<인천축산물시장>과 <88축산>과 <코로나 립스틱>의 조합. 코로나 시절 2년 넘게 팬데믹에서 해방되길 기다리던 소망에 빨간 립스틱이라는 소품을 등장시켜 시화(詩化)한 작품이 짧고 명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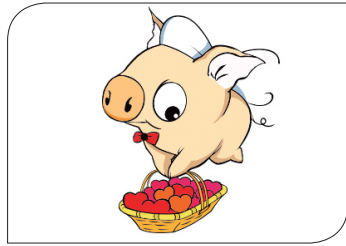
〈그림 6〉 코로나 립스틱

코로나 시절을 지나온 88축산 이경자 씨의 목소리는 명랑하기 그지없다. 인천축산물시장 상인과 고객도 명랑한 목소리로 흥정을 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가끔은 좋은 사람들끼리 고기를 씹으며 인생을 논하는 것도 좋지 아니한가?

시장을 걸으면서 돼지머리, 소머리, 내장들을 본다. 사람을 위해 육신공양하는 가축들이다. 자신의 몸을 내주어 인류를 살리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안고, 인천축산물시장을 나선다. 이곳의 캐릭터인 인우와 천돈이 손을 흔든다.



〈그림 7〉 인천축산물시장 캐릭터 인우



〈그림 8〉 인천축산물시장 캐릭터 천돈

※ 〈그림 7〉, 〈그림 8〉 출처: 인천축산물시장 홈페이지

인천축산물시장 연혁 (자료 출처 : 인천축산물시장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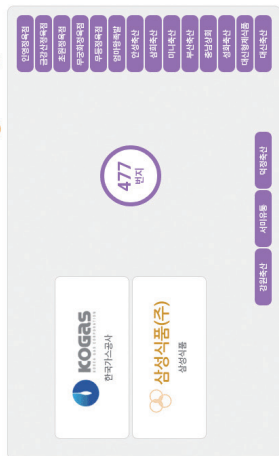
- 2020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 선정
- 2019 (경영현대화) 시장경영바우처 (매니저지원) 사업
- 2016 (시설현대화) 주차장 건립
- 2011 (시설현대화) 입구 홍보아치 설치
(시설현대화) 가스안전 시설물보수
- 1992 인천축산물시장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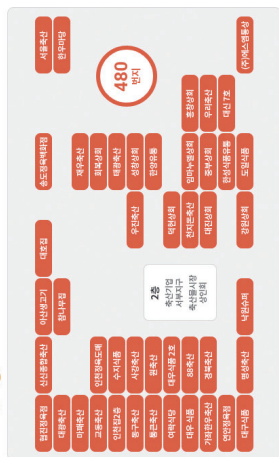
인천시하철 2호선 가재울역 3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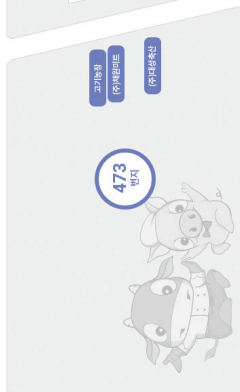
42-024



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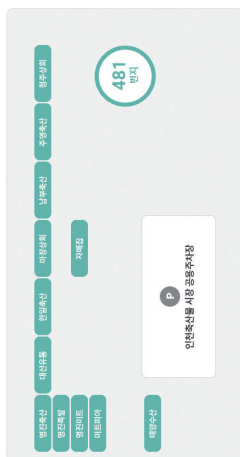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국가산단역 1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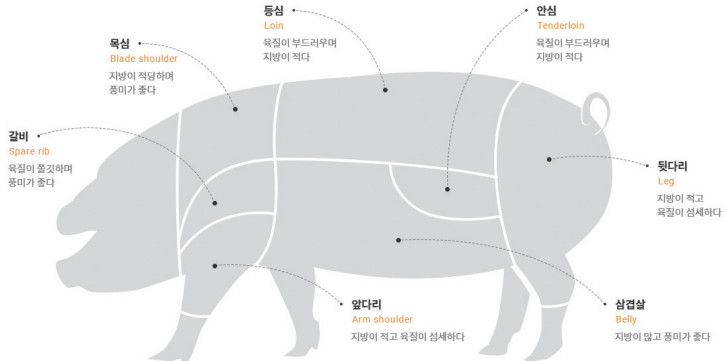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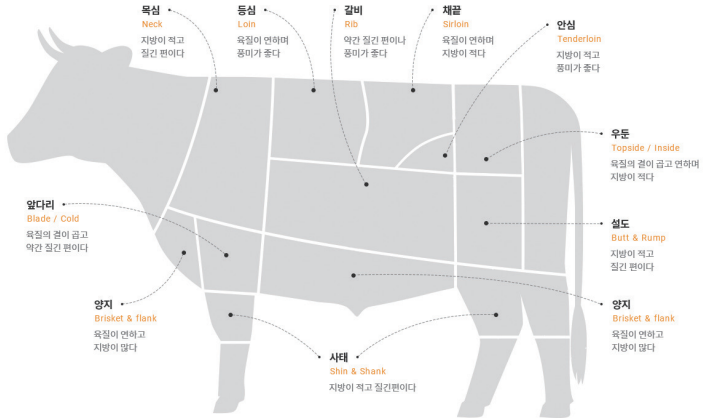
42-011



42-010



인천축산물시장이 제공하는 정육 부위별 이름



(그림출처: 인천축산물시장 홈페이지)

VI

인천의 강남, 강남시장

- 1 강남시장 소개
- 2 마을의 형성과 강남시장
- 3 강남시장의 변화
- 4 강남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 강남시장의 리더, 한재호님의 이야기
- 5 주요 사업들

이슬아 (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VI. 인천의 강남, 강남시장

1. 강남시장 소개

전통시장은 예전에 부르던 재래시장을 가리키는 말로서 나중에 등장한 말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법률적으로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개수 및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축진이 필요한 곳을 말한다.⁵⁹⁾ 이렇게 전통시장은 오래된 시장을 가리키며 대부분 형성된지 오래되어 자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최신 유통방식 도입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상권 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⁶⁰⁾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의 숫자는 2005년 기준으로 1660개였던 것이 2010년에는 1517개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시장은 한편으로는 주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지금도 유통시장에 있어 주역이며 중년층이상의 구매욕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⁶¹⁾

인천에는 각 구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있다. 중구에는 신포시장, 동구에는 중앙시장, 남동구에는 모래내시장과 간석시장 등

59)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46쪽

60)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할인마트들도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61)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46쪽

이 있다. 그 외에도 남동구에는 특정 품목만 주로 다루는 농수산물시장이 있다. 또한 인천 서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는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강남시장, 가좌시장, 축산물시장 등이 있다. 거북시장은 인천 서구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전통시장으로 인천 서구의 「구정백서」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구 거북시장과 신거북시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인회가 조직된 신거북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서진 중앙시장은 과거에 신현중앙시장, 가정중앙시장 등으로 불리던 곳으로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정서진중앙시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가좌시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 조성된 시장으로 다른 시장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편한 시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축산물시장은 정식 명칭이 ‘인천축산물시장’으로 인천 서구에서 유일하게 축산물로 업종이 전문화된 시장이다. 축산물시장은 주변에 6차선의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축장을 끼고 있고 2005년 서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은 할인마트 및 온라인 판매, SSM으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등의 등장으로 점차 매출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부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이며 그 중 여기서는 강남시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1〉 강남시장 입구 (2023년 9월 촬영)

석남1동에 소재하는 강남시장(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39)은 1984년에 형성되어 39년간 문을 열고 있는 서구의 전통시장이다. 석남1동 가정로와 울도로가 교차하는 신현사거리 부근에 있으며 가정로에 큰 입구를 두고 있다. 시장은 크게 십(十)자형의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십자형 길을 따라 2층 혹은 3층짜리 건물 1층에 가게들이 입주하여 있는데, 점포는 현재 기준으로 131개가 있다.⁶²⁾

또한 업종현황을 보면 음식업 22%, 서비스업 21%, 도소매업 34%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강남시장의 상권 배후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가정오거리 뉴타운개발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재개발구역지정 등의 개발계획과 더불어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다.⁶³⁾

시장은 농수산물을 비롯한 식자재와 음식점, 그리고 옷과 신발 등의 잡화점이 많은 생활밀착형의 상설시장이다. 지역의 오랜 시장이지

62)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준일자 2022년 9월 15일)

63)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59쪽

만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길을 따라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시장의 중심에 고객지원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11-2), 주차장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인천 강남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수도권전철 7호선 석남역에서 1.3km가량을 걷거나, 시내버스 903, 46, 43, 13, 1번을 타고 강남시장 정류장 하차하면 된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정서진 중앙시장이나 거북시장과 비교해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강남시장을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육교도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멀다고는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적당히 걷다보면 강남 시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진 2〉 강남시장 중심 거리



〈사진 3〉 강남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분식집)



〈사진 4〉 강남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과일가게)



〈사진 5〉 강남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수산물 가게)

강남시장과 그 주변은 석남1동 일대 마을의 주요 상권이다. 석남동의 서쪽으로는 공업단지가 있는데, 강남시장은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생겨난 주거지를 근거로 형성된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인근으로 석남2동·석남3동·신현원창동·가정1동·가정3동이 있다. 인근 동의 인구가 강남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북쪽으로는 가정 중앙시장역 인근의 정서진 중앙시장, 남쪽으로는 석남역 인근의 거북시장이 있어 강남시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는 석남 1동과 석남3동의 주민이 다수일 것이라 추측된다.

시장이 있는 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의 주택과 빌라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주변에 가구가 밀집된 아파트는 석남주공2단지, 재개발된 서인천월드메르디앙아파트가 있다. 인근에는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석남동 우체국이 있고, 학교는 신현초등학교와 석남초등학교가 있다.

석남1동의 일일 평균 유동인구는 약 6만 명으로 집계된다.⁶⁴⁾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길로 나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강남시장 근처에 있지만,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역은 강남시장보다는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과 더 가깝다. 향후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으로 독골사거리역이 개통되면 강남시장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에 나온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하면 강남시장 인근 신현사거리 점포의 평균임대 시세는 33.058㎡를 기준으로 활성화지역의 경우 지하는 보증금 2,1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이고, 1층의 경우는 보증금 4,200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이고, 2

64)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 기준일자 2023년 9월 19일)

층은 보증금 2,800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이라고 한다. 비활성화 지역의 경우는 지하가 보증금 1,1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고 1층이 보증금 2,2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이고, 2층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라고 한다.⁶⁵⁾ 지금은 이것보다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⁶⁶⁾

유동인구의 경우는 주말과 주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2년에 나온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주중에 10대 남자는 108명 여자는 99명이었고, 20대 남자는 62명 여자는 90명이었으며, 30대 남자는 84명 여자는 198명이었고, 40대 남자는 99명 여자는 168명이었고, 50대 이상 남자는 54명 여자는 72명이었다고 한다.⁶⁷⁾

반대로 주말에는 10대 남자는 84명 여자는 72명이었고, 20대 남자는 72명 여자는 93명이었으며, 30대 남자는 83명 여자는 147명이었고, 40대 남자는 114명 여자는 173명이었고, 50대 이상 남자는 42명 여자는 48명이었다고 한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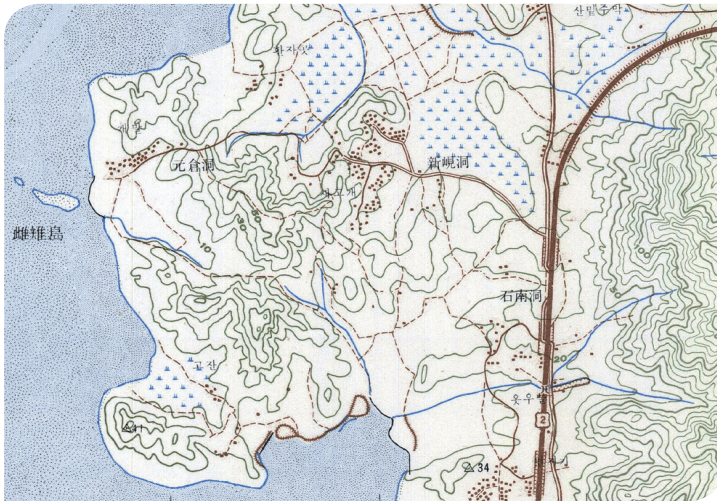
65)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60쪽.

66)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59쪽.

67)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59쪽.

68) 배경화,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인천학연구」, 18, 2013, 259쪽.

2. 마을의 형성과 강남시장



〈지도 1〉 1963년 석남동 일대의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광복 이후 서구 일대는 농촌 마을이었다. 1965년 지금 서구에 해당하는 서곶출장소의 약 2천 가구 중 60% 이상이 농가였다.⁶⁹⁾ 1960년대 말 공단의 설립으로 서구 일대가 개발되기 이전 석남동 일대는 바닷가 옆 농촌 마을이었다. 서쪽의 바닷가 인근에는 갯벌과 염전이 있었고 현재 석남2동 일대에는 1950년대까지 변작리 포구가 열려 있었다.⁷⁰⁾ 지금의 강남시장 자리에는 ‘옷우물’, ‘오두물’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었다. 포구를 끼고 형성되어 있었던 석남2동의 변작리 마을보다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범위는 지금의 석남초등학교부터 강남시장까지였다. 주변의 산으로부터 계곡이 흘러 마을까지 샘물이 흘렀다고 한

69)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1965년」, 33쪽.

70)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3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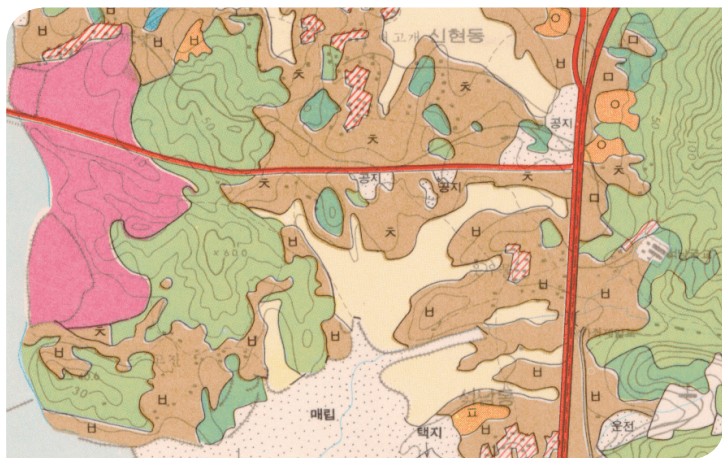
다. 마을의 우물샘은 석남약수터와 이어져 있었다고 전해진다.⁷¹⁾ 사람이 적은 한적한 공간이었던 석남동은 해방과 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정착촌이기도 했다. 1960년 당시 석남동에는 애향, 상록, 상농, 신흥 4개의 피난민 정착 부락이 있었다. 마을은 국유임야 약 37만 평에 개간 허가받아 전부 211세대, 987명이 입주하여 농촌 마을을 이루었다.⁷²⁾

석남동의 인구가 늘고 경관이 변화한 것은 1960년대 말 경인고속도로의 부설과 주안동 및 가좌동 일대에 공장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인천항부터 서울까지의 경인지역에 대한 수도권 공업지대 건설 계획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실현을 보이고 있었는데,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부터 서울의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서 인천항과 고속도로 주변의 공장단지,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는 수도권 공업지대의 핵심이었다. 고속도로는 1967년부터 착공하여 1969년에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도로망 건설로 공업적 입지 조건이 좋아진 고속도로 주변으로는 공업지구가 조성되었다. 1967년 서울 구로동의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1960년대 말부터 부평과 주안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 지금의 서구 가좌동과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 민간산업단지인 인천기계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 주안과 서구 일대는 공단 부지 조성을 위해 염전과 갯벌을 매립하였고, 이후로도 갯벌 매립을 통해 공업지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주변 경관이 크게 바뀌었다. 대단위 공업단지의 북쪽이었던 석남동도 크고 작은 공장들이 생겨났다. 1970년대 초 석남동의 서쪽 고잔 뒷산 너머의 해안가에는 경인에너지 정유공장(지금의 SK인천석유화학. 지도 2에서 분홍색에 해당한다.)이 들어서고 그 주변과 남쪽의 매립지로 여

71)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352쪽.

72) 1961.03.22. 조선일보 '美國人 婦人會서 農牛 등 선물'

러 화학공장과 목재소 등의 공장들이 입주하였다. 주변에 공장이 입주하자 석남동은 주변 공장의 사택과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급세 채워졌다. 강남시장이 있는 석남1동은 정유공장이 생기면서 지금의 강남시장 뒷길에 해당하는 울도로가 조성되었고, 이 길을 따라 주거지가 조밀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도 2〉 1972년 석남동 일대 토지현황이용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분홍색은 공장용지, 노란색은 수리불안전단, 갈색은 밭을 뜻한다.
이중 '남'은 보통작물, '조'는 채소이다.

석남동은 1955년에 신현동, 가정동과 행정상 통합되어 가정·신현·석남동이 되었다가 1977년에 석남동이 되었다. 석남동의 인구는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고 1983년에는 석남동을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분동하였는데, 가신동은 지금의 가정동과 신현동이다. 1985년에 인구 3만 명을 넘는 석남동은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1986년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전국 인구 통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은 가좌동이었고, 그다음으로 석남동이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석남동의 인구는 4만 명을 넘었다.⁷³⁾ 1990년에는 석남1동과 석남2동을 합해 6만 명을 넘었다. 1992년에는 석남1동에서 석남3동이 분동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 증가세가 뚜렷했던 석남동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인구수를 유지 중이다.

〈석남동의 인구수 변화〉

년도	인구수			비고
1965	3442			가정·신현·석남동 기준
1970	3872			
1975	8944			
1980	20066			석남동 기준
1985	34338			
	(석남1동)	(석남2동*)		*1985년에 분동
1990	31849	31484	(석남3동*)	*1992년에 분동
1995	29923	23341	18823	
2000	27786	20046	20497	
2005	16453	20970	27330	
2010	26630	18228	18815	
2015	24191	16584	17884	
2020	23671	14897	15446	

출처 : 각 년도 「인천통계연보」

1970년대 이후 경인지역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서구 일대에도 많은 공장이 입주하면서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980년대 석남동은 근처에 직장을 둔 사람들의 거주지로 빠르게 채워져 갔다. 1950년대 한적한 농촌이었던 석남동은 30년 사이에 인구 과밀의 도시가 되었다. 주민들이 늘어나자 마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이때의 상권이 발달하면서 지금

73) 1986.05.17. 조선일보 '全國주택 14%가 아파트'

의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서구의 등
록시장은 총 6개인데, 이들 모두 1980년대에 개설되었고 1980년대
에 인구가 많았던 가좌동, 가정동, 석남동에 분포하고 있다. 가좌동의
축산물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수산물, 식료품, 잡화 등을 파는 일
반 시장이고 시장들은 대체로 주택지와 매우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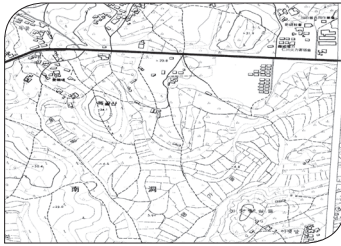
〈서구의 전통시장 현황〉

시장명	소재지 동명	점포수	개설 연도
가좌시장	가좌동	138	1987
강남시장	석남동	131	1984
거북시장	석남동	53	1982
신거북시장	석남동	198	1982
정서진중앙시장	가정동	148	1989
축산물시장	가좌동	104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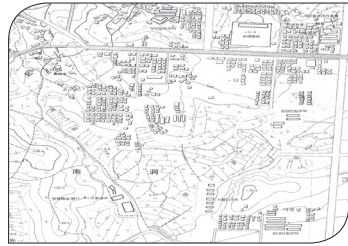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기준일자 2022년 9월 15일

강남시장은 1984년 석남1동 일대에 지금과 같은 저층 위주의 주택
지가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1980년대 초반에는 지금의 시장
주변이 건물이 많지 않은 빈 땅이었다고 한다. 강남시장은 다른 시장
과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가에서 야채와 식료품을 팔
던 노점과 점포 무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큰길에 자리 잡은 강
남시장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상권이 점점 발달하였고, 시장 주변의
일반 주택 건물들이 1층에 상점을 운영하도록 개조되면서 시장 규모
가 점점 확장되었다. 한편 강남시장과 주변의 마을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침수되어 피해를 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름마다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강남시장 일대에 대한 침수 방지 사업은 2000
년대에야 이루어졌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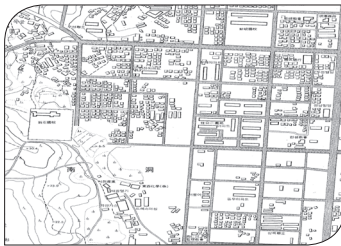
74) 2002.02.18. 경인일보 「석남동 일대 3곳 침수방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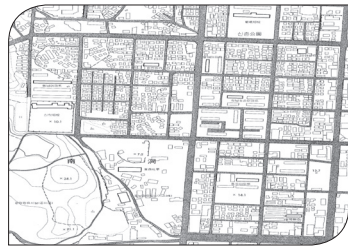
〈지도 3〉 1976년 강남시장 일대



〈지도 4〉 1982년 강남시장 일대



〈지도 5〉 1987년 강남시장 일대



〈지도 6〉 1996년 강남시장 일대

지금의 강남시장이 왜 ‘강남시장’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시장이 형성되었을 당시 이곳에 상가 건물을 세운 사람이 건물의 이름을 ‘강남’이라고 붙였는데, 그 이름으로 시장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강남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가 건물은 지금의 강남시장 외에도 거북시장과 중앙시장 등지에도 있었는데, 이곳만이 시장의 이름으로 남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설로는 이 시장이 서울의 강남처럼 매우 흥한 상권이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시장의 상인들은 대체로 ‘강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명명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과거 ‘강남’이라 이름 붙일 만큼 이 근방에서 매우 발달한 시장이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적어도 2000년대까지 서구에서 시장의 인기는 대단했다. 시장은 마을의 상권을 넘어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다. 1996년 당시 석남동의 어느 시장 입

구의 대형 약국은 하루 매출이 5백만 원에 달할 정도였는데, 시장 입구는 역세권의 상가와 비견될 정도로 상업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꼽혔다.⁷⁵⁾ 강남시장은 가까운 곳인 석남2동에 거북시장과 가정동에 정서진 중앙시장이 있지만, 석남1동의 유일한 시장으로서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마을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지역 상권으로 오랜 기간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였다.

3. 강남시장의 변화

지금의 전통시장을 예전에는 ‘재래(在來)시장’이라고 불렀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모두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온다는 뜻인데, 우리 마을과 함께 생겨났던 시장들은 어느 순간 ‘옛날의 것’이 되었다. 점차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맞춰 소비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원화된 조직을 갖춘 중·대형 점포인 슈퍼마켓과 마트, 백화점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장은 새로운 상업 시설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현대식 상업 시설과 비교하며 전통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68년 서울 중림동에 문을 연 뉴서울 슈퍼마켓은 외국의 슈퍼마켓 형식을 가져온 국내 첫 슈퍼마켓임과 동시에 위생에 열악하고 정가 판매와 품질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기존 시장의 대안으로 등장했다.⁷⁶⁾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장의 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75) 1996.10.15. 매일경제 「"비수기에도 거래 활기 시장입구·역세권 선호"」

76) 1968.06.06. 동아일보 「「衛生市場」와 슈퍼 마켓트」

체감되기 시작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상인회와 번영회를 중심으로 몽처 마트와 백화점 등 새로운 상업 시설에 대항하기 위해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⁷⁷⁾ 정부 차원에서도 주택지 안에 조성되어있던 시장들을 합법화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⁷⁸⁾,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 기준 규칙에 묶여 시장의 건물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었던 제한도 풀어 시장의 시설 보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1시장을 현대식 쇼핑센터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⁷⁹⁾

인천도 시장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인천에는 서울보다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적었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은 인천 내 상권의 약점이 되었다. 1990년대 말 인천의 시장은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상권의 약화를 겪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지 중인 상권마저도 상실할 수 있어 물리적 개선과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⁸⁰⁾

강남시장 인근에는 1994년에 서경백화점이 신현동에 개점을 한 것 외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이 가까이 입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서는 유리한 상권이였다.⁸¹⁾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백화점의 무료 셔틀버스는 인천에서도 성행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가깝지 않은 상업시설이라 해도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에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1천여 대가 운영했던 셔틀버스

77) 1988.09.26. 매일경제 「시장 고객끌기 안간힘」

78) 1988.11.03. 한겨레 「주거지역 재래시장 합법화」

79) 1988.11.24. 매일경제 「재래시장 새모습 탈바꿈」; 1994.12.23. 조선일보 「재래시장 현대식 쇼핑공간 “재탄생”」

80) 김흥순, 「인천광역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 인천발전연구원, 1999.

81) 위의 책, 45쪽.

는 운행을 금지하는 법이 생겨나고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서구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은 석남동과 가깝지는 않다. 가까운 점포로는 신현동의 서경백화점과 가좌동의 홈플러스가 있으며, 나머지는 청라나 당하동, 마전동, 원창동 등지에 있다. 그러나 강남시장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부터 점점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 침체도 요인일 수 있겠으나, 마을의 시장을 대체하는 상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른 상업시설이 전통시장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마을과 가깝고 누군가에게는 편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이다. 또한 전통시장은 크고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모인 공간이고 지역의 유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권으로서 지금까지 존립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전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상인들과 지자체 및 정부가 함께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경영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었다.

서구의 시장도 2000년대부터 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서구청과 협력하여 각 시장에 안내 표지판과 간판을 정비하고, 햇빛과 비를 가려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장에 전기 통신 시설 정비와 고객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⁸²⁾

강남시장은 2007년부터 주차장 건립 사업이 시작되었다. 주차장의

82) 2002.12.17. 경인일보 「서구, 중앙시장등 5억투입 대대적 정비」

부재는 공간이 비좁은 전통시장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강남시장의 경우 시장이 주거지와 밀접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었어도 시설 개선 사업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⁸³⁾ 또한 여러 행정적인 문제와 진입로의 경사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2010년에야 설립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주차장(사진 6)은 지상 주차장이고 총 4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매우 작아 주차장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웠다.⁸⁴⁾ 따라서 2022년에 기존 주차장 부지에 2층 규모의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시설을 확장하였다.



〈사진 6〉 2015년 주차장 항공사진

83) 2007.07.20.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84) 2009.11.30.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사진 7〉 최근의 강남시장 주차장(2023년 9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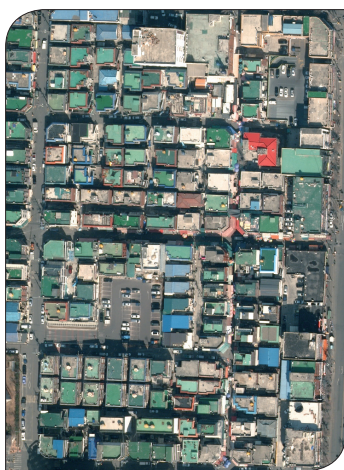


〈사진 8〉 주차장 내부 모습

강남시장의 경관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은 아케이드이다. 전통시장은 보통 길을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품이나 상인들, 그리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햇빛과 바람, 눈비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시장을 건물 안으로 들일 수는 없으니, 길을 따라 지붕을 놓는 아케이드 사업은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강남시장의 경우에는 아케이드 사업을 2008년에 신청하여 이듬해 선정되었고, 2014년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사진 9〉 아케이드 내부 모습



〈사진 10〉 아케이드 설치 전



〈사진 11〉 아케이드 설치 후

2017년에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꿀벌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시장을 꾸미기도 했다. 시장에서 야시장을 열어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고 2018년에는 강남

시장 고객센터를 준공하였다. 고객센터 건물은 시장 운영 사무실임과 동시에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민원을 내기도 하고 쉼터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3층에는 강의실을 두어 상인 교육에 이용하고 있다.



〈사진 12〉 강남시장 고객센터

시장 변화의 주체는 상인들이다. 전통시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상인들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활성화 하는 사업은 모두 상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상인회의 의사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상인회가 사업을 구성하여 지자체나 정부에 신청하고, 이 계획이 선정되면 사업이 이루어진다. 전통시장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나가기 위해 상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상인회의 역할이 많아졌다. 전통시장은 각각 작은 상점들이 조밀하게 모여있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화재 등에 대한 방재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이러한 시설도 상인들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 응대와 점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상인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상인의 민원과 고객 민원을 관리하기도 한다.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인회는 고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다

양한 사업과 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강남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주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강남시장에서 장을 보는 고객들을 위한 추첨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시장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버스킹 행사를 준비하였다. 상인으로서 개인의 점포를 운영하는 데에도 바쁘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강남시장이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주 찾아주는 지역의 상권으로 남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진 13〉 2023년 동행축제 공연



〈사진 14〉 2023년 동행축제 경품 추첨 행사

4. 강남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 강남시장의 리더, 한재호님의 이야기



〈사진 15〉 인터뷰를 하고 있는 한재호님

강남시장에서 오랫동안 상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재호 회장은 1970년대, 본인이 어릴 적 인천으로 이사 온 뒤 줄곧 가좌동, 석남동에서 살았다. 학교도 이 근방의 오래된 학교인 석남초등학교를 나오고 인천남중학교로 진학했다. 어릴 적 강남시장 주변의 모습은 지금과 아주 달랐다.

“태어나기만 다른 곳이지, 계속 이곳 서구에서 살았다고 봐도 돼요. 어릴 때는 여기가 서구가 아니라 북구였었죠, 북구. 여기 강남시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쪽이 다 바닷가였어요. 여기 철탑이 있었고, 더 올라가면 염전이요 그랬었죠. 그땐 강남시장은 없었어요.”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변인들이었다. 부모님은 가좌동에서 식당을 하였고 주변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상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20대 중반에 이곳 강남시장에 들어왔다. 처음 문을 연 가게는 청과물 시장이었다.

“제가 잠깐 아는 형의 소개로, 지금은 없어졌는데 ‘해태코스코⁸⁵⁾’라는 곳에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청과물도 담당해 보고 생선도 담당해 보고, 공산품도 해봤거든요. 그때 아는 형들이 축산 쪽에도 있고 청과 쪽에도 있었는데요. 청과 쪽이 장사가 괜찮다고 해서 청과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간판과 시설을 새로 바꾸면서 경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강남시장도 그러하다. 그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적의 강남시장과 지금의 차이점은 규모라고 생각한다. 옛날의 강남시장은 작지만 아주 활기찬 곳이었다.

“그때는 거북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강남시장은 주가 아니었어요. 지금 강남시장은 시장이 십(十)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일(一)자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지금의 사거리를 조금 넘어서 여기(고객지원센터)까지 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3분의 1 정도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시장이 잘 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늘어난 거죠. 그건 있어요. 똑같은 100명을 십 평에 풀어놓는 것하고, 천 평에 풀어놓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천 평에다가 백 명을 갖다 놓으면 완전 행해 보이죠. 근데 십 평에 백 명을 갖다 놓으면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장이 크진 않았지만, 알차어요.”

처음 장사를 할 적에 그는 강남시장의 입구 쪽 건물 1층에 임대를

85) ㈜해태유통에서 운영한 기업형 슈퍼마켓. 전국에 매장이 있었고 1995년에 해태슈퍼마켓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언어 청과물 상점을 열었다. 그의 청과물 상점 위의 2층에는 가정집이 있었다고 한다. 다른 시장과 비슷하게, 강남시장도 주택지에 형성된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어느 시장을 가나 마찬가지예요. 1층은 점포고, 2층은 사람들이 거주해요. 정말 활성화가 잘 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건물주가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임대를 주고 하죠.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커지기 전에) 이 옆쪽은 1층도 다 가정집이었어요. 강남시장이 활성화되다보니 1층을 개조해서 점포 상가를 만들고, 임대를 준 거예요. 시장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상에 야채를 가져와서 조금씩 팔다 보면 그게 점점 커지면서. 전통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제가 왔을 때엔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점포가 100점포다 했을 때, 그때는 점포 수가 한 40개, 50개 됐었어요. 그 외엔 다 가정집이었죠. 근데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되다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당시 한재호 사장님의 청과물 상점은 호황이었다. 도매시장에서 야채를 한 트럭 싣고 오면 하루에 다 팔릴 정도였다. 청과물 상점뿐만 아니라, 강남시장의 대부분 상점이 다 잘 되던 때였다.

“청과물 시장이 돈은 잘 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맨날 시장에 나가야 해요. 야채는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떼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두 시에 나갔어요. 거기 경매가 열두 시에 하는 게 있고, 한 시에 하는 게 있고, 세 시에 있고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열두 시 즈음에 경매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간 거죠. 거기서 여기 오면 한 다섯 시. 그때부터 짐을 내려도 한 정오까지 내려요. 양이 아주 많죠, 트럭이 5톤 차였으니까. 모든 탑차에 차곡차곡 쌓아서 가져와요. 차레로 쌓아

놓은 것을 내리면서 팔고, 내리면서 팔고. 바로 파는 거죠. 그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 자체가 좋았어요. 그 많은 게 다 팔렸어요. 그 때 5톤 탑차로 시장을 두 번 간 적도 있어요, 하루에. 하루 매출이 5백만 원, 6백만 원이 되었었으니까, 엄청 많이 팔았죠.”

그는 청과물을 서울의 도매시장에서 가져왔다. 흔히 전통시장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통시장도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상품을 골라서 가져온다.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에도 구월동, 삼산동 도매시장이 있지만, 서울과는 물건이 달라요. 다들 가락동, 가락동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수확된 청과물들이) 다 먼저 가락동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구월동으로 가고.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서 대량으로 사들이려면 가락동으로 가는 게 오고 가는 비용, 신선도까지 생각했을 때 확실히 나아요. 적은 물량을 가져오는 거면 구월동이나 삼산동을 가겠죠. 가락동까지 가려면 여기서 새벽 한 시, 두 시에 가야 하는데, 구월동에 가려면 여섯 시에 가도 괜찮아요. 물량이 없으면서 먼 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 길거리에서 (일부 상인들이) 직접 재배해서 판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물건 대주는 곳이 있어서 파는 거지, 키워서 직접 판매하는 건 거의 없어요.”

활황의 상권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었지만, 그는 청과물 상점을 오래 경영하지는 않았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일이 매우 고되었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40세에 다시 강남시장으로 돌아왔다.

“(강남시장을 나가서) 토지금고 시장에서도 2년 반 정도 일했는데

요, 거기서도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힘드니까. 장사 이제 그만하자, 편한 직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시장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정육점을 하게된 계기는 친구가 축산 쪽 일을 했어요. 거기를 자주 방문하면서 상점을 차리게 되었죠. 제가 40세에 다시 들어와서, 12년 장사했나 봐요. 정육점으로. 청과랑 축산은 달라요.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건 정육 쪽이라 생각해요. 고기를 사려면 다들 시장으로 간다고들 하잖아요. 요새 청과 야채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고, 너무 많아요.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갔던 집에만 가서 사거든요. 단골집 말고 다른 곳에 갔더니 돼지고기에 냄새가 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야채가 냄새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눈에 보이게 썩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사도 똑같은데, 고기는 이사 갔던 사람도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사요. 자기가 먹던 고기, 믿을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제비가 돌아오듯이요.”

2000년대 축산업을 하던 당시, 그는 전통시장의 침체를 체감하였다고 한다. 전통시장이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는 집밥이 사라지면서 타격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전통시장이 엄청 잘 되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을 가도 다 잘 되었어요. 전통시장이 장사 안되기 시작했을 때, 급식이 생겨났어요. 학교에 가면 급식을 주잖아요. 급식 납품은 기업에서 해요, 다이렉트로. 그전에는 어땠냐면, 우리 자식 도시락을 싸줘야 하니까 맨날 어머님들이 시장에 오셨어요. 부모들은 보통 내가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식 먹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식이 학교에 도시락을 싸간다고 하면 반찬 맨날 바뀌서, 장 봐서 해다 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학부모가 여기 천 명이 있다, 그러면 천 명

은 매일 뭔가를 시장에서 사 가는 거예요. 오늘 걸 내일 또 줄 수는 없으니까 음식을 새로 해서 싸 줘야죠. 판매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급식하기 전에 도시락 싸갈 때는 사가는 게 불고기, 장조림 같은 반찬용을 자주 많이 사 가는데, 요즘에는 국거리, 구워 먹는 거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주말에 먹을 거, 놀러 갈 때 사 가지고 가는 용도로 바뀌었어요. 집밥이 사라졌어요. 요새 아침도 거의 안 먹잖아요. (식재료들이) 소비가 안 돼요. 야채 장사로 계산해 봐도, 옛날에 한 집에서 대파 하나 사 가면 한 3일 있다가 또 사러 오는데, 요새 대파 하나 사면 한 15일 되어도 다 못 먹어요. 요새 그런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강남시장에 다시 들어와 정육점을 하던 42세에 그는 강남시장의 상인회 회장이 되었다. 당시 강남시장은 상인회가 없었다. 그 이전에 상인회가 있었지만 와해된 상태였고, 상인들이 모인 변영회만 운영되고 있었다. 정식적으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을 꾸리려면 시장에는 상인회가 필요하다. 그는 상인들의 투표를 통해 강남시장 상인회의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상인회장 되자마자 첫해에 아케이드를 신청했어요. 사업 신청일을 간당간당하게 며칠 남겨두고 상인회 등록을 하고 신청했죠. 그때 (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사업 시작하면서 상인들에게 사업 동의서를 다 받고 시작했어요. 협조는 잘되었는데,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생했던 건 자부담금. 보통은 상인 반, 건물주 반 이렇게 한하는데, 상인이야 임대니까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아케이드를 해놓으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면 상인들이 아케이드 자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장은 건물주가 다 내는 걸로 했어요. 반대가 많았죠. 그걸 다 일대일로 설득해야 했어요. 사업 시작하고 자

기 점포 앞에 기둥 박히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른 건 큰 문제 없었어요. 몇 미터마다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선에서 왔다갔다 조절을 할 순 있어요. 가게 한가운데, 사람들 다니는 데에 기둥을 박을 순 없잖아요. 이것들 조율하는 데 애 먹기도 했어요. 여기 아케이드 씌울 때 밤샘 적이 많아요. 진짜 애정이 깃든 시장이죠.”

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시장의 외관을 바꾸는 큰 공사였다. 매일 개인의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강남시장은 당시의 공백을 견학으로 채웠다고 한다.

“그때 공사업체랑 협의해서 최소 기간으로 작업을 했어요. 한 3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동안 상인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어요. 지방에 다른 시장이요. 어떤 시장들은 잘 되는 시장을 견학 간다는데, 처한 잘 되는 시장도 갔지만 안 되는 시장도 갔어요. 잘 되는 곳에도 가야죠, 배울 점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잘 되는지도 보고. 그런데 안 되는 곳도 보고 가서 느껴야 해요. 여긴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하고. 손님하고 싸우고 불친절하고 그러면, 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장이 이렇게 안 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고 배우라는 거죠.”

처음 상인회장이 되고 나서 9년 동안 일을 했다. 3년이 임기인데 재선으로 연달아 뽑힌 것이다. 그는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어 다시 강남시장을 나갔었지만, 작년에 또다시 익숙한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관련 상점을 열었다. 상인들의 요청으로 다시 상인회장도 맡았다.

“상인회장을 하면 부담이죠. 가족들에게도. 맨날 바쁘고, 밖에 나가서 돈 쓰고 들어오고. 해가 갈수록 경조사비가 많아져요. 제 사업도

있는데 상인회까지 운영하려면 정말 바빠요. 여기 시장의 상인들은 다 사장님들이고 매일 아침에 여기에 이익을 창출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의견들이 있으니까 들어줘야 하고 통솔해야 하죠. 그리고 시장 사업도 하려면 하려면 예산 따러 다니고 계획 짜서 예산서도 잘 써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센터) 짓고, 주차장도 예산 다 땀어요. 시장에 애착이 많이 가죠. 한 일이 많으니까요.”

강남시장은 상인회의 단합이 좋다. 상인들도 상인회의 일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는 상인회장으로서 지자체와 상인 간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고, 또한 고객들과 상인 간의 중간 다리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도 상인회가 신경 쓰는 일은 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우리 상인회가 단합이 잘 되고 상인분들 협조도 잘 돼요. 사업할 때 참여율도 좋고요. 우리 시장은 여성회원들이 적극적이예요. 저희도 부녀회가 있는데, 지금은 상인회장을 새로 꾸리고 그래서 안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부녀회에서 한 번씩 행사 열어서 주민들이랑 떡볶이 행사, 김치 담가서 주민들에게 김치 나눔 같은 것도 했어요. 그리고 상인회는 고객 민원도 들어드려야 해요. 강남시장 어디서 무엇을 샀는데 이게 어때요, 이게 반품이 될까요. 그런데 고객하고 상인하고 일대일로 부딪치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좋게 바꿔주고 마십시오. 그러면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보통 상인분들에게 손님이랑 싸우지 말아라, 우리도 밥 해먹고 사니까 반품 같은 거 들어오면 우리가 음식 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싸우냐, 그래요. 손님이랑 싸우면 그 손님은 그 가게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강남시장 안 갈 거야, 하거든요. 그러면 강남시장에서 사람 한 명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회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 활성화예요. 시장

활성화에 시장 이벤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이사진들이 16명이거든요. 이사진들이랑 계속해서 회의해서 사업을 구상해요. 하반기 정도에 내년 얼마큼의 예산으로 뭘 하겠다 하는 1년 계획표를 짜요. 행사하면 호응도가 좋아요. 행사를 큰 장소에서 하면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장소는 없어요. 예전에 톨렛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되었어요. 고객들이 물품을 얼마 이상을 사면 쿠폰을 줘요. 그러면 와서 톨렛을 던져서 치약이 꽃혔으면 치약을 받아 가는 건데, 그게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걸 우수사례로 선정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발표해야 해서. 그럴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좋았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통시장의 필연적인 숙제가 되었다. 시장은 점점 나이가 드는데 주변의 상권들과 경쟁해야 하고 이제는 온라인 상점과도 경쟁해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경제적 침체기를 겪었다. 이럴 때일수록 상인회는 바빠진다고 한다. 그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지역 사람들과의 상생이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중년이 많아요. 상인들을 백으로 잡았을 때 30대~40대가 한 20%, 그 다음에 40대~50대가 20%, 나머지가 그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장사가 잘되면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니까 연령대가 높아요. 빈 점포는 노인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전통시장은 사실 저무는 해라고 봐도 돼요. 전통시장이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자본력 있는 곳을 이길 수는 없어요. 미래를 봐서도, 언제까지 대형 마트에 일요일에 문 열지마, 한 달에 몇 번

쉬어, 이런 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형 마트가 얼마나 편해요. 의무 휴업을 만들어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전통시장은 코로나 이후로 다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요. 사람이 한 번 확 아프고 나면 늙는다고 하잖아요. 강남시장도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행사를 많이 해요. 올해는 경품 이벤트도 하고 버스킹 공연을 했었고요, 가을에는 노래 잔치를 한 번 할 거예요. 보통 쿠폰, 경품 행사를 많이 하고, 주민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연도 자주 해요. 행사하면 반응도 좋아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이번에 행사하는 거는 석남1동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하고 있어요. 행사는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참여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지금은 사거리에 쉼터 의자를 놓으려고 계획 중이에요. 시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시장 보러 왔다가 저기 구석에 쭈그리고 앉지 말고 손님이니까 앉아 있어도 깔끔한 데 앉아 계시라고요.”

그가 생각하는 강남시장은 동네의 큰 슈퍼이고 마을의 사랑방이다.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1차 식품이 많고, 주 고객층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시장은 노인 친화적이다. 마을 안에서 전통시장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시대가 지나도 전통시장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시장도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생활 밀착형 시장,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형 시장이 있어요. 관광형은 커피숍이나 먹을거리들이 많은데, 우리 주요 품목이 1차 식품이에요. 청과, 야채, 생선, 정육, 이런 쪽. 그 다음이 옷 가게. 의외로 전통시장이 옷 가게가 많아요. 여긴 단독주택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면적 대비

사람이 많지도 않고. 시장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신 구매력이 높아요. 시장에 구경을 오기 보다는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여긴 동네 슈퍼예요. 그리고 강남시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구매 단가가 높아요. 고기를 사도 한 근 줘, 그러세요. 한 근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똥다가 먹지 뭐. 그런데 보통 젊은 분들은 국거리를 사도 딱 한 끼 먹을 것만 사죠. 어르신들, 어머님들은 애들 나가고 남편 출근해서 혼자 있고 그러면 시장에 나와요. 나와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다들 모여서 못했던 얘기도 하면서 풀어요. 전통 시장은 그런 사랑방 개념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오래 길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너무 물건 진열하는데 100%를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 점포에 물건 진열하는 데 공간을 다 쓰면, 손님들이 머물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 칸 다 막아놓고 뭐 드릴까요, 물건 주고 팔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20%는 손님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라는 거지. 손님들은 커피 한잔하면서 한 시간씩 떠돌고 가다가도 미안해서라도 뭐 하나 사가거든요. 손님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해요. 시장에는 앉을 자리가 적으니까 내가 가는 단골집 갔다가 쉬고 가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 배려는 해 줘야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시장도 점점 발전해야 한다. 사람들이 시장을 찾지 않는다면 찾을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상인회 회장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강남시장의 미래는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장이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온라인 상점도 잘 되어 있잖아요. 오는 손님 받는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걸로 개선을 해야 해요. 납품할 수 있는 곳을 생

해 보고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약해서 납품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그런 걸 만들어 가야 해요. 요즘은 인천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줘요. 배송, 택배 서비스 지원부터 온라인에 내 물건 올려 놓기도 하고요. 온라인 서비스는 강남시장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하다가 안 되고 그러거든요. 할 수 있는 상점은 각자 운영할 수 있어야 해요. 요새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시장 사장님이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 문 앞에 들어가는 바탕까지야 (상인회에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교육장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하는 방법을 교육해 드릴 수 있죠. 이걸 상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차적으로는 시장 차원에서 7시 반 이후에 관광형 시장으로 모습을 바꾸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청라 쪽에 대형 마트 두 개가 들어와요. 그리고 주변 시장도 생활형 시장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형 시장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나, 관광형으로도 해보자. 좀 바뀌 봐야겠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랑 주변 술집들이 문을 일찍 닫고 있는데, 우리 시장길이 통로가 크거든요. 테이블을 깔아 놓고 먹거리 야시장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장사하셨던 분들도 그때까지만 장사 하고 그 이후로는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야시장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외부 사람 40%, 시장 사람 60%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됐었거든요. 호응이 좋았어요. 다만 이게 예산이 들어요. 겨울철에 한다고 하면 춥고 여름에는 야외에서 음식을 파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죠. 잘되면 올해부터 빨리 하려고 해요. 저는 말 나오면 바로 추진해야 하거든요. 지금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5. 주요 사업들

1) 강남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활성화 사업

강남시장은 다른 지역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도 지원사업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활성화 사업이다.

■ **시설현대화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과 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

■ **경영활성화사업** :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도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과 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 및 상인 교육,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하 내용은 구정백서(2012년~2022년)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추진실적]

(1) 2009년

① 시설현대화

-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 건설

(2) 2012년

① 경영활성화

- 이벤트 경품행사, 앞치마 제작

(3) 2014년

① 시설현대화

- 아케이드 설치, 시장입구 홍보아치 설치

(4) 2015년

① 경영활성화

- 이벤트 경품행사, 앞치마 제작
- 경품행사 및 공동쿠폰 사업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5) 2016년

① 경영활성화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 2017년

① 경영활성화

-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② 시설현대화

- 경관조명 설치

(7) 2018년

① 시설현대화

- 고객지원센터 건립

② 경영활성화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8) 2019년

① 경영활성화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9) 2020년

① 경영활성화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0) 2021년

① 시설현대화

-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2) 청년빌리지 사업

이러한 강남시장의 독특한 사업 중 하나가 2016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청년빌리지’ 사업이다. 2016년 12월 19일 「중부일보」 기사인 ‘인천 서구 ‘강남시장 야시장’ 및 ‘청년빌리지’ 오픈’에 의하면 “서구는 지난 16일 강남시장에서 강범석 구청장을 비롯한 상인회장과 시장 상인 및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시장 야시장’과 ‘청년빌리지’ 오픈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부일보」의 같은 기사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점포 ‘청년빌리지’는 당초 가좌시장에서 서구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인 ‘소금꽃 빌리지’의 성과를 토대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총 10개 점포에 음식점과 의류점, 공예 공방 등 다양한 업종의 청년 창업자가 입점해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매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비어 있는 33㎡ 규모의 점포 5곳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눠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청년빌리지’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에 10명의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2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평균 2대1의 경쟁률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점포 중 6곳은 초밥·컵밥·돈가스·스테이크·와플 등 먹거리 점포가 차지했다. 이렇게 먹거리 점포가 차지한 것은 인근 주택가 등을 상대로 반찬거리를 팔던 시장이다 보니 “주전부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장을 찾는 주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예체험방,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큰 사이즈 속옷 전문점, 아동복 매장, 속눈썹 연장 매장이 들어섰다.⁸⁶⁾

이러한 청년 상인들을 선발하는 책임을 담당한 것은 박진성 강남시장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장인데 그는 “시장에 꼭 필요한 아이템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이들을 중심으로 뽑았다.”⁸⁷⁾

이렇게 선정되어 시장에 들어온 청년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춘 영업 전략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음식점들은 매장이 작은 만큼 포장(테이크아웃)을 권하였고, 손님을 상대하느라 점포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과 인근에 사는 주민에겐 배달도 해주었다. 특히 가격을 동일 업종 점포들보다 20~30% 정도 싸게 책정했다. 대신 양은 더 많이 줬다. 컵밥을 파는 매장이 빠밥&치즈스틱의 경우 컵밥 양이 다른 집

86) ‘손맛 좋은 2030 청년사장님들, 인천 강남시장 띄웠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일

87) ‘손맛 좋은 2030 청년사장님들, 인천 강남시장 띄웠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일

의 배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문을 연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각 점포마다 20~40대 젊은 단골손님이 생기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점포를 찾았던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내준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종업원 없이 혼자 청년초밥을 운영하는 나영조(35)사장은 “좌석이 6개인데 하루 평균 30~60명이 찾아온다. 원래 오후 10시에 마치지만 주말에는 재료가 떨어져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⁸⁸⁾

이렇게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청년빌리지 사업은 기존 상인들과 청년 상인들이 상생하며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일 '손맛 좋은 2030 청년사장님들, 인천 강남시장 띄웠다' 기사에 의하면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남시장'에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골목이 있다. 20~30대 젊은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들어선 '청년빌리지'다. 시장 골목 안쪽, 그것도 오르막길에 있어 좋은 위치가 아닌데도 찾는 사람이 특히 많다.”라고 하여 나름 사람들을 모으는데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⁸⁹⁾

이러한 청년빌리지에서는 자체적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청년빌리지는 2017년 5월 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를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 내 중앙 무대에서 트로트 공연, 어쿠스틱 밴드 버스킹, 마술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을 진행했고, 페이스페인팅과 캐리커처도 무료로 받아

88) '손맛 좋은 2030 청년사장님들, 인천 강남시장 띄웠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일

89) '손맛 좋은 2030 청년사장님들, 인천 강남시장 띄웠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키다리 뽀에로, 캐릭터 인형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⁹⁰⁾

그리고 행사 당일 시장에서 5천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 오면 깡이 없는 톨렛게임에 참여해 다양한 상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족과 함께 청년빌리지 점포를 방문해 구매하는 경우, 2대가 같이 오면 5% 할인, 3대가 같이 오면 10% 할인 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⁹¹⁾

이렇게 보면 인천 강남시장의 ‘청년빌리지’사업은 나름 괜찮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전통시장들은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천 강남시장의 ‘청년빌리지’사업은 비록 구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 인천 강남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런 점들이 인천 강남시장이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 구청의 지원을 받은 ‘청년빌리지사업’이 종료로 됨에 따라 2016년에 들어왔던 청년상인들은 지금은 모두 철수하고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되고 이들에 의해 강남시장에 젊은이들만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도입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0) 김준구, ‘인천 서구 강남시장 청년빌리지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개최’, 『경기일보』, 2017년 5월 1일

91) 김준구, ‘인천 서구 강남시장 청년빌리지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개최’, 『경기일보』, 2017년 5월 1일

3) 예정중인 사업

(1) 상설 야시장

2016년 인천 강남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수 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2대의 포차를 갖추고 ‘야시장’을 오픈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했다. 앞서 한재호 상인회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 외부 사람 40%, 시장 사람 60%의 비중으로 운영을 했으며 성과도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재호 강남시장 상인회장은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재호 강남시장 상인회장은 상설 야시장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마실 삼아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볼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들어와 한철 장사를 하던 것과는 달리 우리 시장 업장일 갖고 실제 장사 중인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이번에는 순수하게 강남시장 상인들로 이루어진 야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⁹²⁾

(2) 온라인 쇼핑몰 구축

또한 한재호 강남시장 상인회장은 앞으로 인천 강남시장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에 따르

92) 박봉민, ‘마실 삼아 찾기 좋은 도심 한복판 사랑방, 인천강남시장’, 「오마이뉴스」, 2023년 7월 3일.

면 “코로나19를 영업종료시간이 빨라졌다는”점을 꼽았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이 활성화되며 오프라인을 통한 고객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젠 앉아서 고객을 기다려서는 경쟁력이 없다.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한재호 상인회장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쇼핑방식에 맞춘 ‘온라인 판매’ 강화를 통한 ‘스마트시장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⁹³⁾

이상의 사업들은 상인회에 연락해본 결과 아직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 사업들은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내년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93) 박봉민, ‘마실 삼아 찾기 좋은 도심 한복판 사랑방, 인천강남시장’, 「오마이뉴스」, 2023년 7월 3일.

VII

노을이 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정서진중앙시장

- 1 들어가며
- 2 정서진중앙시장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현재
- 3 주변 대형 상가
- 4 상인회와 자원봉사단
- 5 전설을 만들어가는 시장사람들
- 6 나오며

허문태 (시인/ 서구 문화원 부원장)

VII 노을이 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정서진중앙시장

1. 들어가며

어둠이 출렁이고 먼동이 트자 ‘정서진중앙시장’은 깊고 긴 숨을 내 쉰다. 긴 숨결에 어둠을 건너온 긴장이 잔잔히 풀리고, 낮고 고른 숨결이 미명의 상점들을 보듬으며 온기를 불어넣는다. 상점들은 하나, 둘 미명에서 벗어나려고 기지개를 켜다.

오늘도 그 숨결에 제일 먼저 떡집이 불을 밝히고 미명에서 벗어난다. 떡집 LED 전등에 화들짝 밀려난 어둠은 과일가게 좌판에 걸터앉아 정신을 가다듬는지 물끄러미 눈만 껌뻑인다. 미명에서 벗어난 떡집은 이미 속속들이 환하다. 그 속에서 낮익은 몸짓이 익숙한 노동으로 멈추었던 기계를 수족처럼 움직인다, 쌀을 빻는 분쇄기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사각의 스테인 떡시루에 쌀가루와 붉은 팔고물이 켜켜이 쌓인다. 사각의 스테인 떡시루가 스팀기 위에 층층이 놓인다. 3단의 사각 스테인 떡시루에서 서서히 스팀이 피어오르고 이내 뜨거운 스팀을 내뿜는다. 그 열기는 시장 사거리를 지나 두부가게를 휘돌아 건너 편 반찬가게로 스며든다.

두부가게 문이 열리고 불이 켜진다. 젊은 주인은 입구에 놓였던 플라스틱 상자들을 밖으로 들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물에 불은 콩이 맷돌분쇄기에 쏟아지고 갈려진 콩물이 쏟아져 원통의 스텐 용기에 몽실몽실 담긴다. 두부가게 젊은 사장의 아름다운 근육이 불끈불끈 뭉쳤다 풀어졌다 한다. 큰 몸짓이 우아하고 넓다. 그 사이 앞집 반찬가게도 미명에서 벗어났다. 주방에서 삶아진 나물을 찬물에 행구어 낸다. 땀뻑하고 푹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다가설 수 없다는 신념일까?

뜨거운 물속에서 견뎌내던지, 소금물에서 놀림 돌에 눌러 한 계절을 버텨내던지, 자신의 아집을 버려야만 누군가의 반찬이 될 수 있다는 고집일까? 반찬을 만드는 손은 단호하다.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30첩 밥상을 차릴 모양이다.

먼동이 트기도 전에 화물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둠을 헤치며 생선가게와 야채가게 사장님들은 물건을 사러 도매시장으로 떠났다. 매일 싱싱한 생선과 야채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생선가게와 야채가게 사장님들은 특 아침형인간이다. 생선을 실은 봉고차가 생선집 앞에 멈추고 얼음자루와 생선이 내려진다. 좌판에 얼음이 깔리고 생선들이 그 위에 놓인다.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활어와 살아있는 쭈꾸미, 낙지 등은 산소 공급을 해주며 깨끗한 물에 넣는다,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생선가게에서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싱싱한 것이 첫 번째 덕목이다.

야채가게 트럭도 가게에 야채를 내려놓는다. 야채는 종류도 많다. 파, 마늘, 오이, 시금치, 배추, 무, 열무, 열加里, 고추, 양파, 상추, 쪽갓, 가지, 파프리카, 팽이버섯, 느타리, 양송이……

저 많은 야채들을 하나하나 한순간에 꿰뚫어 보아야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야채가게 사장은 생활의 달인이다. 만져보지 않아도 맛보지 않아도 보는 순간 다 꿰뚫어 보는 달인이다. 땀을 흘리며 익히고 익힌 몸의 기억이 동물적 감각으로 작동하는 생활의 달인이다. 야채가게 사장은 트럭에서 싣고 온 야채를 가게에 하차하고, 손님들에게 팔고, 때론 배달도 해주며 오늘도 하루 종일 땀을 흘릴 것이다.

시장이 서서히 밝아진다.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

다. 상점들도 하나, 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한다.

오랜만에 아침이 한가한 떡집아줌마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쏟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김이 오르는 믹스커피를 쟁반에 받쳐 들고 가게를 나선다. 두부가게 젊은 사장이 두부를 자르다 말고 달려 나가 커피잔을 받아 들고 그 자리에서 한 모금 마시고는

“최고!”

라며 엄지를 추켜세운다. 좌판에 얼음을 깔고 생선을 진열하던 생선가게 총각들도 노란고무장갑을 벗고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고 받아든다. 야채가게부부와 떡집부부가 야채가게 앞에 서서 믹스커피를 마신다. 커피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 감미롭고 달달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야채집 사장이 입김을 내뿜으며

“역시 커피는 떡집 마담 커피가 최고야.”

너스레를 떠든다. 떡집아줌마가 입술에 침이나 바르라며 대꾸 할 때

“떡 주세요.”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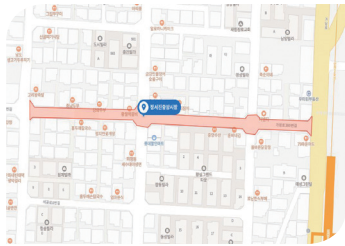
떡집아줌마 힘차게 외치고 달려간다. 정서진중앙시장의 하루가 시작 된다.

2. 정서진중앙시장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현재

1) 형성과정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시장이라고 한다. 구체적
적인 실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의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다. 4차산업 시대에 들어 선 지금 시장
은 다양하고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전통시장은 어쩌면
그 많은 종류의 시장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시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첨
단 현대적인 시장이 아니고 옛 정취를 간직한 오래 된 시장이다. 이러
한 전통시장의 형성과정은 대부분 지역의 발전으로 인한 소비증대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이 쇠퇴 할 때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서구 가정동 원창로 239번길 10에 위치한 ‘정서진중앙시장’
은 1980년대 초 부터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와 1980
년대 서구는 수출과 빠른 산업화로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많은 사
람들이 유입되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와 연결 된 가정오거리
는 서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접한 가정동과 신현동은 특별한 수혜를 입고
빠르게 성장, 발전 했다.



〈그림 1〉 정서진 중앙시장의 모습



〈그림 2〉 정서진 중앙시장 외부 전경

‘가정로’ 개통과 ‘신현주공아파트’ 준공 그리고 주변에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지어지면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다. 1983년 변두리 농경지였던 신현동 254 번지 일대 5만2천여 평에 건립된 신현주공아파트는 1천850여가구(13평~25평)로 5층짜리 건물 55동으로 지어졌다. 당시 서구지역에 최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시장도 자연적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당시 정서진중앙시장이 형성되기 전 신현주공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신현쇼핑센터’가 먼저 이곳의 상권을 움켜잡았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총면적 약 3,000여평)에 120여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하 1층에 야채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방앗간, 떡집, 순대국집, 분식집 등 60여개 점포가 자리 잡고 1층에는 속옷가게, 옷가게, 금은방, 부동산 등이 자리 잡았다. 2층에는 병원, 식당, 찻집, 학원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신현동과 가정동은 물론 가정오거리 주변과 멀리 검단에서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찾았다. 주변에 이렇다 할 시장이 없던 시절이다. 주로 식료품 가게로 형성 된 지하1층은 늘 사람이 많았다. 낮에는 분식집에 저녁에는 순대국집에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잔도 기울였다. 주부들이 장보러 나오는 장시간에는 지하1층 상가에는 사람들로 미어졌다. 신현쇼핑센터가 활성화 되면서

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시장을 보러 오게 되었고 이후 정서진중앙시장이 형성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⁹⁴⁾

또한 1980년대 초 신현주공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가정로 370 번 길’을 따라 많은 상가 건물이 지어졌다. 대체로 3~5층의 상가들이다. 가정로 371에 위치한 1984년에 지어진 ‘가정 빌딩’에서 가정로 396 현 국민은행 신현동지점 방면으로 상가 건물이 지어졌다. 이 상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상점마다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 중에 ‘새인천상가’가 제일 크고 중심에 있었다, 정서진중앙시장과 가정로를 따라 ‘ㄴ’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지어졌다.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 20여개의 상점이 자리 잡았고, 2층과 3층에도 그와 비슷한 가게들이 자리 잡았다. 새인천상가의 가정로 쪽 상점에는 옷가게, 화장품가게, 제과점, 약국 등이 자리를 잡고 시장 골목으로는 정육점, 야채가게, 분식집, 금은방, 곱창집 등이 자리 잡아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새인천상가에 자리 잡은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며 호황을 누렸다.

94) 이재곤 사장님 증언. 신현쇼핑센터 지하1층에서 ‘우리방아간’ 20년 운영.



〈그림 3〉 새인천상가(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

그리고 가정로 370번길을 따라 이어진 다른 상가건물 상점들도 인 기리에 임대 되었다. 이 상가건물 상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호경 기로 인한 소비증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각종 상점들이 모여 있는 이곳으로 주 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도로가에서 벗어난 상가건물 상점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도로가에서 벗어난 이들 상점들은 대체로 식당과 저렴한 술집들이 많았다.

당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장 노동자들 이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났다. 공장근로자들과 직장 남성들은 일과가 끝나면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하면서 어울리는 문화가 형성되고 일상 이 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친목회를 만들 어 함께 어울리고 식당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불야 성을 이뤘다. 이때부터 외식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지역경제도 서서 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곳에 식사와 술을 겸한 저렴한 식당들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순대국집·곰창집·닭갈비집·메기매운탕집 등이 이곳에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저렴하고 넓은 식 당 겸 술집이 많은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찾아왔다. 그

로 인해 이곳이 주변지역에 알려지고 식당들은 늘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 중 ‘성원닭갈비집’과 ‘평양옥’은 지금까지도 서민들의 취향과 입맛을 움켜잡고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가정로 370번길을 따라 지어진 상가건물과 새인천상가는 정서진중앙시장의 형성에 많은 역할을 했고 정서진중앙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⁹⁵⁾



〈그림 4〉 성원닭갈비



〈그림 5〉 평양옥

1980년대 말부터 현재 정서진중앙시장 입구 주변으로 노점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신현쇼핑센터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위에 자연스럽게 노점이 생겨났다.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물건을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때론 노점상들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을 살리는 순기능을 할 때도 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비슷하듯이 이곳에서도 처음에는 다라에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을 담아 파는 ‘다라쟁이’ 할머니들과 엉성하게 좌판을 펼치고 물건을 파는 노점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유동인구가 점점

95) 정군섭 서구문화원장님 증언. 당시 신현주공아파트 거주. 구의원

늘어나고 물건이 잘 팔리면서 노점들이 차츰 늘어났다. 노점상들은 고정 자리를 확보하고 채소나 과일 그리고 생선 등을 팔기 시작했다. 때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점상끼리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그로인해 노점 단속반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때는 이리저리 쫓겨 다니기도 하고 노점을 접고 단속반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일부 노점상들이 현 정서진중앙시장 골목에서 자리를 잡으며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일부 자본을 확보한 노점상은 상점을 임대해 터를 잡고 장사를 시작했다. 이때의 노점상들 또한 초기 정서진시장이 형성 되고 성장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림 6〉 정서진중앙시장 내부 사진

2) 초기 시장과 성장과정

‘정서진중앙시장’은 1989년 변영회가 구성 되면서 시장으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시장으로써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갖추어져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언제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저 늘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있어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서진중앙시장(당시는 ‘신현중앙시장’ 또는 ‘가정중앙시장’으로 불렸다.)은 식자재와 생활용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배추와 무 그리고 대파와 열무 상추 등이 철 따라 진열되기 무섭게 팔렸다. 생선가게에 생선도 모두 완판 되며 매일 매일 판매량을 늘리며 호황을 누렸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 물건을 구입하려면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흥정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당시 도심의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상거래 장소였다. 정서진중앙시장도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수요에 상점이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해도 정서진중앙시장은 시골 오일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택가 사거리에 준상가 건물만이 상점을 갖추고 장사를 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담벼락 앞에 상품을 쌓아 놓고 파는 노점과 ‘다라쟁이’ 할머니들이었다. 그 때 주택가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형성 된 정서진중앙시장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는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장사는 잘 되고 손님은 늘어나는데 상점이 부족했다. 노점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제반시설을 갖춘 상점이 있어야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단독주택 담벼락을 허물고 그곳에 상점을 만들 생각을 했다. 담벼락을 허물고 그 안에 단독주택 지하방의 벽을 허물어 합쳐서 그 공간을 상점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다. 상점이 필요한 상인은 많은 돈을 주고 지하방을 얻어 그곳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점을 만들어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다른 단독주택들도 담을 허물고 지하방 벽을 허물어 상점으로 만들었다. 단독주택 주인은 세를 놓아 좋고 상인들은

노점을 벗어나 상점에서 장사를 해서 좋았다. 정서진중앙시장에는 상점이 움푹 들어가 있는 상점들이 많다 이 상점들이 다 단독주택 담을 허물고 지하방을 허물어 만든 상점이다. 이것은 상점과 상점 간에 단절을 이어주게 되었고, 일직선으로 이어진 상점들로 인해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었다.⁹⁶⁾

시장 변영회는 이후 상인회로 발전하였고 1993년 상인회 초대집행부(회장; 한민석)가 결성 되었다. 이후 2014년 ‘문화관광형전통시장’으로 선정되면서

“낮에는 ’전통시장’ 밤에는 ’문화갤러리’”라는 슬로건 아래 특화 된 전통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3) 현재

2014년 ‘문화관광형전통시장’으로 선정 되면서 ‘신현중앙시장’ 또는 ‘가정중앙시장’으로 불리던 시장 이름이 ‘정서진중앙시장’으로 바뀌었다. 2014년 ‘제17회 아시안 게임’이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을 중심으로 개최 되고, 문화관광형전통시장으로 선정 된 것을 계기로 ‘정서진중앙시장’으로 변경 되었다. 정서진과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지역 관광지와 지역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의미로 관계기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정서진중앙시장은 상인과 상인회가 힘을 합쳐 서구청과 협조하여 시장을 현대화 해 나가고 있다. 상인회는 소비자들이 쾌적하고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아케이드 사업을 실시했다.

96) 충남수산 이상기 사장님 증언

이 사업으로 고객들은 눈·비 등에 구매 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상인들은 파라솔을 치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허둥대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 주민이나 고객들이 쉽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숙원사업이었던 ‘고객 주차장’을 만들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정서진중앙시장에서는 대형쇼핑센터에 뒤지지 않게 소비자가 쇼핑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농축산 상품과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에서 전자화폐·상품권·이음카드·제로화폐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상점이 단말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형전통시장’으로써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며 전통시장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 천정에 ‘보름달’ 조형물과 커다란 ‘종궐’ 조형물을 만들어 걸어놓아 우리민족의 고유정서를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날 소원의 종을 울리게 하는 이벤트도 시행하여 정서진중앙시장과 소비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흥겹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서진중앙시장은 주변에 ‘청라지구’와 ‘가정지구’ 그리고 ‘루원시티’가 조성 되어 시장에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며 젊은 고객들이 약속과 추억의 장소로 늘 찾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밤 10시30분이 지나면 정서진중앙시장은 별이 뜨고 ‘문화공간 갤러리’가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 꿈과 사랑을 나누는 모임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정서진중앙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7〉 종



〈그림 8〉 보름달

196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 유통업체 및 국내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입과 함께 유통채널이 다양화 되어 지역의 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전통시장의 기능이 쇠퇴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유통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기획능력, 점포관리, 운영능력, 서비스능력을 통해 편리성, 쾌적성, 다양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에 뒤처지는 추세에 접근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상인의 고령화, 시장관리, 점포경영,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능력과 같은 경영 능력이 부족하여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⁹⁷⁾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에 그려진 역사의 기록임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융화되어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탄생된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통시장은 상업적 기능이 주된 목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살게 되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 지리적 측면과 어떻게 삶의 터전으로 형성

97) 전창진·정철모, 「전통시장의 상인조직형태에 따른 특성 분석」, 『주거환경』, 25, 한국주거환경학회, 2014, 287~297쪽.

되었는지를 간직한 문화의 장소 이기도 하다.

문화관광형전통시장인 ‘정서진중앙시장’은 상거래 장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소로서의 기능에도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4) 정서진중앙시장 현황

개설일	1989. 8. 18	등록/인정일	2005. 4. 15 / 2006. 3. 15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239번길 10(가정동)		
대상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공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상설시장)		
점포수	영업점포(128)개 + 빈 점포(0)개 = 총점포(128)개 사업자등록(128)개, 카드가맹(128)개, 온누리상품권 가맹(128)개		
종사자 수	상인(128)명 + 종업원(300)명 + 노점(8)명 = 총(436)명 30대이하(10%), 40대(30%), 50대(30%), 60대이상(20%)/남성(65%), 여성(35%)		
1일 고객수	'20년(20,000명) → '21년(20,000명) → '22년(21,000명)		
가격, 원산지 표시	128개 점포 중 128개 점포 포기(100%)		
상권특성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 단위)		
경쟁점포 현황	300m 인근 서경백화점 및 금강아미움 쇼핑센터		

■ 판매품목비율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18	11	8	45	25	9	4	8	128
비율(%)	14.1	8.6	6.3	35.2	19.5	7	3.1	6.3	100

3. 주변 대형 상가

1) 금강아미움 상가(구 신현쇼핑센터)

‘금강아미움’ 쇼핑센터는 서구 신현동 272번지(구 신현쇼핑 부지)에 재건축한 상가이다. 지하 5층~ 지상18층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상가점포는 103개이고, 상가 총면적은 16,883㎡이다.

지하1층에는 대형마트와 소매점이 입주 해 있고, 지상1층에는 각종 판매점과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다. 지상2층에는 일반 음식점, 푸드 코트가 자리 잡고 지상3층에는 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지상4층과 5층에는 전문 학원, 휘트니스, 스크린골프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강아미움 상가는 정서진중앙시장이 해결 할 수 없는 외식, 문화, 교육, 마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9〉 금강 아미움 상가

구 '신현쇼핑센터'은 1980년대 중반에 지어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쇼핑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하 1층에는 방앗간, 생선가게, 정육점, 야채가게, 떡집, 분식집, 순대국집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쇼핑하기에 좋았다. 당시 '신현중앙시장'(정서진중앙시장 전 명칭)과 함께 여러 가지 상품이 팔리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어느 때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신현중앙시장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장사 즉 자영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상점을 분양받아 장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러한 흐름에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이 신현쇼핑센터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꾸준하게 장사를 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 자립을 했다. 그러나 정서진중앙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신현쇼핑센터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신현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되면서 신현쇼핑센터는 쇼핑센터와 주거를 겸한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하였다.

2) 서경백화점

'서경백화점'은 서구 가정로 369에 위치한 940여 평에 지어진 연건평 약 4,385평의 지하 3층 지상5층의 건물이다. 서경백화점은 1992년에 '우주건설'이 '우주백화점'으로 분양을 하였다. 그러나 1993년 우주건설의 사기분양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1994년 '우리백화점'으로 개점했다. 그리고 다시 1997년 '서경백화점'으로 재개점 했다. 90년대 간석동에 '희망백화점', 인현동에 '인천백화점'과 함께 인천의 3대 백화점으로 지어졌지만 1993년 시행사의 사기분양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반상가로 전락하였다.

현재는 지하에 생활용품 마켓과 1층에 대형마켓이 자리 잡고 있고

2층~5층 사이에 생활전자제품, 병원, 헬스장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요즘은 서경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이나 건강의료기기 등이 지역광고 방송에 자주 나와 서경백화점을 알리고 있다. 이 광고 속에 광고하려는 제품보다 서경백화점이 더 광고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서경백화점이 화려하게 꾸며져 본연에 모습으로 상품이 가득 차 정서진중양시장과 함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림 10〉 서경백화점

4. 상인회와 자원봉사단

1) 상인회

‘정서진중양시장 상인회’ (회장: 김해영. 세일세일 연주네 의류)는 상점의 번영과 발전, 상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밤낮으로 바쁘다.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

인회는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소비자 보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추진, 온누리상품권 판촉 및 시장 홍보 등 전문적인 마케팅을 사업육성단과 복합적으로 논의 하여 정서진중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활동사례 |

가. 아케이드 사업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지붕과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6:4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 아케이드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에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서진중양시장은 2차에 걸쳐 시장 전체에 아케이드 사업을 완성했다.

전통시장은 햇빛이나 눈·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늘 불편했다. 눈·비를 막아 줄 가림 막이 없고 무질서한 전통시장은 흥이 있고 정이 넘쳐나지만 고객들이 쇼핑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다. 특히 요즘 쇼핑을 시간 내서 즐기는 젊은 세대에게는 난전亂廛 같은 전통시장은 외면 받는다. 많은 고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아케이드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숙원 사업이다. 잘 정비 된 전통시장은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정서진중양시장은 2023년 아케이드 사업이 완성됨으로써 상점들이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 좋은 환경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상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 의욕적으로 영업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나. 주차장

상인회에서는 정서진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을 관계기관에 꾸준히 제기한 결과 2018년 80여대의 자동차다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완공하게 되었다.

인천 서구 원창로239번길 11에 위치하고 있는 ‘정서진중앙시장주차장’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2번 출구에서 178m에 위치하고 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이다. 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주차 1시간 무료다.

멀리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지나가다 전통시장에 들러 물건을 사고 싶은 고객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 문제였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주차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 되는 ‘정서진중앙시장 한마음 축제’가 주차장에서 거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코로나 발생으로 시장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해 전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 지원센터

상인회에서는 상인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쉬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센터 1층을 ‘노을카페’로 개조해 고객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간단한 식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지역 주민과 고객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다. 고객센터 입구에는 ‘정서진중앙시장 점포배치도’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센터 지하에는 ‘예술골방’을 오픈해 지역주민과 고객에게 예술창작의 장소를 제공하고 예술전문가를 초대해 강의와 함께 실습을 통해 예술 활동을 지원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서진중앙시장 상인회는 시장과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꾸준히 확보해 정서진중앙시장을 최고의 문화관광형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1〉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그림 12〉 고객지원센터

라. 정서진중앙시장 역대 집행부

초대 집행부 1993~1995 회장 : 한민석

2대 집행부 1996~1999 회장 : 김재우

3대 집행부 2000~2000 회장 : 유동희

4대 집행부 2000~2003 회장 : 이재길

5대 집행부 2004~2008 회장 : 이재길

6대 집행부 2009~2012 회장 : 이재길

7대 집행부 2013~2016 회장 : 이재길

8대 집행부 2016~2019 회장 : 김해영

9대 집행부 2019~ 회장 : 김해영

2) 자원봉사단

정서진중앙시장 자원봉사단(회장: 변상숙. 상인회장 부인)은 시장 상인으로 50대~70대의 여성 2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핵심 활동회원으로 자원봉사단 회장을 비롯해 나승임(꼬꼬닭집), 김정연(가마솥 국집), 정시현(소문난 떡집), 이양숙(포차) 여사 등이다. 이들 모두는 봉사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 자원봉사단원들은 장사하는 바쁜 와중에도 봉사시간만 되면 시장과 고객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즐겁게 봉사에 임하고 있다.

“물건을 팔아주는 고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자신을 낮춘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고 나면 정작 자신들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그들은 정서진 중앙시장의 숨어 있는 보석들이다.

| 활동사례 |

가. 코로나 시장 방역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세상으로 바뀌고 코로나 감염의 불안으로 전통시장은 현저하게 고객이 감소하고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시장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하게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장 구석구석을 철저히 소독했다. 여성들의 꼼꼼함과 꾸준한 활동으로 코로나 시기 시장과 고객들의 안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나. 김장봉사와 국수무료봉사

해마다 손수 준비한 배추와 양념으로 김장김치를 만들어 지역에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국수를 삶아 점심으로 드실 수 있게 봉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봉사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다. 덩시락 봉사

덩시락은 ‘덩’ + ‘시락’ 합성어로 지역 유관기관에서 도시락을 주문받아 공급하면서 도시락을 덩으로 더 만들어 정서진중앙시장 활성화와 지역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도시락 만드는 일을 봉사함으로써 지역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고 있다.

라. 폐 현수막 장바구니 제작

사용하고 난 현수막을 수거하여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누워 주고 있다. 반응이 좋고 찾는 사람이 많다. 폐 현수막 부족으로 많은 장바구니를 만들 수 없어 서구청으로부터 수거한 폐 현수막을 지원 받아 부족한 장바구니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

마. 야간방범 순찰

자원봉사단에서는 야간에 시장을 방범순찰 했다. 여성으로써 야간에 방범을 위해 시장을 순찰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단은 의기투합하여 시장 도난 취약지역을 철저히 순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방범순찰은 코로나 이후 멈추었고 코로나 기간 시장을 정기적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바꾸어 봉사를 했다.⁹⁸⁾

5. 전설을 만들어가는 시장사람들

집념과 열정으로 일군 ‘충남수산’

‘충남수산’ 이상기(1960년생) 사장은 오늘도 새벽 수산물 경매시장에서 싱싱한 생선과 활어를 가득 싣고 해 뜨기 전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를 열고 장사를 준비하던 아들(종훈, 83년생)이 아버지의 모습을 살피며 차에서 생선을 내린다. 60중반을 넘기신 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이다. 혹시나 하고 살폈지만 역시 건강하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열정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10여 년 전 이상기 사장은 아들에게 생선 장사를 가르치고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줬다. 충남수산은 정서진중앙시장에서 2대가 이어가며 장사하고 있다.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기 사장은 화물차에서 생선을 모두 내리고, 싣고 온 바닷물을 수족관마다 채운다. 그리고 구매한 생선마다 가격을 알려주고 화물차를 몰고 시장을 벗어난다.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 이상기 사장은 6남매 중 넷째로 17살 때 서울로 상경해 기술을 배우고 양평동에서 형과 의료기기 공장을 했다. 80년대 초 다시없는 호경기로 공장이 잘 돌아갔다. 그렇지만 형과 뜻이 맞지 않아 독립하여 공장을 차렸다. 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98) 정서진중앙시장 육성사업단 이경수 사무국장 자료제공

그러나 납품하고 난 후에 받은 어음이 자주 부도가 났다. 밤을 새우며 고생고생한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의욕이 사라졌다. 이 때 다른 직업도 알아보고 머리로 식힐 겸, 인천 서구 ‘거북시장’에서 생선장사하는 처형 가게로 눌러갔다.

90년대 초 거북시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멀지 않은 곳에 영창악기와 목재공장들이 있어 월급날이면 시장에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에 콩나물처럼 바글바글 했다. 처형의 생선가게는 손이 부족해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그 당시 92년도에 하루 판매액이 70만원이 넘었다. 처형은 생선장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노래방이나 할 생각이라며 맘에 있으면 생선 장사를 해보라고 했다. 장사 되는 것을 보니 하고 싶은 욕심이 은근히 생겼다. 이후 추석 명절에 공장도 쉬고 해서, 장사도 도와줄 겸 처형가게에서 생선을 팔아 보았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할 만 했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도 없던 생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상기 사장이 거북시장이 아닌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게 된 것은 가게를 넘겨주겠다던 처형이 가게를 넘겨주지 않아서다. 8개월 가까이 처형과 생선 장사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넘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 없이 처형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선 장사를 하기 로 결심했다. 처형가게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기존에 생선장사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생선을 구입하는 방법에서 판매하는 방법까지 완전하지는 않아도 꿰뚫었다. 어떤 시장이라도 생선 장사를 하면 성공할 자신감이 생겼다. 인천 시내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사 터를 물색한 끝에 이곳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1993년 정서진중앙시장을 둘러보러 왔을 때 이곳에서 야채 장사하는 지인을 만났다. 당시 이곳 정서진중앙시장은 거북시장보다는 작고 시장에 사람도 적었지만 장래가 밝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의 도움으

로 지인가게 앞 단독주택 담벼락 앞 노점에서 생선장사를 시작했다.

집념이 강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이상기 사장은 단독주택 담벼락을 허물고 안쪽 지하방을 세 얻어 벽을 허물고 가게로 만들었다. 장사는 틈틈이 오후머로 담벼락과 벽을 허물어 손수 만들었다. 그렇게 없는 공간을 가게로 만들어 생선 장사를 했다. 어렵게 시작한 생선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이웃에서 생선장사하는 사람이 달려와 행패를 부렸다. 허가도 없이 장사한다고 파는 생선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고발하겠다고 소리쳤다. 참고 견뎠다. 신고도 당해 벌금도 물고,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빨리 돈을 벌어 가게를 구입하고 떼떈하게 장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시련은 안팎으로 몰아쳤다. 그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내와 열심히 장사를 해 모은 돈을 가까운 친척에게 모두 사기 당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면서 가게를 빼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대로 가게를 빼고 나갔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아이들은 커가고 이제 막 장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다. 주인에게 맞서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며 악착같이 3년을 버텼다.

이상기 사장은 3년 동안 옷을 벗고 잔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란다.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밤 11시에 시작하는 노량진 경매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가게에 오면 새벽 3~4시다. 물건을 가게에 내려놓고 다시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인천 수협 공판장 경매시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경매 받은 생선을 싣고 가게에 오면 아침 7시경이다. 그리고 생선을 진열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또 하루가 시작 되는 것이다. 잠은 경매를 기다리며 차 속에서 잤다.

그렇게 3년 동안 모은 돈과 90% 가까운 돈을 대출과 친척으로부터 빌려 맞은 편 단독주택을 1996년도에 사게 되었다. 다들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 가게에서 장사만 하면 얼마든지 대

출금과 빌린 돈을 갚을 자신이 있었다. 비록 빚을 지고 구입했지만 집과 가게가 생기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다. 그 이후로 놀러 한 번 안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5년 가까이 새벽 경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고등어 토막치고 동태 포 뜨고 물텀병이 배 가르며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정서진중앙시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장사를 했다.

이제는 부동산도 구입해 놓고, 아들에게 가게도 넘겨 조금은 여유가 있다. 요즘은 사위도 나와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 이상기 사장은 이제 손 놓고 쉬어도 되지만, 아들과 사위가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가게에 나와 굶은일을 하고 있다.

이상기 충남수산 사장에게 30년 가까이 생선장사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 보았다.

“글쎄요.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가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장사 잘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사 한다고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 소풍, 운동회 한 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없이 따라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꼭 할 말이 있다는 듯 말을 잇는다.

“나는 복이 하나도 없데요. 그런데 아내는 복이 들고, 이고, 지고 갈만큼 많데요. 아내 덕에 사나 봐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인다.



〈그림 13〉 충남수산



〈그림 14〉 충남수산 사장님

정서진중앙시장이 준 행운, ‘띠꾼이네 닭강정’

“정서진중앙시장은 내게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는 ‘띠꾼이네 닭강정’ 황현숙(69년생)사장은 얼굴 가득 감사와 기쁨이 출렁인다. 주말에는 닭강정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띠꾼이네 닭강정은 인기가 많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긴장과 시련의 철저한 통과의를 거쳐야만 했었다.

스물아홉에 결혼하여 딸을 낳고 닭가게를 시작했다. 강화 교동이 고향인 남편(이우찬 69년생)은 닭 사업하는 고모부 곁에서 일을 돕고 있었고 시어머니(권정금 48년생)도 고모와 함께 닭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닭가게를 하게 되었다.

1996년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정서진중앙시장 인근에 가게를 얻어 남편의 닭 도매업을 도왔다. 남편은 식당, 시장에 닭집, 공장 등에 닭을 납품했고 자신은 입출장부를 기록하는 정도로 가게에서 일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생닭 소매를 시작했다. 자상하신 시어머니께서 항상 곁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부지런한 남편은 성실히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그렇게 5~6년이 흘러 사업은 확장 되었지만 악성 미수금이 늘면서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매출은 적지만 소매는 수익이 괜찮았다. 생닭 배를 가르고 토막 내는 일은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손에 익었다. 그래서 정서진중앙시장 좋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소매도 하면서 통닭도 튀겨 팔고 닭강정도 만들어서 팔며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좋은 자리는 권리금도 많고 자리가 나지 않았다. 났다 해도 소리 소문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서진중앙시장에 좋은 자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때 행운이 황현숙 사장에게 찾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싸들고 와서 가게를 얻겠다고 했는데도 모두 거절하고 주인은 황현숙 사장에게

가게를 세 놓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15년이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는 목이라는 말이 있다.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생닭, 옛날 통닭, 닭다리 튀김, 통집튀김 등 상품 판매량이 늘어났다. 판매량이 늘어나다보니 평소 남편과 꿈꾸었던 닭강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 젊어서부터 닭강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손수 닭강정을 만들며 오랫동안 익힌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다. 닭강정을 만들 때 깊고 독특한 맛을 낼 수 만 있다면 몸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마다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 닭강정을 만들었다. 스텐 튀김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힘들어도 가마솥에서 닭을 튀기고, 소스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그리고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닭강정의 품질을 높였다.

닭강정이 남녀노소 인기 품목이 되면서 더욱 맛있고 차별화 된 닭강정을 만들기 위해 소스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맛있는 소스를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마침내 발효와 숙성을 거쳐 맛과 영양이 크게 향상된 ‘흑마늘 소스’를 개발했다. 시중에는 전혀 출시되지 않은 소스다. 개발한 흑마늘 소스 닭강정은 반응이 아주 좋았다. 닭강정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소스를 개발하여 달콤과일닭강정, 바비큐닭강정, 매콤달콤닭강정, 간장맛닭강정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흑마늘닭강정은 특허 등록된 상품으로 띠끌이네 닭강정의 대표상품이다. 음식대회에서 닭강정을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띠끌이네 닭강정’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고 매상이 늘었다.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합류 하면서 3대가 하는 띠끌이네 닭강정으로 소문이 났다. 또한 메스컴과 블러거, 유튜브 들에게 소개 되

면서 택배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판매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닭강정 선물세트도 준비중에 있다. 종류별로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한 세트로 만들어 선물용으로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띠꾼이’는 강화 지역에서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이를 이르는 말로 어릴 적 남편이 ‘띠꾼이’였다고 한다. 그것을 상호로 정한 재치가 돋보인다.

올 해처럼 더운 여름도 없었다. 기름이 펄펄 끓은 가마솥에서 땀을 뿜뿜 흘리며 닭을 튀기는 황현숙 사장에게 물었다.

“행복하세요?”

“그럼요. 행복하지요. 제게는 늘 행운이 함께 하거든요.”

“늘 행운이 함께 해요?”

“네, 시어머니, 남편, 딸, 아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고, 닭 사업을 하는 것도 행운이거든요.”

황현숙 사장은 닭 사업을 하는 것이 행운이라고 한다. 닭은 시대의 흐름을 타며 늘 먹거리의 중심에 있어서라고 한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닭은 인류와 함께 하면서 인류에게 무한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계란은 각종요리에 핵심과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닭고기 또한 다양한 먹거리로 만들어져 인류에 제공 되고 있다. 즉 닭 사업은 꾸준히 발전하는 성장산업인 것이다. 황현숙사장의 손등과 팔뚝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 데인 상처들이 문득 아름답다.

‘띠꾼이 닭강정’에서는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으로 이웃에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인근 군부대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미약하지만 음식과 노동봉사를 하고 있다. 그때마다 힘이 솟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남편은 축제나 페스티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닭강정을 비롯한 한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제게 늘 행운이 함께 할 거라며 황현숙 사장은 밝게 웃는다.



〈그림 15〉 띠꾼이네 닭강정



〈그림 16〉 띠꾼이네 닭강정 사장님

노점에서 떠오른 태양, ‘유명한 지집이’

‘유명한지집이’ 가게 유용국(60년생)사장의 눈을 보고 있으면 눈 속에 아련히 애환이 출렁인다.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바다가 출렁인다. 유용국 사장이 ‘정서진중앙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경영하던 공장 두 개가 문을 닫고 꿈과 희망이 사라진 후 이다. 매출이 늘어나는 공장에 무리하게 투자하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 빚에 그만 무릎을 꿇었다. 남동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대우, 현대 등 대기업에 납품하던 유용국사장은 회사가 부도나며 삶의 의욕을 잃고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때, 물에 손 담구는 일 없이 살던 아내가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가장과 가정을 그대로 방치 할 수 없어 시장 노점에서 지집이, 호떡, 토스트, 묵, 두부, 등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유용국 사장은 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노점에 한 번 나와 보라고 했지만 대답만 하고 해안가를 쓸쓸히 하염없이 걸으며 극단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아내가 노점을 시작하고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아내가 장사하는 노점에 가게 되었다. 바람이 몰아치는 한 겨울 이었다.

아내는 바람막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장바닥에서 조그맣게 좌판을 펼쳐 놓고 지짐이, 호떡, 묵, 두부 등을 팔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아내는 추위에 입김을 허영게 뿜어내며 쭈그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옛날, 겨울에 마부들이 쓰는 빙거지를 눌러 쓰고 누추한 외투를 두툼하게 끼어 입고 목장갑을 끼고 호떡을 뒤집고 있었다. 추위에 감기기운이 있는지 툭툭거릴 때마다 흐르는 콧물을 휴지로 닦아내며 시장바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떨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본 순간 유용국사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다. 어금니를 물며 결심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거다. 반듯이 성공해서 아내와 가족에게 떳떳한 가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아내와 같이 노점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점은 보증금 없이 하루에 8만원씩 내고 장사 했다. 그리고 주변 반 지하 월세방을 얻어 살림을 시작했다. 좋은 차를 타고 거래처 사장들과 좋은 음식만 먹으며 주말이면 골프를 치며 살던 50대 초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유용국사장이 맞이한 현실은 춥고 암담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 결심하면 옆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현실에 맞서며 하루하루 견뎠다. 꼼꼼하고 성실한 아내는 비록 노점에서 파는 음식이지만 청결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리고 유용국 사장은 회사를 경영할 때 거래처 사장들을 최고로 대접하고 자신 또한 최고로 대접 받으며 회사를 운영했던 마인드를 시장에서도 철저히 지켰다.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비록 값 싸고 보잘 것 없는 상품이지만 자신의 상품을 사가는 사람들을 최고의 고객으로 대접하며 물건을 팔았고 자신도 최고의 대접을 받기 위해 항상 겸손하게 살았다. 힘들 때마다 정서

진중양시장에서 반듯이 성공하여 가족에게 당당한 가장이 되겠다고 다짐 했다.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손님이 생기고 조금씩 장사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장사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간 열심히 장사한 결과 몇 천만이 저축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게를 얻어 더 크게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자리는 시장에서 외진 곳이었다. 정서진중양시장 입구에 비해 현저히 유동인구가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좋은 장사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지금의 자리는 가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운데 자리를 얻으면서 주인에게 부탁했다. 나중에 옆 가게가 나가면 자기에게 세를 놓으라고 했다. 가게를 크게 넓혀 장사를 할 생각을 했다. 기업을 운영 할 때의 마인드가 남아 있어 큰 그림을 그렸다. 시장입구에 노점은 접지 않고 그대로 운영했다. 이곳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힘들어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자리에서 생애 처음으로 ‘유명한 지짐이’ 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다. ‘유명한’은 아들의 이름이다. 동태전, 호박전, 두부부침, 빈대떡, 새우튀김 등 지짐이를 전문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술 한 잔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게 밖에서 만들어지는 전은 포장 판매를 했고, 실내에서는 전을 안주로 술 한 잔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재고 없이 만들어진 전들이 다 팔렸다. 아내는 항상 최고의 재료로 특별히 맛을 낼 수 있게 전마다 레시피를 만들어 전을 부쳤다. 장사가 점점 잘 되었고 옆에 가게도 모두 얻어 크게 확장하였다. 요즘 하는 말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전에 술 한 잔 하려고 찾아 주신다. 그렇게 십오 년이 넘게 흐

르고, 전에서 벗어나 장어구이, 생선구이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가게도 있다. 처음 정서진중앙시장에서 노점을 시작 할 때를 생각하면 꿈같다.

유용국사장은 삼척에서 태어나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를 다니다 말고 생계를 위해 배를 타야만 했다. 유용국 사장은 어린 시절에도 모든 일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유전자를 타고 났다. 학교 다닐 때는 교육부장관 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배를 탈 때도 어린 나이지만 어른 못지않게 일을 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직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다. 그 성실함에 회사 회장님께서 납품회사를 차려 주었고 그 계기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의 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생이 롤러코스터다. 180도 어느 때는 360도 급회전하며 여기까지 왔다. 50대 초반에 정서진중앙시장에 와서 60중반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서진중앙시장이 자신의 인생에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진중앙시장은 바닥이 아니었다. 발판이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를 존경한다는 유용국사장의 눈 속에는 오늘도 푸른 삼척바다가 출렁이고 있다.



〈그림 17〉 유명한 지짐이



〈그림 18〉 유명한 지짐이 사장님

6. 나오며

태양이 원적산 위로 떠오르고 정서진중앙시장은 상인들의 소란함으로 밝아진다. 생선가게와 야채가게에 물건이 진열 되고 과일가게에 과일들이 색깔을 뽐내며 정해진 자리에 층층이 쌓인다. 닭강정가게와 족발가게 버너에 불이 오르고 튀김기름과 족발 삶을 들통에 물이 서서히 뜨거워진다. 정서진중앙시장도 서서히 예열된다. 정육점, 분식가게, 건어물가게, 칼국수가게, 의류가게 등 130여 가게가 자신의 방법으로 손님 맞을 자세를 갖춘다. 진열 된 상품들은 모두 그 주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손님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 진열 된 상품을 사 갈 때 상인의 소원도 이루어진다.

정서진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시간이 되면, 떡집과 정육점, 생선집과 야채집 그리고 과일집 등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간절하게 울려 퍼진다.

“맛있는 떡이 세 팩에 오천 원!”

“삼겹살이 한 근에 만원!”

“고등어 세 마리 팔천 원!”

“자두가 한 바구니 오천 원!”

“열무 세 단에 오천 원!”

“싸다 싸! 세일 왕창세일!”

멀리서 들으면 마치 티벳 승려들의 경전 읽는 소리처럼 들린다. 맞춰진 리듬은 없지만 각자의 리듬과 목청으로 외치는 간절한 소리. 그 소리는 구도자(求道者)의 경전 읽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티벳 승려들의 구도를 위한 간절함이나 상인들의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은 간절함은 같을 거라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소리 높여 읽고 암송하는 것처럼 시장에도 장시간에 맞춰 호객소리가 간절히 울려 퍼

진다.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는 가슴을 파고들어 생명의 푸른 물결을 출렁이게 한다. 흥이 있고 정이 있는 ‘정서진중양시장’에는 그 깊은 곳에 맑고 간절한 소원들이 깊은 해류를 이루어 흐르고 있다. 정서진중양시장에서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경건하고 간절한 티벳 승려들의 경전 읽는 소리로 들린다면, 당신 또한 생의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멀리 노을이 정서진중양시장을 포근히 감싼다. 상인들은 지친 몸을 잠시 편한 곳에 기대고 하루를 돌아본다. 하루를 온 힘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았나. 오늘 또 어떤 인연을 새롭게 만나 감사와 희망을 갖게 되었나.

연극배우는 커튼이 내려지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하여 맑은 연기를 한다. 시장에 상인도 어찌면 연극배우처럼 매일매일 같은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어떤 상인은 1,000회, 어떤 상인은 5,000회, 또 어떤 상인은 7,000회 이상을 정서진중양시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한 업종을 20년 하고 있다면 7,000회를 넘게 공연하고 있는 것이다. 30년을 운영한다면 10,000회에 가깝게 공연하는 것이다. 그들은 베타랑이다. 눈 감고도 공연 할 수 있다. 커튼콜은 없어도 오늘도 최선의 최고의 연기를 한 명배우들이다. 장사를 끝낸 상인들이 셔터를 커튼처럼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정서진중양시장에는 별이 뜨고 밤새 축복이 별빛처럼 상점마다 내릴 것이다.



에필로그

epilogue

김영준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지금은 물건을 사러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이전에는 모두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었다. 이러한 시장은 예전부터 있었던 시장이라는 의미로 재래시장이라고도 불렀는데 2010년에 이르러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전통시장은 지금도 여러 지역에 남아있고 인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통시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시장으로는 남동구의 간석시장과 모래내시장, 중구의 신포시장, 동구의 중앙시장 등이 있으며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남동구의 축산물도매시장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할인마트가 존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서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서민의 삶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시장의 지위는 예전과 달라졌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할인마트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구의 중앙시장의 경우는 동인천역에 있던 인천 백과점과 공생관계였지만 할인마트는 그렇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할인마트를 이용하면서 점차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래서 시장들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서구의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시장, 가좌시장, 강남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향토지에서는 이러한 서구의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실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역사자료관에서 나온 「인천의 길과 시장」이 있으며 배경화의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인천학연구」 18, 2013)에서도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구 전통시장의 역사와 모습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인천서구의 전통시장」라는 향토지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향토지는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기타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서구의 전통시장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는 기존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외에도 현지 상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거북시장의 명칭에 대한 기원에 관한 것이 있다. 기존에는 거북시장이 거북상회라는 가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거북시장이 있는 곳이 거북모양이고 거북꼴이라서 지어졌다는 설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거북상회나 지형과는 상관없이 거북상회 상인들이 시장이 오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거북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검단재래시장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검단재래시장은 지금의 검단출장소 앞에 있던 검단유일의 시장이다. 이 시장은 책, 논문, 통계연보 등 문헌에는 잘 등장하지 않으며 신문기사로도 1번밖에 실린 적이 없는 시장이다. 그러나 이 시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상가배치도 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서구의 전통시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각종 지도와 사진 등을 다른 향토지에 비해 많이 활용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사라진 검단재래시장의 경우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상가배치도를 만들었으며 과거 항공지도에 나타난 검단재래시장의 모습을 수록하여 대략적으로라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시장의 경우도 각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배치도 등을 활용했으며 사진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다만 자료로 쓸 수 있는 사진들이 부족하여 많이 넣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이번 향토지는 서구의 전통시장을 어떤 책보다 자세하게 조사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비록 현재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의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천서구의 전통시장」을 통해 그동안 서구의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전통시장이 가지는 의미와 장점 등이 잘 홍보가 되어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해 가는 장소가 아니라 나중에는 문화적으로도 활용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천 서구 전통 시장 연표

시기	주요 사건
1970년 12월	거북시장 개설(석남동 540-15). 점포수 120개소 1969년부터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현 신거북시장 주차장에 노점이 들어서며 시장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음.
1980년 초	신현주공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가정로 370번길을 따라 많은 상가건물이 지어짐
1980년 말	현재 정서진중앙시장입구 주변으로 노점상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함.
1980년~1981년	건축업자 3명이 상가를 건축 후 분양하는데 회사의 번창을 기원하며 거북산업(거북공업주식회사)이라는 이름을 사용함. 거북시장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됨.
1981년 12월 26일	석남시장 및 가좌시장 개설(가좌동 30-30, 점포수 200개소)
1982년 11월 18일	축산물시장 개설(가좌동 480-19). 점포수 160개소
1985년 12월 4일	강남시장 개설(석남동 454-19). 점포수 103개소
1989년 12월 30일	정서진 중앙시장 개설(가정동 505). 점포수 82개소 (이무렵에는 '신현중앙시장', '가정중앙시장'으로 불림.)
1991년	검단재래시장 개설(추정). 슈퍼마켓 1개, 일반 점포 10개, 횡집 1개, 식당 1개로 구성됨.
1993년	정서진 중앙시장 상인회 초대 집행부(회장 한민석)가 결성됨.
1999년 3월 7일	새벽 1시 48분에 검단재래시장(검단종합시장)에 화재 발생. 점포 7개, 좌판 6개를 태움.
2005년	인천축산물시장이 '축산물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얻음
2005년 8월 17일	신거북시장이 등록시장으로 인정됨
2005년 12월 22일	거북시장이 등록시장으로 인정됨
2006년 9월	신거북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착수
2006년 12월	가좌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착수
2007년 5월	강남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착수
2007년 12월	가좌시장 신거북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2008년 12월	강남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2011년 5월 9일	서구의회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2013년	검단재래시장 소멸(추정).
2014년	정서진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됨. (‘신현중앙시장’, ‘가정중앙시장’이라는 이름에서 ‘정서진중앙시장’으로 이름이 변경됨)
2017년	강남시장이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선정됨.

※ 본 항토지의 내용 및 『서구사(하)』의 연표를 참조하여 작성함.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22

발 행 일 | 2023년 12월

발 행 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 행 인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총 괄 | 서덕현 (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편집 및 기획 | 김영준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집 필 |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허우범 (인천서구문화원 부원장)
김진초 (소설가)
추교찬 (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이슬아 (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김영준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인 쇄 | 영진종합인쇄 (032-425-2199)

ISBN 979-11-977029-2-1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